별별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

농촌 별별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심사 총평

반숙자 심사위원장
(수필가)

제 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는 예심을 거쳐 온 작품이 모두 37편이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침체된 일상이어서 응모작이 어느 때보다 많을 것이라 예상했으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아쉬웠다. 양적인 아쉬움은 컸으나 한 편 한 편 읽어가며 아쉬움을 상쇄하고도 남을 고른 수준의 글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응모작을 통해서 관심의 폭에 한계를 보았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대는 광고의 시대이다. 보다 많은 사람이 보고 알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다.

여성농업인들의 수기에서는 신성한 땀 냄새가 나고 흙 묻은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있어 숙연한 마음으로 읽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삶의 기록이고 어려운 현실을 파헤쳐가는 도전기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이야기라서 그 진솔성이 감동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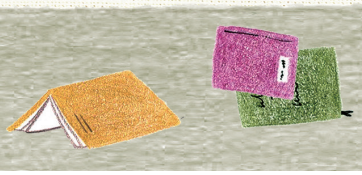
37편 중 괄목할만한 대작은 없었으나 고른 수준의 글이 많았고 농촌의 변화와 발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보여준 글이 많음은 고무적인 일이다. 연륜을 느끼게 하는 글을 발견할 때는 반가운 마음도 들었다. 그것은 지금

까지 농촌을 지켜온 근면성과 굳은 고향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다.

특별한 것은 농촌 토박이의 글보다 귀농, 귀촌의 글이 많음은 현재 우리 사회의 흐름을 짚어보게 했다. 전업농이 아니라 약간의 땅을 준비해서 농촌 살아보기가 유행하고 도시와 농촌의 이중적인 생활을 도모하는 사회의 추세가 잘 반영된 글이 많았다.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들이 농촌변화의 주역이 되고 1차 농업보다 3차, 4차 농업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차 농업기반이 탄탄하고 발전해야 그것을 근간으로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현한 글도 있었음은 반가운 일이다. 그것이 잘 정비되고 안정될 때 6차 산업이 성공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좋은 현상이다.

심사과정은 신문사 기자의 원활한 사회로 각자 소감을 발표한 후 대상의 후보로 인상 깊었던 작품을 두 편씩 골라 많은 표를 얻은 작품을 선정했다. 우수상과 장려상으로 이어가며 같은 방식으로 심사했다. 여기서 치열한 경쟁을 한 두 작품이 바로 <다시 봉지를 씌우다>와 <하루 쌀이 반 가마>이다. 우선 두 작품의 제목이 독자의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점에 주목했다. '다시'가 주는 다음의 내용은 무엇일까, 왜 다시일까. 그 사연은 무엇일까. 여기서 반 성공이 이루어졌다. <하루 쌀이 반 가마> 역시 독자의 궁금증을 촉발하기에 충분한 제목이다.

심사위원들의 팽팽한 심사를 거쳐 표 대결에서 한 표 차이로 장희숙 씨의 <다시 봉지를 씌우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영미 씨의 <하루 쌀이 반 가마>는 한편의 무게 있는 수필작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도 받았다.



대상 당선자평

장희숙 씨의 <다시 봉지를 씌우다>는 장호원에서 복숭아 농사를 짓는 평범한 여성농부의 이야기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결혼과 함께 남편을 따라 장호원에 정착했다. 필자는 그곳의 '햇사레'라는 특별한 상표가 붙은 유명한 복숭아를 재배하고 싶어 논을 메워 400주가 넘는 복숭아 묘목을 심는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고 가까이 시댁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다. 복숭아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생육 과정이며 생태에 푹 빠져서 연구하는 열성 농민이고 아내이고 며느리이고 아이들의 엄마다. 복숭아 농사법을 배우고 싶어 인근 복숭아 농가에 일을 간다. 그곳 농장 주인이 직원 대우를 해주는 바람에 초보 농군이 용기를 얻는다. 몇 년에 걸쳐 기른 복숭아가 수확을 보기 시작한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 신호 대기 중인 필자의 차를 대형트럭이 덮쳐 차는 폐차하고 필자는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난다. 두 달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돌아와서 불편한 몸으로 복숭아밭으로 간다. 일하다가 어지러우면 농막에서 쉬면서 복숭아에 매달린다. 그리고 다음 해 복숭아 봉지를 씌우며 이 글을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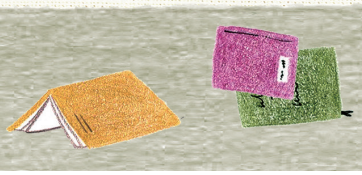
여기서 주목한 것은 자신이 선택한 복숭아 작물에 대한 깊은 애정이다. 애정이 없이 소득만을 바라는 경우가 많은데 복숭아나무의 관찰과 변화 서술이 자세하고 아름다웠다. 두 번째는 가족애다.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는 작금의 농촌 현실에 이들 가족의 협동은 보기 드문 감동을 준다. 새벽이면 며느리의 복숭아밭에 오셔서 우리 며느리가

복숭아 대장이 다 되었다고 칭찬하는 시아버님, 복숭아 수확하는 날, 아픈 며느리 대신 복숭아 상자를 들어 나르는 시어머님, 그리고 코로나로 줌(ZOOM·화상프로그램)으로 수업하면서도 틈틈이 작업을 하는 아들과 딸, 무엇보다도 직장일을 하면서도 더 못 도와 애를 태우는 남편, 이들이 보여주는 가족애는 가족해체의 위기를 겪는 우리 사회에 아름다운 경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글의 백미는 "이제 와 생각해 보니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복숭아의 힘이었다. 먼 훗날 생을 마감하는 날, 내 몸에서는 복숭아 향기가 진동할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지막 문장이다. 긴 여운과 감동을 준 대목이다.

37편의 응모글을 읽으면서 각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귀농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기관임을 보여주는 글이 많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애타는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 농촌을 이끌어갈 새 주역은 여성농업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여성농업인 생활수기는 여성농업인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변화하고 발전하는 농촌의 현실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안내자라 생각한다.

앞으로의 공모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제목이다. 필요 없이 긴 제목을 선택할 경우 제목에서 내용까지 알게 되기 때문에 긴장감이나 호기심이 절감된다. 가급적이면 상징적인 것이 좋다. 두 번째는 문장이다. 글의 뜻을 전달하는 문장의 기능은 스토리의 자연스러움을 가져오기 때문에 문단 나누기, 대화체 남발은 피해야 한다. 세 번째는 꾸며 쓰는 일이다. 내용은 빈약한데 현란한 문장과 사건으로 이목을 끌 수는 있으나 감동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최선을 다했으나 입상하지 못한 분들이나 이번 기회를 놓친 여성농민들은 내년을 희망하며 분투하시기를 당부한다.



심사평

김계순 심사위원
(한국농어촌여성문학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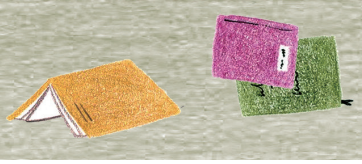
감사하게도 심사 과정에서 본선에 오른 37편의 수기를 먼저 읽어볼 수 있었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농사짓는 분도 있었지만, 올해는 유난히 귀농인들의 글이 많았다. 연고도 없는 곳에서 농사를 시작하며 낯선 이웃과의 관계를 발전시켜가는 과정, 오래전 우리 어버이들이 화전을 개간했던 것처럼 산밭을 개간해서 보람을 느끼는 글, 울타리에서만 보던 여주를 하우스로 농사지어 대량 생산하는 글, 궁채라는 새로운 작목에 도전하는 글 등. 많은 글이 독자의 가슴을 적시기에 충분했다.

이번 본선에 올라온 작품 중에는 다양한 작목에서 농사짓는 내용이 많았는데, 축산업에 대한 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작은 아쉬움이었다. 이번 공모전에서도 많은 응모자가 어려움을 토로한 것 중 하나는 농산물 판매 과정이었다. 다른 직업과 달리 농사는 날씨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다. 이상기후 때문에 점점 사람의 힘으로 대응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해지는 것이 현실이다. 온갖 폭력적인 날씨 속에서 어찌어찌 농사 잘 지어놓아도 막상 판매 과정에서 가격폭락을 맞는 일이 잦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가공, 인터

넷 등을 활용한 직거래, 6차산업으로의 변화 등을 모색하기도 한다.

농사꾼은 그저 농사만 잘 지으면 판매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유통구조가 신속하게 구축되기를 희망한다. 농산물 제값 받기 위한 노력을 더는 안 해도 적정 수입이 보장되는 농업환경. 그것이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하나 이번 공모전에 특이사항이 있다면 수필을 닮은 수기가 많았다는 점이다. 체험이 연결되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에서 깊은 생각을 더 해 그 사건을 의미화시키는 글이 다수 있었다. 문학성으로 보면 더 가치 있을 수 있겠으나, 작가가 걸어온 길에 대한 언급의 비중이 작아 수기로서는 다소 아쉬웠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글을 응모하신 모든 분께 행복 가득하기를 바라며 박수를 보낸다.



심사평

김현수 심사위원
(동화작가)

"시집와서 이튿날부터 주걱을 돌렸으니 오십 년이 넘었네. 묵고 살자고 돌리다 보니 이래 세월이 갔다 아이가. 그 심으로 새끼 여섯 키우고 영감 병수발 했제. 먹고 살라꼬 자꾸 하다보니 잘하게 된 거고. 사는 것도 살아보면 잘살게 돼. 이 주걱이 내 맹 줄이다. 맹줄"

유명숙 선생님의 글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라네>의 한 구절입니다. 마을에서 묵이며 두부를 만들어 오일장에 파는 신불 댁이 묵을 쑤며 팥죽 같은 땀을 흘리며 하는 말입니다. 말이라기보다는 신음이자 비명이며 호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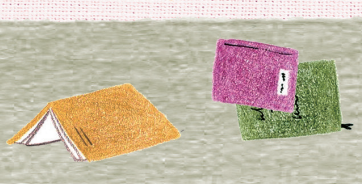
여성농업인은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도시 중심의 여성정책에서 배제되는 이중의 차별 속에 있습니다. 농사일의 50% 이상을 담당하는데도 여성농민 경영주는 16%이며, 공동경영주도 14.1%에 불과합니다. 무급가족종사자 비율이 66%입니다. 남성이 주로 하는 논 농업 기계화률은 98%인데 반해 여성이 주로 하는 밭 농업 기계화율은 58. 3%입니다. 경운, 정지, 방제, 비닐 피복 등을 밭 작업에 포함한 통계이니, 여성 농

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기계화율은 10% 미만입니다.

21세기, GDP가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한국의 여성들은 오늘도 여전히 호미 하나 매고 밭에 갑니다. 농촌 여성의 유병률이 일반 여성의 3.8배인 이유입니다. 그렇게 일하고도 여성의 인건비는 일당 3만 원이 넘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같이 농사지었는데 생산물 중 상품은 남성의 이름이, 하품에는 여성의 이름이 박혀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통장도 남성의 통장입니다. 1일 가사노동시간은 여성농업인 283분에 비해 남성은 37분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남성 조직은 특우회, 청년회, 노인회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데, 반해 여성들의 조직은 부녀회뿐입니다. 그나마 '봉사'라는 이름으로 마을의 뒤치다꺼리를 도맡습니다. 부녀회가 마을 행사를 준비해놓으면 마이크는 남성들이 잡습니다. 도시의 여성 통장이 74%에 육박하는 데 반해 여성 이장은 10%가 되지 않으며, 농협 여성조합원은 33%인데 반해 여성조합장은 0.7%입니다.

의무만 있고 지위와 권한은 없는 여성농민들의 삶. 누구도 여성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여성 친화적인 기계가 왜 없는지 묻지 않습니다. 왜 부부가 같이 농사일하고 들어와서 여성은 주방으로 가는지, 농사일을 같이 하는 딸에게는 논밭을 물려주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곳. 2022년 한국 농촌의 모습입니다.

제6회 여성농업인 수기에서 만난 여성농민의 삶은 팍팍하고 고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그런데도 여성농민들이 길어 올린 글들은 정갈하고, 당당합니다. 땅심을 만들기 위해 퇴비를 만들어 쓰고, 새로운 농법을 지치지 않고 실험합니다. 해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남의 잠을 깨울까 봐 마을과 먼 밭서부터 일합니다. 영농코디네이터로, 여성정책과 여성친화 농기계 사용법



을 알려주러 먼 마을까지 다닙니다. 마을의 이장으로 맹렬히 일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사진을 찍고, 사연을 받아 적으며 마을을 가꾸고, 연결해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가치가 매겨지지 않아도 삶의 경제, 서로 돌봄의 공동체를 일구어가는 여성농민들의 모습이 글마다 빼곡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차별과 억압이 상식인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그 땅을 품고, 일구고, 변화시켜가는 여성농민들의 모습에 감탄하며, 배우며, 설레며 읽었습니다. 농촌의 미래, 여성농민이 열어간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평

이수안 심사위원
(수필가)

이번 공모전을 관통하는 단어 셋을 꼽는다면 귀농, 날씨, 판매다. 특히 귀농인이 농부로서 정착해 가는 글이 많았다. 농부의 삶이 고단한 것은 사실이지만, 팍팍한 도시에서의 일상에 지친 마음들이 인간 본연의 고향 농촌으로 향하는 현상이라고 본다.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의 기류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대체로 날씨와 관련한 문제들이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폭염, 폭우, 태풍, 혹한 등등. 이상기후로 더 잦아진 이 불청객은 모든 노력을 단번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다. 그 와중에 농사 잘 지어놓으면 낮은 판매가가 농심을 울린다. 높은 생산비에 낮은 소득.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요행은 없다. 겪을 만큼 겪은 뒤에 얻은 결실, 이런 내용의 수기를 마주하는 독자는 감동을 넘어 숙연해질 수밖에 없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예심을 거쳐 본선에 오른 37편 중에서 심사위원 다수의 의견으로 장희숙 씨의 <다시 봉지를 씌우다>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교통사고로 일주일간의 혼수상태를 겪은 뒤 복숭아를 먼저 생각하는 장

면에서 농사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볼 수 있다. 유려한 문장, 탄탄한 구성, 미소가 지어지는 따스한 가족애 등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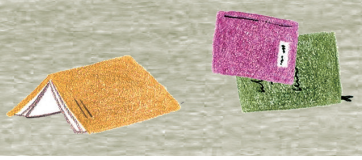
이번 공모전에서는 한 가지 아쉬운 면도 있었다. 농촌에는 능력 있는 귀농인뿐만 아니라, 결혼하면서 바로 농업에 뛰어들어 묵묵히 농사 외길을 걷는 여성농업인도 많다. 수십 년 세월을 농사지으며 남성 못지않게 높은 농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수많은 여성농업인. 앞으로 우리 공모전이 묵묵히 농사에 투신하는 여성농업인의 묵직한 글도 더 발굴할 수 있기를 희망해본다. 고단한 농사일을 하면서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좋은 작품 응모해 준 모든 분께 존경의 마음 전한다.

심사평

우미옥 심사위원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사무관)

올해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작품은 은퇴 후 귀농한 여성농업인, 도시를 떠나 농촌에서 다시 시작한 여성농업인의 농업농촌 정착기를 담은 사연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팬데믹, 경기 불황 등으로 갈수록 팍팍한 도시 생활을 떠나 막연히 농촌 생활을 동경하여 시작했지만, 농촌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는 글들이 많았다.

이는 우리들 중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을 법한 삶의 이야기로 울림이 크다. 또한 안착하는 과정은 치열했지만 그런데도 농업인으로서의 행복을 느끼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농업농촌의 주체로서 지금도 고군분투 중인 여성농업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번 무대를 모두가 함께 즐겼으면 한다.



제6회
여성 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썰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상

장희숙
다시 봉지를 씌우다 020

우수상

김경자
작은 잣 골에서 부르는 노래 032

김영미
하루 쌀이 반 가마 044

김예지
제주도에 사니깐 매일이 휴가잖아 054

방금숙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이다 064

이겨레
오늘도, 마을 마음 072

장려상

강보민
귀농 새내기에서 강소농을 꿈꾸며 088

김미자
삶의 향기 098

김지원
다시 찾은 꿈, 도전하는 여성 농업인 108

박종임
사과꽃 필 무렵 118

유명숙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라네 128

유순복
쌀귀리 농사를 짓다보면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142

임병숙
헛고생 152

장광숙
나는 영농코디네이터 장광숙 160

장성희
귀농, 희망을 전해준 일곱 빛깔 무지개 174

정덕화
뻐꾸기 울던 시절 188

조연희
난 할 수 있다 196

최명자
고생 끝에 얻은 행복 2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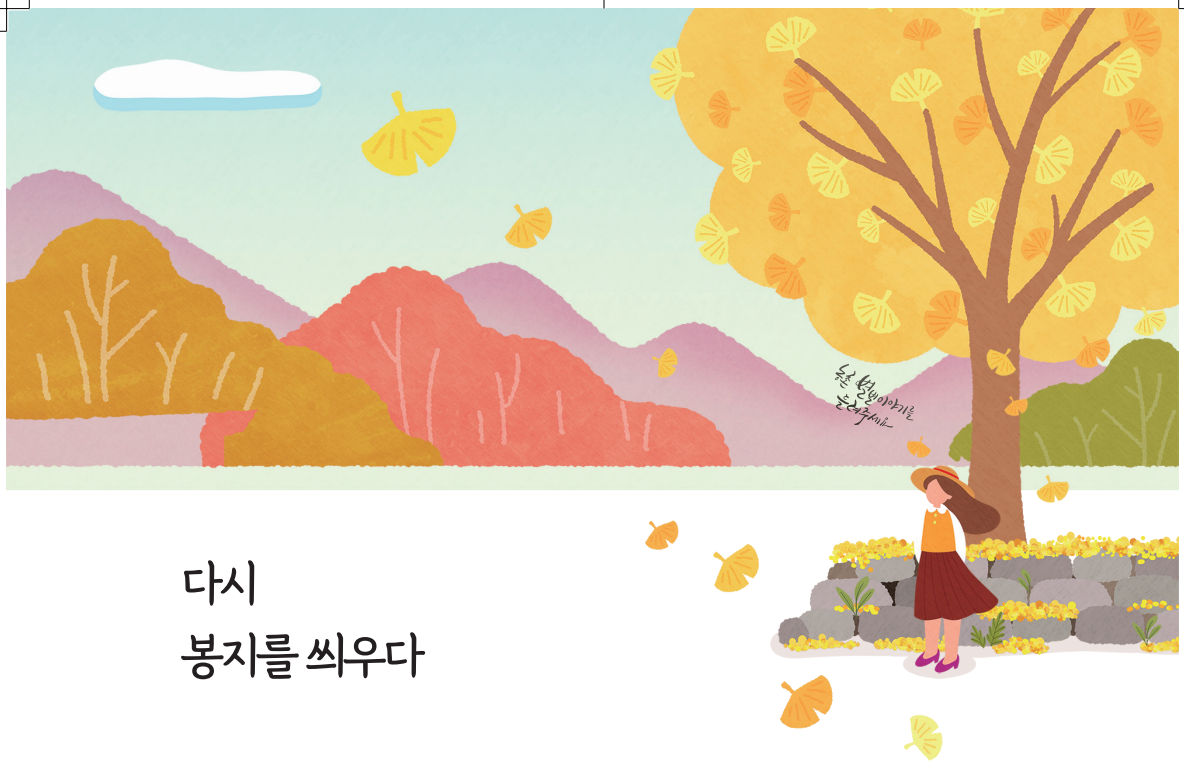
최순자
이 여자가 요즘 사는 법 -순자씨의 즐거운 농촌생활 212

추서연
전생에 농부였을 거야 228

대 상

제 6 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다시 봉지를 씌우다 | 장희숙



다시 봉지를 씌우다

장희숙

복숭아에 봉지를 씌우는 날이다. 다시 그날이 돌아왔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무장해야 한다. 짧은 앞치마를 두르고 200장이 넘는 노란 봉지를 챙긴다.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토시와 장갑을 끼면 전투준비가 완료된다. 소중하게 복숭아를 다루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감싸 봉지 속으로 쏙 집어넣고 봉지 끝을 말듯이 접는다. 병, 해충 피해를 줄이고 과실 착색을 좋게 하려고 샛노란 옷으로 갈아입힌다. 노랑 저고리를 입고 한여름 더위와 태풍과 비바람도 잘 견디며 7월에 만나자고 인사를 해본다. 올해는 유난히 덥다는 기상청 예보에 더위를 식히라고 삼베 저고리라도 입혀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렇게 씌어두면 봉지 속에서도 햇살

받으며 근육질의 몸을 불려 탐스럽게 영글어 갈 것이다. 잘 여문 햇사레 복숭아는 가장 더운 여름철에 사람들의 입을 단침으로 유혹할 것이다.

결혼 후 남편을 따라 장호원으로 내려왔다. 서울에서 회사에 다니다가 농사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새댁이 농사를 짓는 집으로 시집을 온 것이다. 시어른과 함께 사는 시댁에서 살림은 시어머니가 대장이시고, 벼농사는 시아버지가 대장이셨다. 남편은 회사에 출근하니 나는 할 일이 없었다. 장호원은 '햇사레'라는 특별한 상표가 붙는 복숭아가 유명한 곳이다. 나는 겁도 없이 논을 메워 400주가 넘는 복숭아 묘목을 심었다.

나무가 어릴 때는 모든 게 좋아 보였다. 복사꽃이 피면 돗자리를 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을 쳐다보았다. 흙이 좋아 장화를 벗고 하염없이 과수원 바닥을 걷기도 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제초작업과 소독을 담당해 주었다. 제초작업을 끝내면 풀 냄새가 좋아 한동안 과수원을 떠나질 못했다. 남편이 소독하고 제초작업을 해주는 게 고마워 복사꽃이 필 때면 회사 직원들을 초대해 과수원에서 꽃 잔치를 하곤 했다. 방앗간에서 떡을 맞추고 닭백숙을 삶고 삼겹살을 구워 먹이면서도 손님 오는 게 좋았다. 넉넉히 먹거리 준비를 해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다 대접했다. 남편은 직장에 다니면서 일을 돕는 걸 많이 미안해했다. 나는 오히려 정년이 되는 그때까지 과수원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복숭아를 만나게 해 주어 고맙다고 했다.

묘목 3년 차가 되면 열매를 하나씩 단다. 복숭아나무를 심어 놓고 열매가 달리기 전, 어떻게 하면 복숭아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을까 배울 겸 이웃 농장에 봉지 씌우기 작업을 나가기도 했다. 워낙 일손이 부족하기에

일을 나간다고 하니 농장 사장님께서는 '신입생 환영회'라는 이름으로 케이크와 수박까지 사 오셔서 파티도 열어 주셨다. 내 농장에서 혼자 일하면 물 한잔 떠다 주는 사람이 없다. 남의 일을 하다 보니 물과 간식, 음료수까지 챙겨 주셨다. 남이 해주는 밥맛은 얼마나 좋던지. 농장 사장님은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직원우대를 해 주셨다. 초보 농군인 내게 복숭아 농사를 쉽게 하고 재미를 느끼도록 많은 용기를 주셨다.

한 해 두 해 지나자 나무가 커지고 일은 점점 많아졌다. 언제까지 초보 농사꾼으로 있을 수가 없어 영농교육을 받으러 쫓아다녔다. 궁금한 것은 사진을 찍고, 평소와 다른 이파리는 따 가지고 복숭아 연구소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었다. 연구소 소장님께서 농업마이스터 대학에 입학해 복숭아에 대해 더 공부해 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지만, 그럼 우리 집 복숭아 농사는 누가 짓느냐며 몇 번을 거절했다. 사실 혼자 하는 농사라 제철마다 해 줘야 할 일이 많다. 이른 봄, 꽃이 피기 전에 소독약을 뿌리고 꽃이 피면 꽃을 솎고 열매가 맺기 시작하면 열매를 솎아내고 봉지 씌워 여름에 수확해야 한다. 삼복더위에도 그 깔끄러운 복숭아를 따야만 한다. 낙과가 염려되어 비가 와도 비를 맞고 수확해야 한다. 복숭아를 따기 전에 미리 할 일이 있다. 최대한 손톱을 짧게 자르는 일이다. 갓난아기 만지는 심정으로,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면 큰일이다. 하늘이 짓는 농사이기에 자연에 순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자식 같은 복숭아라서 어디가 아픈지, 퇴비가 부족한지 파악해야 하고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살펴야 한다.

꽃봉오리 피기 전에 솎아주는 것을 적뢰라고 한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기 전 미리 일을 줄이기 위해 아픈 다리를 어르고 달래며 봉오리를 따 준다. 어찌 보면 세상에 나오지도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녀석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주인의 심정도 이해해 줄 거라 믿는다. 제꽃가루받이가 되지 않는 품종은 수정이 잘 되는 다른 품종의 꽃을 미리 따서 꽃가루를 만들어야 한다. 일일이 꽃에 묻혀 주는 수정 작업을 할 때는 어깨도 몹시 아프지만, 주렁주렁 달릴 열매를 생각하니 힘이 든 줄도 모른다.

6월이 되면 아침 일찍부터 봉지 씌우기 작업에 돌입한다. 엊그제 깎은 풀은 왜 이리도 빨리 자라는지.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봉지를 씌우는 손이 무겁기만 하다. 농사 첫해에는 아까운 마음에 욕심이 지나쳐 주렁주렁 달았다가 낭패를 봤다. 너무 많이 결실시키면 과일이 작아지고 나무가 힘들어한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 된통 혼이 나고부터는 욕심을 버리고 적당히 착과시켰더니 나무가 편안해했다. 봉지 씌우기가 끝난 나무는 순 자르기를 해줘야 한다, 삐죽삐죽 솟아난 웃자람가지를 잘라줘야 한다. 필요 없는 양분 손실을 미리 막아주고 햇볕이 고루 들어야 맛이 좋아지니 힘들어도 꼭 해야 하는 작업이다. 전지가위를 허리에 차고 가지 자르는 모습을 아버님이 보시더니 '우리 며느리 농사꾼이 다 됐네' 하시며 껄껄껄 웃으셨다.

드디어 복숭아 수확 철이 되었다. 이른 새벽에 사다리 위를 오르내리며 작업을 하는데 논에 가셨던 시아버지께서 오셔서 말을 걸어오셨다.

"나 없으면 에미는 누구랑 복숭아 따니?" "아버님이 오래 사셔야죠."

무른 복숭아 하나 껍질을 벗겨 드리니 맛나게 드셨다. “맛있구나. 우리 며느리 복숭아 대장이 다 되었구나!”

혼자 복숭아를 따고 있을 며느리 걱정에 아침밥도 거르고 나오신 게 분명했다. 시아버지의 그 말씀에 초보 농사꾼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새벽같이 딴 복숭아는 가족들이 모여 포장을 도왔다. 어머님은 봉지를 벗기고, 딸은 상자를 접고, 아들은 옆에서 단물 흘려가며 먹었다. 손발이 척척 맞아 들어갔다. 애들은 마침 방학이라 아르바이트한다면서 도와주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 많은 것 같았다. 우리 집 복숭아 농사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이제 겨우 복숭아와 친해지려고 하던 그때 교통사고가 났다. 작년 봄, 읍내에 나갔다 오는 길이었다. 신호대기 중인 내 차를 대형트럭이 뒤에서 박았다. 차는 폐차가 되었고 나는 혼수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간 깨어나지를 못했다. 임종을 맞이해야 할지도 모르는 처지에서 가족들은 내가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복숭아의 봉지를 싸는 시기였지만 그깟 게 무슨 소용이었을까. 생사의 갈림길에서 깨어나기만 기다렸을 식구들을 생각하면 아찔해진다. 다행히 나는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부분 기억 상실이 있었고 다리가 좀 불편했지만, 가족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이라는 병명으로 두 달이 넘게 병원 생활을 해야 했다. 병원에서 2개월여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복숭아밭부터 돌아보고 싶었다. 마침 복숭아를 딸 시기였다.

워낙 몸을 많이 다치고 아픈 상태라 내가 다시 복숭아 농사를 지을 수

LEETEN
LT-SMS500

있을까 솔직히 고민이 되었다. 그래도 밭에 열린 복숭아는 마저 끝을 봐야 했다. 무슨 정신으로 복숭아를 수확했는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게 아니라 못할 것 같은 날에도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과수원으로 가야 했다. 30도가 넘는 삼복더위에 모기에 물려가며 복숭아를 땄다. 새벽 시간에는 어지러워 나가질 못했다. 아들이 눈을 비비고 나간 뒤 한참 지나 내가 과수원으로 나갈 수 있었다. 작업복을 걸치고 밭에 나가 복숭아를 따서 선별작업을 했다. 중간중간 농막에 들어가 누워 있다가 어지럼증이 사라지면 다시 작업했다. 몸에 무리가 갈까 조심하느라 느릿느릿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펐다. 설거지하다가 우연히 바라본 나무에서 복숭아가 힘을 내라고, 빨리 나으라며 '파이팅'을 외쳐주는 것 같았다. 산들바람이 친구가 되어 주기도 했다. 둑에 핀 개망초꽃과 눈이 마주쳤다. 지는 것도 서러운데 꽃잎이 시들어 떨어질 땐 아픈 나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백내장 수술로 눈이 침침하신 시어머니는 아픈 며느리에게 힘을 보태기 위해 무거운 복숭아 상자를 번쩍번쩍 날랐다.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코로나로 집에서 줌(ZOOM·화상프로그램)수업을 받던 아들이 아니었으면 자식 같은 복숭아를 땅에 다 쏟았을지도 모른다. 내가 복숭아 농사에 애착을 가진 것을 알기에 아들은 자기 나름으로 도왔다. 엄마의 소중함을 알기에 나를 위로해 주는 길이 복숭아 농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줌으로 수업을 듣고 밤에 과제를 하던 아들이 사흘 내내 코피를 쏟았다. 겁이 덜컥 났다. 아들이 안쓰러워 마음이 아려왔지만, 별일 아니라며 엄마를 안심시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더 아팠다. 모든

게 괜찮고 괜찮아질 것이라고 최면을 걸면서 복숭아 따기를 도왔다. 제대로 봉지도 못 씌웠고 복숭아 딸 시기에 비가 많이 와서 좋은 품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복숭아 농사를 끝낼 수 있었다.

요즘 들어 진하게 여름 냄새가 난다. 숨이 헉헉거리고 열매와 이파리가 헛갈릴 정도로 빙빙 돈다. 작년 한 해 쉬었다고 복숭아가 더위로 서운함을 표하나 보다. 나무가 낮은 곳은 무릎을 꿇고 일해야 한다. 고개를 숙이고 봉지를 씌우다 나도 모르게 주르륵 흐르는 눈물을 장갑으로 훔친다. 복숭아 봉지를 다시 씌울 수 있을지 선명하지 않았던 그때가 뇌리를 스칠 때면 자꾸 눈물이 난다.

대장이 되기 위해 복숭아나무를 심고 영농교육을 다녀 반전문가라 여기며 복숭아 농사를 지어왔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여유와 품격이 있는 과수원을 만들기 위해 나름 피, 땀, 눈물을 쏟았다. 53년 만에 나의 특기가 톱질이라는 것도 알았다. 그런데 이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다. 소중한 기억으로 가득 찬 과수원이 자꾸 눈에 아른아른하다.

식구들은 모두 과수원을 접으라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다. 몸이 많이 회복되어 다시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남편과 아이들한테 사정사정했다. 그동안 쌓아온 농사 실력이 아까웠다. 자식같이 아껴온 나무들을 다 엎어버릴 수는 없었다. 눈물까지 글썽이며 부탁하여 과수원의 반만 다시 논으로 복구시켰다. 나머지는 과수 농사를 계속 짓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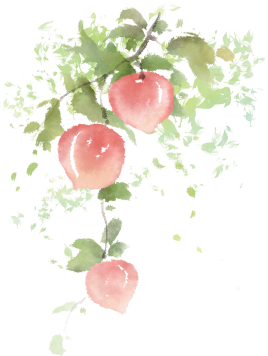
과수원을 논으로 만들기 위해 굴착기가 동원되었다. 뽑아낸 뿌리를 실어 가는 트럭이 붕붕 대고 소란했지만, 내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과수원

을 다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에 고개를 들기도 죄스러웠다. 시어른들과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왔다. 어른들이 계시는데 퍼질러 앉아 울 수도 없었다.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농막으로 들어가 버렸다. 숨어 앉아 남은 복숭아나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다.

사고 1년이 지난 지금, 과수원에서 다시 일한다는 게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시큰거리는 다리 때문에 불편한 것을 본 남편이 고소작업차를 사 주었다. 자동으로 오르내리며 가지치기를 할 수 있고 적화나 열매를 솎을 수 있다.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남편의 세심함에 감사한다.

지난밤부터 지속하던 가뭄이 해소되는 단비가 오고 있다. 목마름 끝에 한 모금 물이 얼마나 단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를 듣는 것은 설레는 일이다. 긴 병원 생활도 이겨 냈는데 이젠 세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통증이 밀려와도 난 복숭아 수확 철인 7월이 마냥 기다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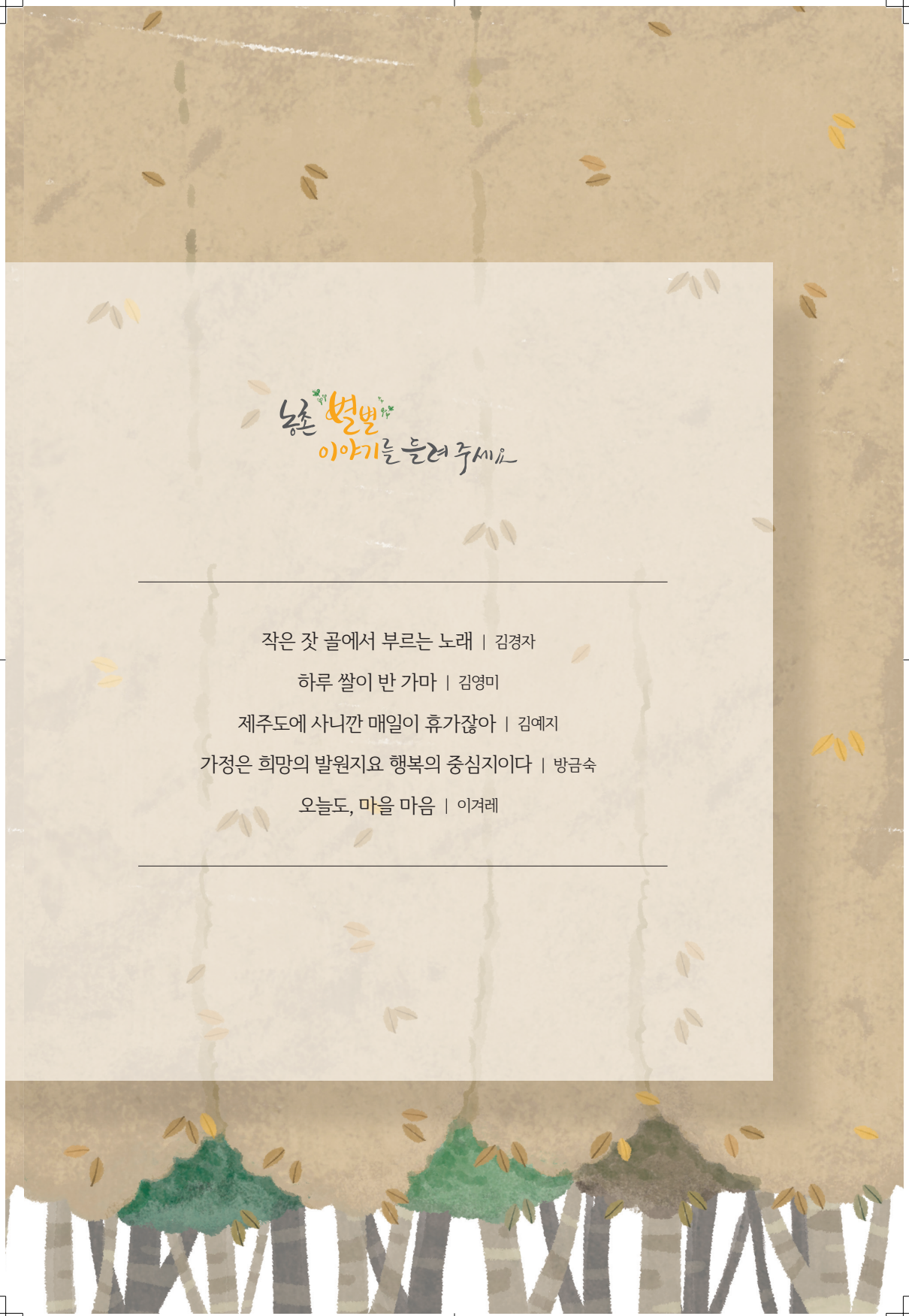
다시 복숭아 봉지를 씌울 수 있어 다행이다. 아직 한의원에서 침을 맞아야 하고, 가끔 빙빙 돌 때도 있지만 이만하면 움직일 만하다. 정수리가 타는 듯한 뜨거운 태양도 고맙고, 더위를 싣고 온 묵직한 바람도 좋다. 앙상한 나뭇가지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듯이 다행히 나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다. 무릎의 통증도, 어지러움도 모두 모아 봉지 속에 싸매어 멀리멀리 날려 보낸다. 이제 와 생각해보니 나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누가 뭐라 해도 사랑하는 가족과 복숭아의 힘이었다. 먼 훗날 생을 마감하는 날, 내 몸에서는 복숭아 향기가 진동할지도 모르겠다.



우수상

제 6 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느슨한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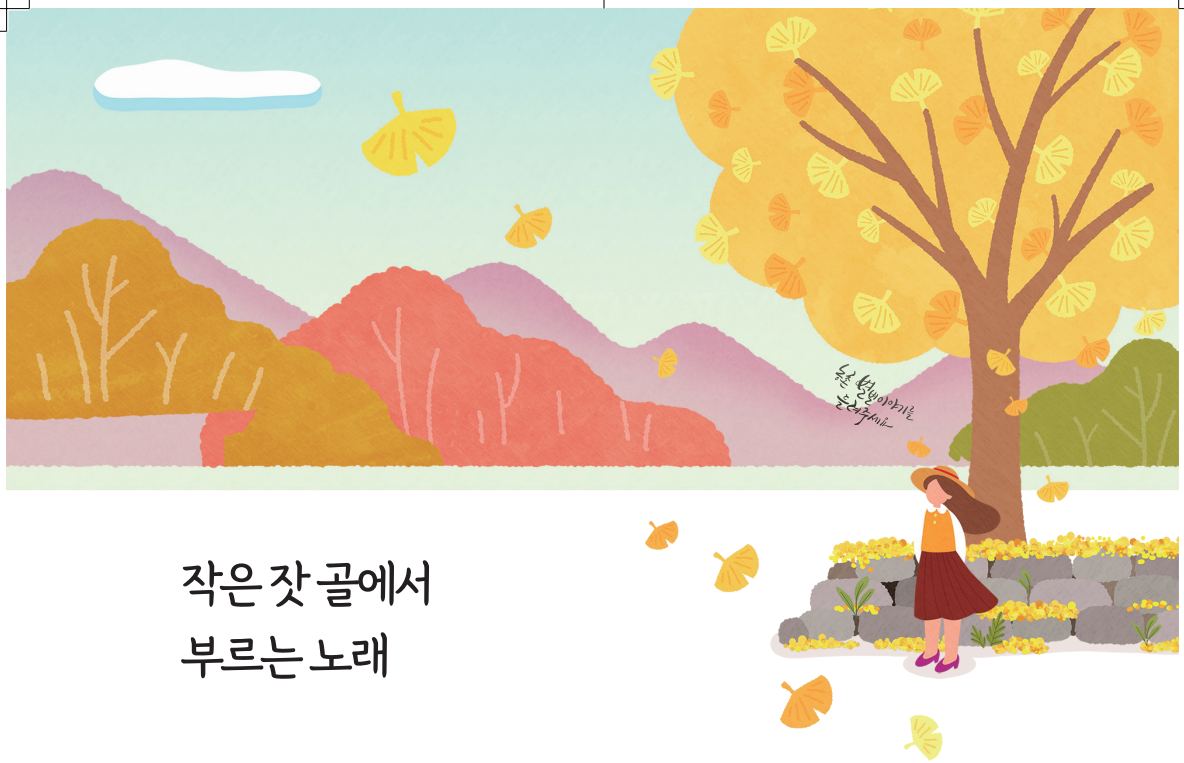
작은 잣 골에서 부르는 노래 | 김경자

하루 쌀이 반 가마 | 김영미

제주도에 사니깐 매일이 휴가잖아 | 김예지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이다 | 방금숙

오늘도, 마을 마음 | 이겨레



작은 잣 골에서 부르는 노래

김경자

"여보, 축하해~ 드디어 여성 농민이 됐어~ 당신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정해 준 농민이야~"

면에서 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남편이 달뜬 목소리로 전해준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던 여성농민의 조건이 조정이 됐는지 여차여차 인정을 받은 날이었다. 남편은 나보다 더 신이 났다. 혼자서 농사일 하느라 고생했는데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아 안쓰러웠단다. 그 여차여차에 남편이 직장인이어서 퇴짜 맞기도 했던지라 은근히 미안했다던가.

어떤 일에 조건을 딱 맞추기란 참으로 어렵다. 누군가는 쉽게 건너는 강이어도 못 건너는 이가 있는가 하면 가까운 길도 멀리 돌아야만 하는 때

도 있지 않은가.

귀농 11년 만이다. 누가 꼭 알아줘야 하는 건 아니라서 묵묵히 내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막상 승인이 났다고 하니 가슴이 뛴다. 여성농민. 산업역군 같은 느낌이다. 보이지 않는 완장을 하나 달고 우줄우줄 밭으로 간다.

농부의 딸이었기에 농민이 되지 않으려고 바둥바둥 살아 온 청춘이었다.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농부는 되지 말자는 신념으로 부단히 도시로 나가려고 애를 썼건만 돌아보면 나는 어느새 시골에 와 있곤 했다.

난청으로 인한 몇 번의 실직 후, 마음 둘 곳 없을 때 떠밀려 간 곳은 부모님 곁이었다. 회사에서 잘린 딸의 낙향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자 말문을 닫으셨던 부모님께 참으로 염치없었지만 나는 고향 마을이 참 좋았다. 도시보다 시골의 정서가 맞았다는 표현이 옳을지도 모른다. 벼농사와 생강, 마늘 산지인 서산의 도비산 자락에 있는 고향마을은 산동리라는 이름처럼 산세를 낀 아늑한 곳이다. 그곳에서 몇 달씩 부모님 농사를 도우며 마음의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기를 기다려 다시 도시로 나갈 용기를 얻곤 했다. 아무렴, 어느 인간사가 농사보다 더 힘들겠는가! 이 악물며 도시로 나가 몇 달, 혹은 몇 년을 살아갈 기운을 짜내던 그 짠 내 나던 청춘의 암흑이 영원할 것만 같더니 어차피 돌아올 길이었나 보다.

어린이집 교사로 십수 년 일하다 결혼과 동시에 화성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다. 분에 넘치는 옷은 어울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앙의 근원이 된다던가. 내 작은 그릇에 남편의 지략이면 가능하겠다고 생각했던 일은 허덕허덕하다 4년 만에 빚만 남기고 사라졌다. 믿기지 않았지만, 그것도 인생 공부라면 5교시의 졸음까지 앗아갈 것

이다.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늘 얻어지는 게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2010년 여름, 문 닫은 어린이집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었다. 부랴부랴 검색해 찾은 곳이 지금 우리가 사는 영월의 산골집이다. 남들처럼 착실하게 모아둔 돈으로 땅을 사고 집을 짓고 퇴직연금 받으며 귀농한 게 아니라 물설고 낯 설은 동네의 시골집 한 채 달랑 사서 한여름 장맛비에 봉고차로 둘이서 이삿짐을 날랐다. 집수리도 둘이서 손수 했다. 귀신 나올 것 같은 시커먼 벽지를 뜯어내고 황토페인트로 깔끔하게 발라주고, 문틀을 넓히고, 지붕에 페인트를 발라 주니 그럭저럭 살만해졌다. 70년대 건물이라 습기로 인한 곰팡이와 장마철 지붕 누수는 피할 수 없지만,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한 전형적인 강원도식 주택이다.

다음 해, 산밭을 꾸려보라는 동네 분의 소개로 지금의 밭을 만났다. 집에서 15분 거리의 골짜기 안에 위치한 800평 규모의 임야다. 칡넝쿨과 싸리나무, 억새 등 온갖 잡초 우거지고 오래 묵은 땅이었다. 한마디로 숲이었다. 산자락이 개울로 길게 늘어진 부채꼴 모양(작은 잣 골)은 마을의 저수지를 끼고 한적하게 드러누운 형상이다.

마을 인구가 줄면서 손길이 멎은 지 오래였단다. 옆 동네 마차탄광이 부흥하던 시절 넘치는 인구와 부족한 옥토로 화전을 일구어 옥수수와 감자를 심었다던 어르신들의 일화를 무슨 전설처럼 들으며 우리는 매일 산밭으로 향했다. 도구라곤 호미와 톱, 괭이뿐인지라 맨땅에 헤딩하듯 가시덤불과 싸우고 칡을 캐냈다. 마디마디 땅에 뿌리박은 칡넝쿨을 자르다 지쳐서 고개 들면 사방이 첩첩산중이었다. 산 넘어 산이요. 그 산 너머 또 산이라. 산을 산으로 두른 병풍세계였다. 영화 〈더 록〉의 앨커트래즈섬이

이랬을까? 가도 가도 끝없는 망망대해나 넘고 넘어도 산맥인 강원도 산골짝이 어쩌면 낙오자의 처지라는 비슷한 맥락 같았다.

이웃이 트랙터로 밭을 갈 때 우리는 호미로 칡뿌리를 캐고 풀을 뽑았고, 이웃이 관리기로 두둑을 세울 때 우리는 톱으로 나무를 베거나 넝쿨을 걷어냈다. 완벽한 철기시대로의 귀환이었다. 기계가 없다 보니 최고의 도구는 손이고 호미였다. 산새가 울면 따라 울고, 남편이 불러주는 노랫가락에 흥을 돋우며 할 일이 있어 감사한 시간이라고 자위하는 날들은 그러나 깊은 골짜기 안에 멈춘 채 자맥질만 하는 것 같았다. 아무도 찾지 않는 우리부부만의 뚝딱거림은 두 달 넘게 이어졌다. 단절도 지독한 단절이었다. 작은 잣 골은 우리 부부 이외에 아무도 들이지 않겠다는 듯이 무겁게 가라앉아 고요했다.

2011년 3월은 춘설이 잦았다. 눈이 오면 녹은 후에 올라가고, 비가 오면 땅이 마른 후에 작업을 했다. 그럴 때는 동네 일손 부족한 집일을 도왔다. 고추 산지인지라 고추모종을 직접 키워 심고 가꾸는 마을 분들이 많았기에 일손은 항상 부족했다. 그중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고 좋아하시던 어르신들의 고추 모 이식을 도우며 친목도 다졌다.

밭에 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제주도에 돌 많다는 하나 어디 강원도에 비하랴 싶다. 배구 공만한 돌덩이를 호미로 파고들어 내는 일이 끝이 없었다. 싸리나무와 쥐똥나무를 베어 산자락에 쌓고. 한 아름되는 쑥과 억새 뿌리, 달맞이, 망촛대 캐내는 일도 무엇 하나 쉬운 게 없었다. 산딸기 및 찔레나무로 인한 상처는 훈장이었다.

"여보, 나 여기, 찔렸어~"하면 "나도 여기 긁혔어~"하던 남편. 부창부

수라고 우리는 서로 마주 보며 웃다가 저 아래 우리 집 마당에서 강아지의 짖음이 바람 타고 올라오면 잠시 기쁨에 젖곤 했다.

남편에겐 이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부식차가 반가운 손님이었다. 확성기에 댄 마이크 소리가 산밭까지 쩌렁쩌렁 울리면 나르던 돌멩이 내던지고 뛰어 내려가 막걸리 한 통 흔들며 개선장군처럼 올라온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 심부름하던 꼬맹이 얘기 안주 삼아 벌컥벌컥 마시던 막걸리. 지금도 여전한 남편의 막걸리 사랑은 추억이고 노동의 보상이다. 하루 일 마치면 저녁에 마실 막걸리 생각에 힘이 나고 일이 힘든 것을 잊는다는 하니 어쩌겠는가. 그의 즐거움은 나의 행복이다. 흥이 나서 기타를 연주하고 하모니카 불며 밤 깊도록 노래하면 다음 날 이웃들이 노래 감상 잘했다고 인사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또 좋단다.

이렇듯 함께하는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귀하고 감사했지만, 삽질 한번 해보지 않은 남편의 거칠어진 손바닥이 짠했다.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에서 '시작이 반이다'로 바뀐 순간의 각오를 날마다 큰소리로 외쳤다. 반쯤 했을 때는 "이제 다 했다!"로 바뀌었다. '조금만 더 하자, 거의 다 했네!'는 서로에게 건네는 위로였다.

도시락 싸 들고 아침에 밭으로 가면 해가 진 뒤에야 파김치 되어 들어왔다. 정신없이 꼬리 치며 반겨주는 강아지가 유일한 위로였던 어떤 날들은 아침에 눈을 뜨고 움직이지 않는 몸에 이대로 다시 밤이 와 잘 수 있으면 좋겠다고 버티다가 밝아오는 동창에 끌려 나오기도 했었다. 어쩌면 이때 이미 우리는 육체노동의 개운함을 머리보다 몸이 먼저 알아가고 있었는지 모른다. 흙먼지 속에 땀으로 범벅이 된 몸을 씻고 나면 아우성치는

육체의 즐거운 비명, 왜 있지 않은가. 등산 후의 알 배긴 뻐근한 허벅지가 주는 희열 같은 것. 노동으로 아픈 몸뚱이가 자랑스러워지고 있었다.

속 모르는 이들은 우리 작업을 두고 그런다. 너무 답답하고 원시적이라며 기계를 쓰라고 한다. 한 달 생활비조차 없던 우리가 어디 가서 무슨 기계를? 카드값은 쌓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자 갚을 일도 까마득한데 농기계라니! 그림의 떡이었다. 그런데 명색이 귀농이라고 궁금해서 다녀가는 지인들은 누군 어디로 귀촌해 멋진 집 짓고 놀러 다니며 산다더라, 혹은 비닐하우스 크게 지어 애호박, 토마토로 몇천 벌었다 하더라 등으로 우리의 기를 팍팍 죽였다. 딴 세상 소식을 물고 잠깐 다녀가는 손님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로 우리가 받는 상처를 헤아리지 않았다. 누군들 편리한 새집 지어 살고 싶지 않을까. 누군들 거대한 비닐하우스 지어 혁신적인 농법으로 개량종에 도전해 보고 싶지 않을까.

나는 가끔 의문이 들었다.

"여보, 우리의 삶이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 우리 잘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깊은 산 속에서 묵묵히 산밭을 가꾸며 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기나 할까?"

남편은 정색했다.

"무슨 소리야. 모든 국민이 애국자는 아니잖아. 우리가 매국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두 자기 역할대로 열심히 살면 그게 다 나랏일 편해지는 거지. 우리가 타인에게 피해 안 끼치는 것만도 국민역할 제대로 하는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가?"

"모두가 영웅일 필요는 없어. 그럴 수도 없고!"

남편의 토닥거림에 늘어지던 기운 추스르며 다시 힘을 내곤 했다.

강아지 산책 한번 못 시켜 주고 밭 만들기에 매달리기 꼬박 두 달여 만에 드디어 밭이 모습을 드러냈다. 깔끔히 이발한 땅이 밭이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자 벅찬 감격이 몰려왔다. 우리 부부는 골짜기 떠나갈 듯 환호성을 지르며 하이파이브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른다. 내 땅은 아니지만, 우리 밭이다. 호미 하나로 일궈 낸 경작지였다. 사람이 마음먹으면 못 할 일이 없다던가! 마을을 향해 '야호' 소리를 질렀다. 메아리가 돌아오든 말든 상관없었다. "여기에 당신 심고 싶은 거 다 심어" 큰소리치던 남편과 뭘 심을까? 머리 맞대고 낄낄거리던 날들의 설렘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으랴!

동네 분의 도움으로 포크레인 불러 흙을 뒤집고 두둑을 세워 고추 모를 정식 한 후, 우린 마을 어르신들을 저수지로 모셨다. 덕상리 저수지는 우리 밭에서 거리가 좀 있었지만, 진입로이고 너른 곳에서 밭쪽을 향해 고사를 지내기 위해서였다. 돼지머리 삶아 놓고 밭을 둘러본 마을 분들이 놀라워했다. 이토록 깔끔하게 해 낼 줄 몰랐다고. 밭을 소개해 주신 분조차 과연 해낼까? 중도에 포기하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 칭찬을 들으니 으쓱해졌다. 두 달간의 노고가 싹 풀리는 것 같았다. 이제 아무도 손 못 대는 우리만의 밭이라고 우쭐해져서 남편은 어르신들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재롱을 떨었다. 그가 부르는 노랫말 속 춘향이 같은 저수지의 수련이 숫처녀처럼 고개를 들던 따뜻한 5월, 우리는 그렇게 지신과 산신께 제를 올리고 여름 내내 수련꽃송이 헤아리며 지금까지도 일상의 절

반을 그곳에서 보내는 중이다.

여성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11년째 농사를 짓고 있으나 농지 아닌 임야이다. 계약서도 없다. 동네 분이 중간에 낀 구두 약속이기에 우리도 토지 사용료 대신 밭 위에 있는 산소 10구를 벌초만 해준다. 어디에도 우리가 농사한다는 서류상의 증거가 없는 것이다. 그저 우직스럽게 내 할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옥토로 가꿔 놓으니 예기치 못한 불청객도 늘었다. 농사 두 번째 해에 옥수수밭을 초토화했던 멧돼지뿐 아니라 노랗게 익은 참외만 노리는 너구리 때문에 참외 농사 2년 동안 참외 구경을 못 했다. 성장기의 가지만 파먹는 들쥐, 고구마 잎 전용객 고라니, 어디 그뿐인가 붉은 고추 한 두 둑을 우리보다 먼저 따 간 밤손님은 작두콩과 끝물 청양풋고추를 싹쓸이 한 적도 있다. 밭 가에 취나물과 부추를 심어도 캐가고, 어느 해에는 적하수오를 심었는데 성장도 하기 전에 전부 캐갔다. 구덩이만 남았던 하수오밭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동네 분들은 외진 밭의 특성상 약초꾼들이 몰릴 수밖에 없다며 CCTV를 설치하라지만 그 산밭에 전기 끌어오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남편은 옛날에도 〈서리〉라는 게 있었다며 기부 한 셈 치자고 한다. 밭을 지키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으니 말이다.

자연재해도 만만치 않았다. 2012년 6월에 때아닌 우박으로 고추나무가 전부 반쪽이 되었고, 국지성호우로 하룻밤 동안 마을에 물 폭탄이 터졌던 해(2013년)는 온 마을의 논과 밭이 흙탕물에 잠겼다. 그해 농사는 어느 집이나 흉년이어서 이집 저집 한숨이 끊이지 않았었다. 강원도는 다른 지역보다 추워 거의 모든 작물이 1모작이다. 5월에 심어 10월에 거둬

들이면 끝이었다. 딱 한 번뿐인 기회를 잃으면 그해 겨울은 더욱 혹독해지는 것이었다. 그 물 폭탄으로 인해 저수지 위쪽인 우리 밭은 개울물의 범람으로 둑이 무너져 땅이 백여 평 정도 소실됐다. 그때 약해진 둑은 나날이 유실돼 밭은 점점 작아지는 중이다. 그날 밭둑에 쌓아 뒀던 퇴비와 비료가 저수지 한가운데 처박혀 몇 달 후에 빈 포대만 둥둥 떠오른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

자연재해를 겪으며 나는 진정한 농부가 되려면 하늘과 타협할 줄 알아야 함을 배운다. 산짐승과 나누어 먹을 줄 아는 너그러움도 베풀어야 하고, 내 것에 손을 대는 사람들에게 인내하는 법 또한 터득하는 중이다. 남편 말대로 이 땅을 우리에게 양보해준 이웃이 없었으면 그들이 가져가고도 남은 양식 또한 없었을 것이고, 우리 농작물에 손댈 정도로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저수지에 낚시하러 왔다가, 혹은 약초 캐러 왔던 발길에 탐욕을 좀 더 부렸더라도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져가신 않았을 것이다. 다만, 그들도 그들 삶의 어떤 것들을 나누며 사는 분들이길 바란다.

빚만 늘어나는 농사에 매달리다가 굶어 죽겠다며 남편은 귀농 4년째 되는 해에 재취업을 했다. 가난한 국민이 가난한 지역에 와서 비빌 언덕 없이 여전히 가난과 어깨동무하고 있고, 가난한 부모처럼 절대 농사꾼은 안 될 거야 큰소리친 철없던 딸은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은 중년의 농부가 돼 있다.

소실되고 남은 700여 평에 완두를 필두로 자잘한 한 해 먹거리 야채들과 강낭콩. 고추, 들깨를 심어왔다. 콩과 풋고추를 작업해 경매장으로 보내

면 두어 달 생활비는 번다. 꼼지락꼼지락 부지런 떨면 조금 더 수입이 많아지겠지만 그거면 된다고 한다. 욕심 없는 남편은 최저시급을 받으면서도 항상 일터 있는 것에 감사해한다. 착한 것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는 못해도 편하게는 해주는 것 같다. 심심하지 않은 한가로움과 편안한 삶이다.

환갑을 지난 남편이 건강 문제로 직장을 그만두고 작년(2021년) 가을부터 산불 감시원으로 활동한다. 올봄에도 두 달 반의 임무를 완수하고 5월에 농사에 본격 합류했다. 몇 년을 주중 나 홀로 농부이다가 함께 일하니 그렇게 편하고 좋을 수가 없다. 난청으로 인해 운전을 못 하는 내가 왕복 30분 거리의 밭을 걸어서 오가는 것부터 쉽지 않았다. 더구나 수확한 작물을 싣고 오르막 내리막 비포장 농로를 밀차 밀고 돌아올 땐 젖 먹던 힘까지 짜내야 했다. 그러다가 트럭으로 실어 나르니 세상 편하다. 내가 무거운 것 들지 못하게 세심하게 살피는 남편 역시 직장생활 내내 주말마다 약통 메고 일하느라 쉬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었다. 온전히 농사일에만 전념하는 요 몇 달이 얼씨구 지화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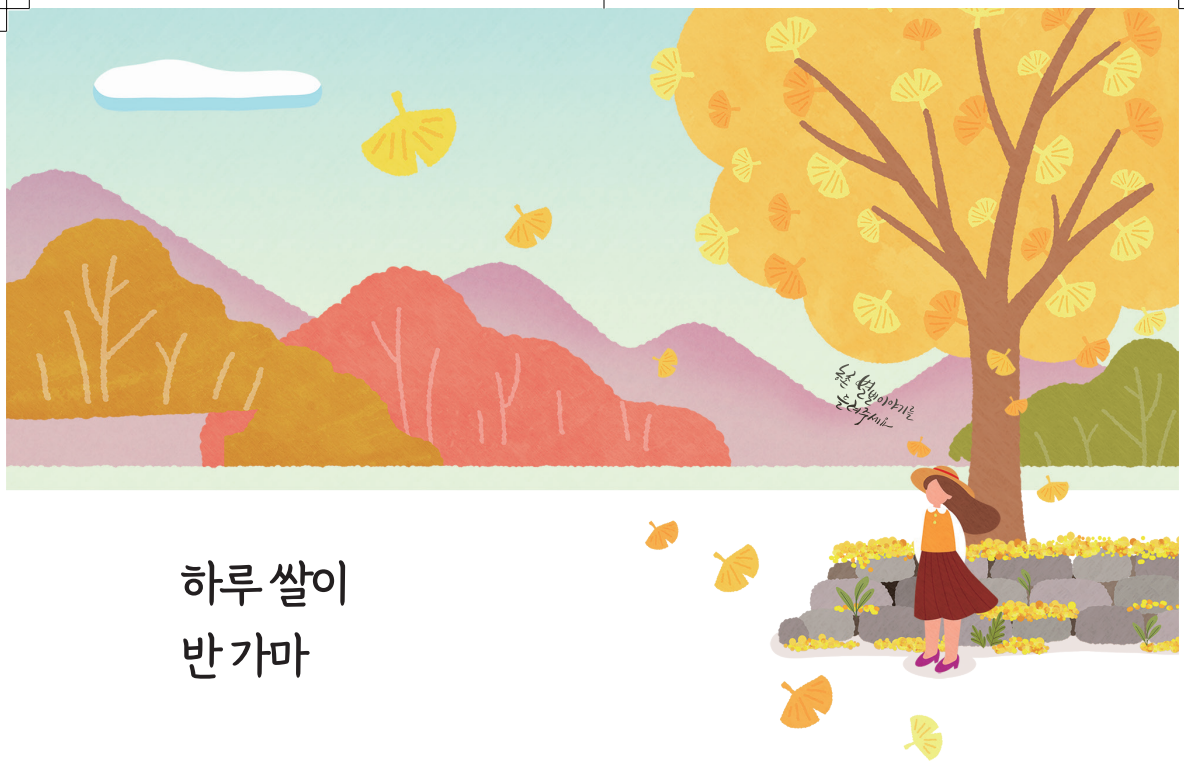
여느 해와 다름없이 밭마다 각종 채소가 자라고 있다. 막 싹 튼 것도 있으나 수확기에 든 것이 대부분이다. 너도나도 고추를 따느라 오가다 만난 마을 분들은 "고추 많이 땄어요?"가 인사다. 11년 차 농부이며 1년 차 여성농민도 홍고추 수확이 한창이다. 전날 딴 홍고추 중 잘생긴 애들만 골라 농협을 통해 서울의 강서시장으로 보낸다. 내 이름으로 나간 고추를 사서 말리고 한 해 먹을 김장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기에 하나하나 정성들여 닦아 박스에 담아 보낸다. 하나같이 비단처럼 곱고 두툼하니 탐스럽다.

고추산지인 영월의 8월은 밭마다 붉은 치마, 초록 셔츠가 춤을 춘다.

어린이집 교사일 때는 어디를 가면 어린이집 건물만 보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농작물을 보인다. 어떤 땅에 무슨 채소가 자라는지 둘러보게 된다. 어디를 가나 나 좀 봐 달라고 붉어지는 홍고추의 자태에 미소가 절로 흐른다. 남의 밭이라도 병간 것은 속상하고 반짝반짝하는 홍초를 만나면 달려가 따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 초보 농군으로 동네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짓던 농사의 노하우를 이제는 신참들에게 전수해줄 정도로 나름 요령도 생겼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고 한다. 그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란 뜻임을 모르지는 않지만 몇 년째 계속되는 긴 우기와 폭우로 인한 피해는 농부의 손에서 벗어났다. 〈작은 잣 골〉 개울도 넘쳐 밭이 물에 잠기고 도미노처럼 쓰러졌던 고추나무들은 바이러스와 탄저병에 걸려 농부의 부지런과 상관없이 농학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다. 아무리 약을 쳐도 새까맣게 말라비틀어지는 고추가 늘어만 간다. 농부의 가슴도 병든 고추처럼 새카맣게 타들어 간다.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일 없는 듯 농지로 향한다. 습관처럼,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밤새 작물들이 잘 있었는지, 작물의 안녕을 확인하는 것이다.

작년에 맹지이긴 하나 작은 땅 하나를 샀다. 그 옆의 전 420평을 계약서 쓰고 임대해 농협조합원이 되었고, 여성 농민이 됐다. 남보다 느리지만 아주 천천히 걷고 있다. 국민으로 부끄럽지 않은, 농민으로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부부는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중이다.



하루 쌀이 반 가마

김영미

산등성이가 온통 잔디밭이다. 이렇게 넓디넓은 땅을 매양 놀리는 것이 농부로서는 아까운 생각이 든다. 곡식을 심어 가꾸고 싶다는 마음이 스멀거린다.

모판에 뿌린 벼가 싹을 틔우는 때였다. 골프장에서 일하는 친구로부터 급히 사람을 구한다는 전화에 마음이 쏠려버렸다. 한 달만 있으면 내야 하는 모며 콩이며 때를 맞춰 심어야 할 것이 수십 가지였다. 그런데도 내 마음은 산 위 골프장으로 향했다. 모심기는 이앙기가 할 것이라 일주일에 휴일이 두 번이나 들었으니 그날 거들겠노라 공약을 내세웠다.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남편을 외면한 채 골프장 일

을 시작했다.

남편과 나는 농부다. 벼농사를 짓고 소를 키운다. 둘이 해도 버거울 때가 많다. 특히 하늘이 심술을 부릴 때면 무릎이 꺾일 만큼 힘이 든다. 요즈음 하늘이 많이 이상해서다. 겨울에서 곧 여름으로 넘어가 찜통더위를 만들다가 건너뛴 봄을 찾겠다는 듯이 사월에 서릿발을 세우기도 한다. 식물이 움을 틔울 때는 나 몰라라 하며 한 방울의 비도 주지 않아 애를 태우다 내릴 때는 한꺼번에 쏟아 부어 둑을 터트리기 일쑤다. 가을에는 연일 비를 찔끔찔끔 흘려 걷이를 늦어지게 하는 하늘이 제정신이 아닌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날이 갈수록 점점 증세가 심해지니 문제다. 그래도 절대자에 지는 것이야 자존심 상할 일은 아니다. 계란이 바위에 부딪히면 깨지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지라 체념하며 농사를 지었다.

농번기마다 도로에 넘치는 행락객을 봐도 놀다 가겠거니 하고 말았다. 논에 갈 때면 신호등을 무시하는 자동차로 불편하고 위험해 조금 짜증을 내긴 했다. 논바닥이나 도랑에서 발견되는 골프공의 출처가 궁금하긴 했어도 그건 나와 무관한 일이라 돌멩이와 다를 바 없었다. 말 그대로 저 위 산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내가 어찌 알 것이며 나와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세상은 무던한 농사꾼을 가만두지 않았다. 또 비료대가 올랐다. 세상 모든 물건값이 오르는데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파르게 오른 건 농기계 값이다. 길어야 보름 잠깐 쓰는 기계가 일 년 내내 쓰는 고급자동차 값을 웃돈 지 오래다. 우리 집에는 이런 농기계가 여러 대다. 자랑처럼 늘어놓자면 트랙터가 두 대다. 바퀴 지름이 내 키만 하다. 논

을 갈아엎고 짚을 걷어 들이기까지 필요한 기계들의 모체라 꼭 필요하다. 타작하는 콤바인은 물론이고 올해 바꾼 이앙기도 있다. 벼를 저장하거나 차에 실을 때 필요해 지게차도 구입했다. 농사라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큰 것이야 애저녁에 알고 있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없다. 가을에 갚아야 할 대출금을 생각하면 헛농사 짓는다 싶을 때도 허다하다. 그래도 농사를 지으려면 어쩔 수가 없어 부지런을 떨며 살아내었다.

이만만 하여도 괜찮겠다. 올해는 돈 들어갈 구멍이 줄을 섰다. 축사에 벽이 삭아 펄럭대는데 더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갑자기 어미 소까지 죽자 위기감이 들었다. 손해는 차지하고라도 말 못하는 짐승이 속병이 든 것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죽였다는 자책으로 괴로웠다. 어미젖 대신 고무젖꼭지를 잘 빠는 송아지가 대견하면서도 저걸 키워 어미한테 손해난 걸 보충해야지 하는 맘이 스멀거릴 때는 화가 났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못하는 이런 내가 싫어지면서 그간 살아온 날들이 뒤돌아 보였다. 생명을 키워내는 직업이라 자부했건만 사실 뒤집어보면 죽음으로 내몬 꼴이다. 그렇다고 일이 수월하냐면 그도 아니다. 몸이 아파도 짐승들 끼니는 챙겨야 한다.

논농사는 또 어떤가. 모를 심고 탈곡하는 작업은 뼈를 깎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겨울만 되면 병원 드나들기가 일상이 된 지 오래다. 도시친구가 고급승용차에 집 평수를 불려가는 것이 눈에 보일 때는 속에 화닥증이 난다. 더 답답한 것은 손을 놓으면 당장 살아갈 방법이 막막하다는 것이다. 평생을 일구며 산 터가 좁아 보이고 이유 없는 짜증이 자주 났다.

삶은 너무나 싱싱한 현실로 옥죄는데 아직 심지도 않은 모를 추수하려

니 남은 시간이 아득하였다. 그보다 생명을 키우는 노동을 하고서도 내 손에 떨어질 이익이 작을 것이 뻔해 새삼 서글펐다. 남편은 가을쯤 아무래도 콤바인을 바꾸고 싶은 눈치다. 자꾸 아프다며 투덜대는 것을 고쳐가며 작년 탈곡을 마치긴 했다. 올 추수까지 견뎌줄 것 같지 않다. 또 "억" 소리 나는 돈을 마련해야 한다. 할부금이라도 갚아보자 마음먹고 돈 벌 구멍을 찾는 중이었다. 그런 차에 생긴 일자리였다. 어차피 농사짓던 아줌마라 흙을 만지는 바깥일 그깟 것은 겁이 나지 않았다. 팔팔한 젊은이들도 일자리가 모자란다는데 늦은 나이에 일하게 해준다는 것만으로 감사했다.

직접 본 적은 없어도 텔레비전에서 박세리에서 최경주, 박인비로 이어지는 중계방송을 간간이 보아왔다. 그린에서 시원하게 샷을 날리는 그들은 보는 것만으로도 멋이 있었다. 내가 가꾼 잔디에서 국가대표가 나오고 LPGA에서 우승한다면 알던 모르던 뿌듯하리라. 세계에 나가 국위를 떨칠 선수들을 보조하는 보람 있는 일이라 스스로 뿌듯해하며 일을 시작했다. 그러나 골프장 시스템은 생소했고 모르는 용어투성이였다. 캐디와 네 명의 손님이 팀을 짜 첫 홀에서 구 홀까지 돌면서 공을 친다는 것도 새삼스러울 지경이었다.

아차! 바로 옆에 공이 떨어졌다. 아슬아슬하였다. 움푹 팬 땅을 보니 맞았으면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리라. 골프는 공을 깃발 가까이 떨어뜨려 홀컵 안에 들여보내야 이기는 경기다 보니 너나없이 한 타라도 줄이려 힘껏 날린다. 공을 헤아린다. 깃발 가까이 하나. 둘. 셋. 그린 바깥에 떨어진 것까지 합이 넷이다.

고객들이 바쁘게 다가온다.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세 명. 걸어서 잔디

를 가로지르는 한 명. 그들의 꽁무니에는 벌써 다른 팀이 도착해 대기 중이다. 그린 안으로 들어온 고객들은 신중하게 공을 겨눈다. 홀컵으로 공이 들어가는 소리가 맑다. 아쉬운 탄성과 기쁨의 환호는 언제나 맞대결이다. 고객들은 다음 코스로 이동하고 나는 그린을 나왔다. 곧 대기하던 다음 팀이 치는 공이 날아온다. 네 개를 확인하면 그린으로 나간다. 공을 따라온 고객이 홀컵으로 공을 떨어뜨리기까지가 나의 시간이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빠져야 한다. 말 그대로 고객이 방패다.

"쨍" 소리가 나는 공은 포탄처럼 날아와 "퍽" 하며 잔디에 박힌다. 그렇게 떨어진 공은 여러 번 튐을 튀며 속도를 늦춘다. 공이 닿은 자리마다 잔디는 뭉개진다. 패이고 이겨진 상처를 도려내고 붙여 치료한다. 구멍은 계속 생겨난다. 눈치를 봐가며 한두 개 깁고 피했다가 또 들어가기를 반복하다 보니 옆으로 걷는 게가 된듯하다.

"딱" 둔탁한 쇳소리가 들린다. 소리만으로도 무섭다. 이번 공은 제대로 맞았나 보다. 환호성이 산을 들썩인다. 진행이 빠른 것으로 짐작건대 힘좋은 남자들의 조합이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눈에는 잔디에 뚫린 구멍만이 보인다. 멍이 든 잔디를 덜어내고 이리저리 당겨 짜집기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공을 따라온다. 그들의 생김새며 하는 말들은 나와는 관계없다. 그들은 골프장의 고객이지만 나에게는 방패일 뿐이다. 공을 따라 그들은 움직이고 나는 고객의 꽁무니를 따라 그린으로 들어갔다 빠지기를 거듭한다. 태양이 정수리에 꽂힌다. 덥다. 오월인데도 너무 덥다. 덮어쓴 차양 모자와 마스크, 안전모 속에서 땀이 내를 이뤄 등을 타고 흐른다. 일보다 더위에 지쳐 지레 나자빠지겠다.

본격적인 모심기가 시작되었다. 남편의 얼굴은 금세 새카매졌다. 고된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일은 거들지 못하겠다. 연장근무까지 한 날은 너무 피곤해서 내 밥은커녕 남편 저녁도 못 챙기고 곯아떨어졌다. 둘 다 일을 줄여야 하는 나이인데 더 늘였더니 이건 숫제 고통이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버텼다. 몸 힘든 게 낫지, 마음고생만 할까! 겨울 베짱이 꼴은 나지 말아야지. 남편도 모만 다 심으면 숨을 돌리겠거니 하며 질끈 눈을 감았다.

농부에게는 정해진 휴일이 없다. 누가 쉬라거나 일하라고 닦달하지 않는다.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논농사는 봄가을 한 달씩은 엉덩이를 땅에 붙이고 밥을 먹을 새가 없고 잠도 서너 시간을 이어 자지 못한다. 날이 밝기 전에 물꼬를 살피고 준비를 마쳐야 낮에 모를 심을 수 있다. 그래도 모내기와 추수를 하는 시기를 빼면 다른 날은 짬이 생긴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농부의 삶이 자유롭다고 말하곤 했다. 사실 노동에 대한 합당한 소득이 따른다면 이보다 자율적인 직업이 있을까 싶다.

내리막으로 곤두박질한 쌀값은 오를 기미도 없이 요지부동이다. 올라도 시원찮은 판에 내리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공산품이나 서비스료는 연일 오르는데 쌀은 거꾸로다. 그러다 조금만 오르면 농산물이 무슨 물가 상승에 큰 주범이나 되는 듯이 언론은 떠든다. 마트에 쟁여진 쌀 포대에 카메라를 들이대고 위기감을 유발할 때마다 수입 농산물이 시장을 점령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손해는 고스란히 농민이 감수해야 할 몫이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지 않고도 사는 신선을 닮아 간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걸 보면 무얼 먹고 사는지 궁금해진다. 농지는 자

꾸 좁아지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산한 쌀은 남아돈단다. 그래프까지 그려 보여주며 수치를 말하는데 반박할 말이 없다. 영농교육마다 일차산업인 곡식을 생산하기보다 특용작물을 개발하란다. 6차산업 시스템을 활용하랄 때는 속에서 불뚝 주먹이 쥐어진다. 부지런하다고 다 잘사는 세상은 아닌가 보다. 농부가 농산물 생산에만 전력을 다하는 그런 세상은 요원한 것일까?

맛있는 음식은 행복을 부른다. 행복을 생산하는 농부들은 서럽다. 농민들의 배를 졸라매 쌓은 부가 언제까지 행복할 것인가 묻고 싶다. 더 문제는 날이 갈수록 사라지는 농민들의 자존감이다. 지원금이란 명목으로 농민의 목에 올가미를 채워 끌려 하는 행정에 화가 난다. 그러면서도 사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자존심 따위를 챙길 여유가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상황에 그만 농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긴다.

올해도 어김없이 봄 가뭄이 들었다. 잔디가 목이 마른다는 신호를 보낸다. 갑자기 땅속에서 스프링클러가 쓱 올라왔다. 쫙 뿌려지는 물이 시원한 분수를 연상시켰다. 햇살에 부딪히는 물 알갱이가 만드는 무지개는 색이 선명하다. 순간 텃밭이 떠올랐다. 밭에 심어놓고 돌보지 못한 상추와 고추가 시들어가는 중이었다. 밭뿐 아니라 논도 사정이 다를 바 없다. 우리 논에 모는 거미줄처럼 갈라지는 논바닥에 갇혀 발을 내리지 못하고 타들어 가는 중이다. 남편 혼자서는 모를 심는 것만으로도 벅차 물싸움까지 할 여력이 없는 것 같았다. 며칠 새 남편의 볼은 저수지보다 더 움푹 패야 버렸다. 그렇지만 그런 남편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다.

멀리서 공이 날아온다. 하필 내가 피한 나무에 와 맞았다. 맞은 데 또

맞은 나무는 껍질이 까져 허연 맨살이 드러났다. 여차하면 나도 저리될 뻔했다. 고객이 사과한다.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날아갔다며 다치지 않았나 묻는다. 걱정하는 한마디 말에 꽈배기 같아지려던 마음이 풀린다.

가족 팀을 보는 건 즐겁다. 엄마 아버지와 아들딸이 어울린 조합은 연신 화기애애하다. 경제적 여유에 취미까지 같다는 게 참 좋아 보인다. 형제자매가 묶인 팀은 은근히 긴장감이 돈다. 잘 치라는 덕담 속에 살짝 스민 우월감이 보인다. 친구끼리 왔다면 야살스럽다. 공을 치는 것인지 농담을 치는 것인지 모를 만큼 떠들썩해 나무에 앉았던 까치가 도망을 간다. 성패를 가르는 경기일 때는 날이 섰다. 옆에서 조금만 소리를 내어도 이마를 찡그리고 세모눈을 뜬다. 이런 때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게 상책이다. 간혹 안면이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다. 얼굴을 가렸으니 알아볼 리는 없어도 고개를 푹 숙이고 피한다. 도둑질이나 못된 짓을 하다 들킨 것도 아닌데 말이다.

떨어지는 공만 위험한 것은 아니다. 구르는 공의 위력 또한 그에 만만치 않다. 날아오는 공을 보면 어디쯤 떨어지겠다는 감이 잡히던 어느 날, 자만심이 화를 불렀다. 저만치에 떨어지는 공을 보고 그린 속으로 발을 내디뎠다. 툭툭 잔 구르기로 속도를 줄이던 공이 방향을 틀어 복사뼈를 맞추었다. 늦춰진 속도였기 망정이지 큰 상처를 입을 뻔했다. 공에 맞은 발목은 금세 부어올랐다. 병원에 갈 만큼은 아닌 듯 해 참았다. 무엇보다 창피했다. 다친 발목은 퍼렇게 멍이 들어 체중이 실릴 때마다 욱신거리더니 절뚝거려졌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걱정하는 소리야 당연지사지만 힘든 사람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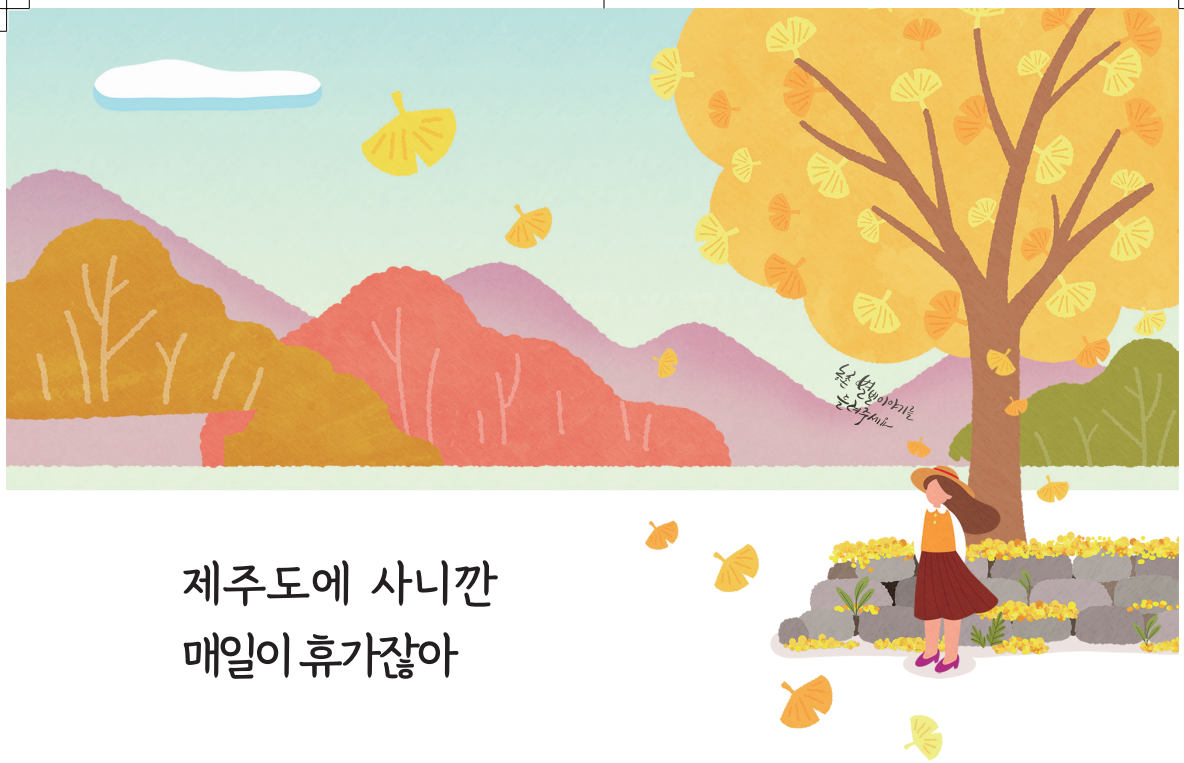
이즈음 남편과는 한집에 살 뿐 견우와 직녀 같은 처지였다. 아픈 발목만큼이나 마음이 삐걱댔다. 그만둘까?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린다. 하루 쌀이 반 가마인데 이틀이면 온전히 한 가마다. 한 달이면 쌀이 열 가마가 넘는다. 일 년 수입이 백석지기가 된다. 밑천 없이 여자 몸으로 백석을 번다는 건 결코 작은 벌이가 아니다. 그래 참자. 참아보자.

또 공이 날아온다. 한 팀은 네 명씩이다. 팀당 쌀을 두 가마가량 내어야 한단다. 작금 우리나라 사람은 일 년에 쌀 반 가마를 먹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일 년 치 양식을 두세 시간 만에 날리는 거네. 저 고객들이 내는 쌀에서 내 품은 얼마만 한 비중일까? 한 되? 설마 한 홉은 아니겠지?

석양을 등지고 모를 심는 남편이 보인다. 혼자 하려니 늦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대충하면 될 것을, 우직하고 꾀 없기는 전국 제일이다. 그런데 남편은 오늘 몇 가마의 쌀을 심었을까? 나는 날마다 꼬박꼬박 반 가마씩을 쟁이는데….

다친 발목은 쉬이 낫지 않았다. 결국 석 달을 넘기지 못하고 골프장 일을 그만두었다. 그래서 나는 부자는 되지 못했다.



제주도에 사니깐 매일이 휴가잖아

김예지
〈다문화여성〉

"제주도에 사니깐 매일이 휴가잖아?"

남편이 그랬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곳은 유배지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도망도 못 가게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자그마한 땅에서 툴툴거려대 봤자 나만 손해다.

춥기는 또 얼마나 추운가. 태평양을 지나온 매서운 바람이 대차게 불어온다. 눈이 펑펑 오는 날에도 귤을 탄다('따다'의 제주도식 표현). 마른 감귤 가지를 모아다가 불을 쬐어 손가락 녹이며 가위질해댄다. 초록 나뭇잎 아래로 포도같이 귤이 주렁주렁 열려있다. 귤은 가위질을 두 번 해야 따진다. 가지에서 한번 싹둑, 귤 상처 안 나게 바짝 한 번 더 싹둑, 열 명 넘는

사람들이 '똑, 또독'하고 가위질하면 그 소리가 경쾌한 리듬이 된다. 돈 벌리는 소리다. 이따금 허리를 쭈욱 펴고 멀리 내다보면 푸르른 애월 앞바다가 펼쳐져 있다. 남편은 그 짠물이 그 짠물이라고 눈길 한번 주지 않지만 내 눈엔 반짝이는 바다가 눈이 부시다

제주 왕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는 집 가까운 장전에서 벚꽃 축제를 한다. 전정, 풀베기로 바쁜 철에 농민 봉기할 뻔했다. 귤나무 전정 뒤처리에 일손이 아쉬운 때에 꽃구경이라니 눈 밑이 파르르 떨린다. 여름엔 모기 뜯기며 적과를 한다. 휴가철이라고 10분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린다. '부위 윙~' 거대한 소리를 내며 깔아보는 관광객들이 눈꼴시어 볼 수가 없다.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다. 여름휴가, 주말, 꽃구경, 공휴일, 이렇게 당연한 것들이 농부에겐 없었다. 그저 해가 있으면 집 밖에 일이 있었다. 해가 넘어갈 때면 감귤나무에 달린 귤이 노란 귤인지 초록 귤인지 그 색이 분간이 안 된다. 그제야 일을 마치고 집에 간다. 그나마도 주문받은 귤 택배 물량을 다 채우지 못하면 머리에 랜턴을 끼고 비춰가며 따야 했다. 귤이라면 이젠 꼴도 보기 싫어진다. 체험비 내고 5분 딸 때가, 인증샷 찍어대던 시절이 아득하다.

어느 해 겨울 여권이 만료되어 제주도에 갔다. 해외에서 통·번역일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 들어간 김에, 새롭게 여권도 만들고 혼자 여행도 해볼 참이었다. 1월이었지만 한여름 같던 함덕의 바닷가, 조용하고 한가로운 농촌 마을에 나는 확실히 취해버렸다. 이국적인 야자수와 터키석 같은 파도와 모래가 펼쳐져 있었다.

애월읍의 감귤체험농장엘 갔다. 초록 바구니와 빨간 채과가위가 쥐어졌고, 생각보다 빠르게 바구니를 채웠다. 귤은 따는 둥 마는 둥 하고 사진을 열심히 찍었던 기억이 난다. 귤 창고에 들어가니 노총각 농부가 장작불에 구운 따끈한 귤을 권했다. 5분 남짓 수확 체험을 하고 콘테나를 의자 삼아 앉아 1시간이 넘게 대화를 이어갔다. 창고 입구 안쪽에 결연한 글씨체로 쓴 글귀가 있었다.

"명마는 하루에 천 리를 가고 우둔한 말도 쉬지 않고 열흘을 걸으면 능히 천 리를 간다. 부지런한 농부는 큰물이라거나 가뭄이라고 해서 밭 가는 것을 쉬지 않는다."

속으로 멋지다고 생각했다. 부지런한 농부인가? 물었는데 대답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걸 보니 웃어넘긴 거 같다. 그 후, 3개월 만에 그 사람과 결혼했다. 알딸딸하였다.

농촌에 시집을 왔다. 일하고 밥을 해 먹고 하루하루가 열심히 지나갔다. 감귤수확철인 겨울이 되면 고냉이(고양이 제주방언) 손이라도 빌어야 할 만큼 일이 많았다. 노지에 감귤 농사가 5,000평이었다. 오래도록 사무직으로 일해서였을까? 볕 아래서 흙을 만지는 게 즐거웠다.

청귤이 살 오르는 8월에는 비가 자주 온다. 귤잎에 꿀물이라도 발라놓은 듯 그 태가 예쁘기도 하다. 눈이 즐겁고 마음이 가벼운 귤 농사였다.

10월 뼁 뚫린 늦가을 하늘 아래서 극조생 감귤을 따고 있으면 기분 좋게 땀이 배어왔다. 극조생 귤이 끝나면 조생귤 수확이 시작된다. 12월 한겨울 깜깜한 새벽에 어묵을 가득 넣고 놉(인부)들 아침 간식을 끓인다. 보글보글 맛있는 냄새가 가득하고 부엌 창엔 김이 가득 찬다. 그럼 사발과

국자, 뜨거운 냄비를 바구니에 지어 간다.

삼춘들이 둥그렇게 앉아있다. "안녕하세요" 내가 인사하니 "짜이, 인사도 잘 햄 쪄! 외국서 온 아이 아니라?" 깔깔깔 웃음소리가 가득해진다. 까무잡잡하니, 필리핀에서 온 색시인줄 알았다고 했다. 결혼하고 3년이 지나서도 "아이고, 한국말 잘한다" 하고 칭찬받았다.

농촌에 시집오니 한국말만 잘해도 칭찬받는다. 귤 농사를 하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일까? 전정? 한여름에 약 치기? 적과? 모두 아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귤의 판매처를 안정화하고 현금화시키는 것이다. 귤을 팔아야 먹고 살 수 있다.

농산물이라는 것이 바다에서 건져 올린 회 마냥 그날그날 시가가 정해진다. 품질은 비슷한데 제값 받고 팔기가 어렵다. 요즘은 10킬로 박스로는 양이 많아서 판매가 잘 안된다. 수입과일, 다양한 주거형태로 인해 소량구매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박스값, 택배비는 고정이라 변동이 없으니 유통마진을 아끼려면 농사꾼이 가격을 책정하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 지인소개나 SNS 홍보 등으로 직거래해야 농부가 원하는 값에 팔 수 있다.

여름에는 겨울에 상품 가치가 적은 귤로 주스를 짜서 저장해두었다가 판다. 감귤주스는 풋귤 수확시기 전에 아이들 여름방학과 휴가철에 많이 나간다. 일 년 내내 수입을 만드는 것은 농사짓는 사람에게 참 쉽지 않은 과제이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정지출이 있으니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기 위해 여러모로 고생해서 7년 만에 이제는 제법 알음알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떤 걸 먹느냐도 어려운 일이었다. 생일날 남편에게 "파스타가 먹고 싶다. 라자냐나 스파게티 같은 거 먹자" 졸랐다. 파스타가 뭐냐 묻기에 외국 국수라고 알려주었다. 남편이 차를 태워 '왕서방'에 데려갔다. 자기가 아는 국숫집이란다.

나중에야 남편을 데리고 스파게티도 먹고 햄버거도 먹으러 갔다. 뭐든 맛있다고 잘 먹는 남편인데 "도무지, 안 익은 국수에, 다 식은 고기를 빵에 끼워 먹는 게 무슨 맛이냐?"라며 불만을 쏟아냈다. 또 언젠가 남편이 시댁에서 늙은호박 두툼하게 썰어 넣은 갈칫국이 베지근하다며 맛있게 먹었다. 나는 그 옆에서 "비늘 떠 있는 하얀 생선국을 무슨 맛으로 먹어?" 하고 한 숟갈도 넘기질 못했다. 결혼 7년 차지만 아직도 못 먹는다.

메밀가루를 풀고 톳을 넣은 구수한 몸국, 갈치와 늙은 호박, 배추를 넣고 맑게 끓인 갈칫국, 자리회를 된장에 무쳐 송키(채소의 제주방언)와 먹는 자리물회. 누구라도 좋아할 제주 음식이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먼 당신이다. 회라면 초장이요, 생선은 얼큰하게 끓여야 제맛 아닌가? 쭉 뻗은 곽지바다 수평선처럼 서로가 만나질 못하던 우리 부부의 식단에 조금씩 파도치는 일이 생겼다

농업기술센터에 '제주음식연구회'라는 곳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모여 제철 음식과 제주 전통 레시피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는다. 자리물회는 못 먹지만 자리돔을 간장과 고춧가루로 양념장을 만들어 뭉근한 불로 오래 조려 먹으면 달짝지근하면서 비릿한 게 별미다. 고사리를 나물로 먹으면 무슨 맛이냐? 하겠지만 고사리 육개장을 끓여 먹으면 뜨끈하고 깊은 맛이 고깃국보다 좋다. 역시 아는 만큼 즐기게 된다.

환영합니다~!!

결혼하고 그 다음 해 아이가 생겼다. 막달에 귤을 따며 부푼 몸으로 콘테나며 광주리를 날랐다. 다 그렇게 하는 거라며 어른들이 말했다. 배 속 아이가 골반으로 내려와 잘 서지 못하니 아래쪽 달린 귤들을 콘테나에 앉아 따 내렸다. 어기적어기적 무릎으로 더듬더듬 귤을 땄다.

2016년 11월 13일. 유난히 피곤하던 저녁 밤, 앉았다 일어나는 찰나에 파수가 되었다. 울컥하며 양수가 쏟아져 내렸다. 가까운 병원이 없어 애월읍에서 제주시까지 차를 타고 산부인과에 갔다. 아이가 잘 있나 확인하려고 초음파를 보는데 "오늘 분만 준비하세요. 아이 나와요" 했다.

예정일보다 한 달 일찍, 응급으로 아이를 낳았다. 예정에 없던 분만이라 무통 주사도 없었고 눈에서는 피가 터졌다. 첫 아이는 2.6킬로 작은 몸으로 일찍 태어났다. 남편이 눈시울 붉어진 채 수고했다고 했다.

농촌에서 수확기에 아이를 낳으면 난감하다. 남편은 해 뜨기 전에 나가서 늦게나 집에 들어왔다. 몸 푼 딸래미 챙기러 온 친정엄마도 곧장 농장으로 출근해 귤을 탄다. 첫애라서 잠도 못 자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자연분만으로 몸은 아프고 돌봐주는 사람은 없고. 결국 입원했다. 자궁수축이 안 돼 하혈을 했다. 체온이 다 식어가는 듯 추웠다. 제 아이를 낳으면 예쁘다더니, 다 거짓말이었다. 태어나 이렇게 아플 수도 있다고 했다. 몸도 마음도 추운 겨울이었다.

아꼬운 강치비 딸(어여쁜 강씨 집안 딸) 5살, 3살 둘에다, 귤농사 5000평, 닥치는 대로 일하다 보니 내 몸에서 이상신호가 왔다.

갑자기 숨이 쉬어지지 않고 눈물이 나는 날이 많아졌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보내고 일하다 보면 자꾸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겼다. 바

쁘니깐 건망증이 심해지는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다. 더워도 에어컨을 켤 수 없었다. 문이 닫힌 공간에서 숨쉬기가 어려웠다. 장을 보러 가면 지갑이 없고, 아이들 어린이집 등원가방에 준비물을 준비 못하는 날이 많아졌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 마트 앞에서 엉엉 울던 내 모습이. 지갑을 몇 번 잃어버리고 겨우 찾은 그날, 오랜만에 시장을 보러 나갔다. 또 지갑이 없었다. 자꾸 까먹으니 목줄까지 달아 손에 꼭 쥐고 왔는데 "어디 있는 거지?" 무서울 정도로 까만 머릿속에서 나는 길을 잃고 어린아이처럼 허망했다. 멍하니 울다가 병원에 전화했다. "지금 가서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저것 설문지를 작성하고, 의사랑 길지 않은 대화를 했다. 나는 육아 우울증이었다. 전혀 다른 생활공간에서 최소한의 교류도 없이 닥치는 대로 농사와 육아를 하다 보니 우울증이 왔다.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서 가슴이 답답하여 숨쉬기가 어렵고, 기억력이 나빠졌다. 일상생활이 안 될 정도로 무기력했다.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남편과 부부 상담을 시작했다. 친정 식구들이 한 달에 한 번 제주도로 왔다. 엄마랑 동생이 번갈아 와주었다.

맛있는 집밥도 얻어먹고,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었다. 일이 아니라 운동도 시작했다. 저녁 8시에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시내로 나와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고 10시 전에 들어갔다. 온 가족이, 남편이, 아이들이 도와주고 나도 열심히 노력해서 1년도 안 되어 완치판정을 받았다. 병원에서 더 이상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듣고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난다.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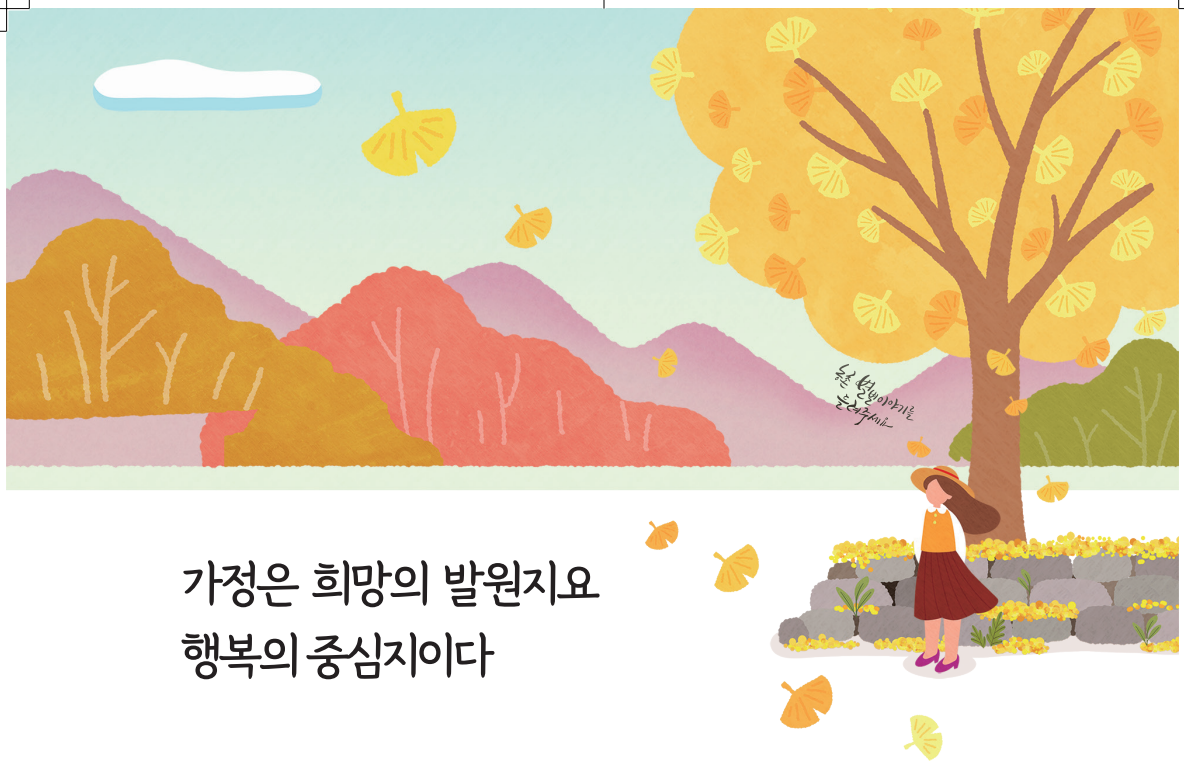
원 1층 카페에 들어가 시원한 레모네이드에 아몬드 브레첼을 먹었는데 그간의 체증이 쭉 내려가는 듯했다.

우울증의 그림자가 가시기도 전에 현실이 닥쳐왔다. 육아의 강도는 깊어지고 농사일을 끝이 없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챙겨야 할 것도 많아졌다. 특히 주말에 더 힘이 들었다. 코로나로 전국이 얼어붙어 있었다.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만 있긴 너무 답답했다. 다시 우울증이 재발하게 둘 수는 없었다.

근처 애월읍에 여성농어업인센터에 '농번기 아이돌봄방'이 있다고 동서가 말해주었다. 전화로 문의해보니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희망재단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2살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돌보아 준다는 것이었다. 속으로 "살았다!"를 외쳤다. 토요일만 보내보기로 했다. 아이들에게 영어 한 타임 가르쳐보는 시간도 생겼다. 유초등부 아이들과 딸래미들이 센터에서 웃으면서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른다. 숨이 트였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중략)… 낑깡밭 일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가꿔봐요~"

노랫말이 있다. 나의 이야기다.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있고, 도시의 침묵이 없는 이곳에서 나는 감귤밭을 가꾸며 살아간다. 제주도 푸르매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과 남편과 푸른 밤 별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오늘도 노력한다. 아이들은 힘이 되고 남편은 중심이 되어준다. 언젠간 매일이 휴가 같은 날이 오리라.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이다

방금숙
〈다문화여성〉

2019년 4월 5일. 여느 때와 다름없는 아침이다. 내가 깰세라, 남편이 살며시 일어나 앉더니 습관처럼 스트레칭을 한다. 10여 분 그리하더니 주섬주섬 옷을 입고 조용히 문을 닫는 남편의 기척을 느끼면서 오늘 할 일들을 머리에 그렸다. 사춘기가 오는지 말이 없어진 아들에게 무슨 말을 붙여볼까, 밭에 들어가기 전에 어머님 집에 들러봐야지, 잡초들이 나의 감귤밭 침입은 어림도 없다!

오후 3시쯤 남편과 귤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시동생이 일하는 공장에서 전화가 왔다. 시동생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남편은 다급히 시동생 공장으로 출발했다. 커튼 공장을 운영하는 시동생은 창업할 때의 대출금도

다 갚고 이제부터는 살만하다 싶었는데, 작년에 그만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혼자서 고생하더니 이제는 사업이 안정적이어서 관리만 잘하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점심까지 맛있게 드시고 일하던 중 갑자기 기침하면서 쓰러졌다는 기별이 온 것이다. 아들이 암에 걸린 걸 아시면 걱정하시느라 혹시나 건강 상하실까 봐 어머니께는 시동생의 건강 상태를 비밀로 했었기에 어머니는 "게므로(아무리 그래도) 젊은 것이 일어나지 못하느냐" 혀만 차셨다. 어머니와 함께 나도 시동생이 속히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길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우리들의 바람은 하늘에 통하지 못하고 끝내 한번을 깨어나지 못한 채 이튿날 밤 10시에 저 세상으로 갔다.

어머니는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을, 남편에게는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동생을, 나에게도 집안의 대소사를 의존하던 크나큰 산 같은 시동생을 잃어 온 집안이 비통 그 자체였다. 괸당(친척)들과 손아래 시누들이 함께 장례를 준비하면서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기만 하였다. 살아 있을 때 혼사를 더 적극적으로 추진시키고 반찬도 한 번이라도 더 해드렸더라면 이토록 마음 아프지 않고 좀 더 편히 보내드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만 반복할 뿐이었다. 받은 것만 생각나고 해준 것이 없음에 죄송하여 하늘나라 가서는 아프지 말고 편하게 사시라고 정성을 다해 기원하며 보내드렸다.

장례를 마치고 다음 날부터 남편은 동생 사망신고, 공장관련 일, 뒤처진 농사일을 처리해 갔다. 힘들어서 무거운 몸이지만 일찍 일어난 남편을 배웅하면서 느끼는 아침의 시원한 공기를 이제 그분은 느낄 수 없겠다

는 생각에 코끝이 찡해지면서 눈물이 고였다. 어머니는 당신 아들 오면 밥 부족할까 봐 항상 새 밥 짓느라 묵은 밥 드시기가 일쑤였던 밥솥을 안고 우셨다. 그야말로 눈물이 마를 날 없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2019년 6월 28일. 오늘도 부지런히 귤나무의 꽃과 순들을 정리해보자고 마음먹고 집을 나서려는데, 둘째 시누이가 잠을 자다가 돌연사 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영문도 모른 채 달려간 남편과 내가 받은 소식은 간 괴사로 인한 돌연사. 초등학교 교사인 둘째 시누이는 직장을 다니랴 주말에는 자폐증인 13세 아들을 데리고 재활치료 다니랴 너무 바쁜 일상에 간이 지쳐 버렸나 보다. 힘든 기색 한번 없이 늘 씩씩하게 잘 살아 주어서 나에게는 멋진 귀감이 되는 시누이었다.

불행은 혼자서 오지 않는다더니 시동생의 일 처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마음이 채 안정도 되기 전에 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 기막힌 부고를 어머님께 또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다음날 입관식 하기 전까지 우리는 함구할 수밖에 없었다. 다리가 천근만근이라는 말은 있어도 입이 천근만근 일 줄은 살면서 처음 느꼈다. 그러나 절차가 절차인 만큼 더는 미룰 수가 없어서 어머니 손을 잡고 입을 떼려는데, 그만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누가 죽었냐? 혹시 중국 어머니 돌아가신 게냐? 아이고 어쩌면 좋으냐 얼른 친정에 다녀오너라" 하시며 오히려 나를 위로하시는 것이었다. 그렇게 어이없고 허무하게 시누이도 보내 드렸다.

2019년 8월 25일. 이런 일들을 겪고 난 후에 나에게는 새로운 습관이 하나 생겼다. 자다가도 문득 일어나서 남편의 가슴에 귀를 대 보고 아들

의 코에 손을 대고 숨 쉬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습관. 내가 덕이 없어 이런 일이 생기나 싶어 자책하는 마음이 들면서 사람들도 만나기 싫어졌다. 견디기 힘든 슬픔 속에서 어머니는 식음을 전폐하셨고, 남편은 변씨 가문에 장손이라는 책임감과 부담 때문에 올해 최고의 무더위 속에서도 매일 하우스 안에서 묵묵히 일만 했다. 남편 얼굴과 몸은 땀범벅, 쉰내만 나는 마치 짐승 같았다.

어쩌다 한 번씩 마음을 토해내는 남편은 동생들과 더 살갑게 지내지 못한 죄책감을 드러냈고 늘 불면증에 시달렸다. 듬직하기는 하지만 무뚝뚝한 남편은 더 말이 없어졌고, 그 옆을 지키는 나 역시 기운을 차릴 여지가 전혀 없었다. 초상난 집이라더니 집안 분위기가 딱 그랬다. 아침이면 겨우 몸을 일으켰고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계획하던 생각들은 모두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원래 남에게 내 이야기하기 싫어하는 성격이지만 가슴이 너무 무거워서 곧 땅으로 꺼져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도 모르게 어머님이 다니시는 동네 보건진료소를 찾아갔다. 늘 내게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해주면서 좋은 이웃이자 상담 소장님이 되어주는 진료소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가 우리 가족의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이야기를 소리 내 뱉어 보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조금은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꼈다. 아프고 힘이 들면 밖으로 소문내라는 말이 맞는 거구나 싶었다.

2019년 10월 5일. 오랜만에 비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귤밭 비닐하우스를 돌아보다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에 귀가 열렸다. “아~시원하다. 시원하다” 나도 모르게 남편을 보면서 웃어 주었다. 4월 이후로 한 번

도 편안한 마음으로 남편 얼굴을 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웃으면서 남편과 눈을 마주치자 남편 입가가 어색하게 떨렸다. 어디선가 이런 글을 본 기억이 났다. '가정은 희망의 발원지요, 행복의 중심지'라는 말. 우리 가정을 위해선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중심을 잡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식사를 마다하시는 어머니께 꿀에다 계란을 풀어 억지로라도 마시게 하고 어머니가 계셔야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또 드렸다. 남편에게는 불면증에 좋은 대추차, 체리, 따뜻한 우유를 챙겨 주었다. 수면을 유도할 수 있도록 얼른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좀 더 행복해지자고 찾아온 땅 한국에서 남편이 내 생일을 안 챙겨준다고 투정하고 뱀과 지렁이가 무서워서 장롱이나 이불속을 들춰보아야만 마음을 놓던 며느리로 머물 수는 없었다. 더는.

보호받고 호강해 보려고 찾아온 이 땅에 이제는 내가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내 자리매김할 때가 된 것이다. 작년에 5학년 아들이 제주도 국제마라톤 완주를 했을 때처럼. 길고 긴 마라톤처럼 내 아들이 자신의 인생을 꾸준히 잘 살아주기를 바랐던 것처럼, 나도 내 인생의 마라톤을 달려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올해 우리 가족에게는 비통한 일들이 많았지만, 아직도 내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나를 걱정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다. 슬픔으로 인해서 잠시 걸음을 접었던 애월농협 다문화여성대학에서도 내게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면서 내가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년간 준비하고 정성을 기울인 감귤 수확이 코앞에 놓여있지 않은가.

2019년 11월 7일. “일억원이야, 일억원” 귤색이 짙어지면서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보시는 마을 어르신이 농사를 잘해서 수익이 잘 나겠다며 즐거운 농담을 던져 놓고 가셨다. 지난봄부터 여름, 가을. 우리 부부의 깊은 슬픔을 달래주던 감귤 나무들 이어서일까? 5년간 공들여 키운 그 소중한 결실인 귤나무들이 이제 우리 마음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고 있다. 내가 마음을 고쳐먹고 어머니와 남편의 수발을 정성껏 들이자 나의 진심이 마음에 와닿았는지 어머니와 남편은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슬픔은 잠깐잠깐 가슴속에 묻어 둔 눈치이다. 저녁에 어머니께서는 일하는 며느리가 고맙다며 콩국을 끓여 주셨다. 오랜만에 맛보는 어머니의 콩국으로 입맛이 살아났다.

요즘은 식구들이 살아 숨 쉬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감사해하며 살고 있다. 어머니에겐 당신 자식들이 못다 한 효도를 내가 하리라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남편에게는 우리한테 주어진 일생을 절망 대신 희망을 품고 열심히 살자고 말했다. 미약한 힘이나마 열심히 보태며 살 테니 다시 힘을 내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동안 남편과 어머니, 이웃들이 내가 머나먼 중국을 떠나 이곳 제2의 고향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었던 친절과 배려들.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들에게 되돌려드릴 차례가 된 것이다. 맛있는 과일을 먹기 위해서 줄을 서서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들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주위 사람들을 도와 드릴 수 있는 차례가 되었음에 그저 감사한 마음이다.

오늘도, 마을 마음

이겨레

가을 인사-한가로운 가을날, 고구마밭에서 고구마를 캐는데 어르신들이 지나갔다. 내가 사는 손곡리는 평균 나이가 일흔을 훌쩍 넘는다. 오십여 가구 중에 60대를 찾기도 어려운 이유다. 나는 이제 막 서른을 넘겨 남편과 이곳으로 왔다. 어르신이 지나갈 적에 나는 입술을 뗐다 붙이기를 반복하며, 인사를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고민의 찰나를 겪었다. 그러다 결국 힘차게 "안녕하세요!"를 외치고는 했다. 동네 어르신들은 인사만 드려도 하하 호호 얼굴색에 웃음이 돌았다. 인사만 주고받아도 얼굴에 웃음이 도는 사이. 평균 나이 일흔이 넘는 이 마을과 나는 그런 사이다.

"고구마가 아주 잘됐네?"

어르신이 물어보면 나는 벌떡 일어나 고구마를 한참 자랑하기 바빴다. 한 마디를 걸어주셨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기로 했다.

"어르신은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다 말씀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다 해볼게요!"

그도 그럴게, 동네에는 그 흔한 편의점 하나 없다. 장을 보려면 면까지 나가야 하는데, 차로 십여 분이 걸린다. 차가 없는 나나, 고령이라 운전을 할 수 없는 어르신들의 처지는 매한가지로 같았다.

"우리가 뭘 하든, 젊은 사람이 농사짓고 고생하는 데 응원해줘야지. 필요한 건 없으니까 이야기만 들어주는 걸로도 좋아"

내가 상상한 것과는 달리 어르신들은 말 한마디 거는 것만으로도 웃음꽃이 떠나질 않으셨다. 남편이 어느새 커피를 내려왔다. 어르신들의 웃음이 커피 덕분인지 꽤 오랫동안 이어진다. 몸도 마음도 따듯해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올해 농사하시는 동네분들 모두가 단단히 망했다. 노인회장인 할아버지께선 "평생 농사를 지어도 올해같이 안 된 적은 정말이지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한참 대화를 나눴다. 우리도 고추며, 옥수수며, 다 망한 터라 같은 마음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말을 걸고, 서로 땅에서 농사짓는다는 것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한두 마디를 던지고, 위로하고, 위로받는 게 전부였다. 그러나 잠시 잠깐의 대화는 서로를 응원하는 무언의 시간이기도 했다.

"또 슬슬 가볼까~"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동안 나는 어르신들께서 나를 걱정해준다는 사실과 어쩌면 어르신들에게 내가 더 받는 게 많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룽지 사탕-어느 여름날, 마을에 관해 공부하는 교육 강좌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다. 매주 듣다 보니 내가 사는 손곡리 마을에서 재미난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렇게 나는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마을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생겨서 나는 신이 났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지나가다 마주친 이장님께 찾아갔다.

"이장님! 저 이번에 마을 교육이 있는데, 그 과정 다 밟고 마을에서 활동하게 됐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장님은 한창 마을 미곡 처리장에서 일하고 계셨는데, 내가 직접 찾아가기는 처음이었다. 미곡 처리장은 내가 사는 곳과 불과 5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있다. 이장님은 놀란 듯, 그러나 반가운 자세로 답해주셨다.

"뭐, 돈 좀 준대?"

"돈은 당연히 줘요"

"많이 안 주면 하지 마!~ 돈 주는 일을 해야지! 밭일한다고 고생 고생하는데, 다른 일까지 하기 힘들어"

나를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내가 하고 싶은 마을 활동 계획을 말씀드렸다. 이전부터 나는 마을 분들의 웃음이 따듯했고, 내가 따듯하게 느꼈던 마을 분들의 얼굴을 그림으로 담고 싶었다. 여유가 된다면 집마다 어여쁘게 문패를 만들어 달아, 마을이 보다 생기가 돋기를 바랐다. 이러저러한 내용을 다 쏟아내고 나니, 이장님이 피드백을 주셨다.

"아니 윗동네 OO씨는 아마 쑥스러워서 얼굴 그려준다는 건 못할 거야, 그래도 문패는 좋아. 여기 동네에 문패 단 사람들이 몇이나 돼. 나도 몇 년 전에야 달았어. 예쁘게 만들어주면 좋지. 나도 꼭 끼워줘야 해~"

이장님이 웃으며 좋아하시기에, 마을에 주요 문제들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알려달라고 말씀드렸다. 얼굴을 그리거나,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을에 사건·사고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다. 교육과정에서 배운 바로는 노인복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다. 이장님은 이장님답게 마을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 관심이 있었다.

"이장님은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내가 담배랑 술 끊은 지 24년이야. 다른 건 몰라도 담배랑 술 때문에 아프진 않을 거야."

실은 나도 그렇게 건강한 패턴을 만들고 있진 않은데, 마을에서 가장 젊은 이장님이 나보다 더 건강한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장님이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사탕이었다. 무려, 누룽지 사탕!

"저 누룽지 사탕 좋아해요!"

"먹고 힘내."

부드럽게 웃고 가는 모습에서 누가 힘을 주고 누가 힘을 얻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이장님 덕분에 힘이 났다. 내가 젊고, 어리고, 막 귀농했고,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언가 주거나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은 어르신들이고 나는 받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됐다.

마음이 고운사람-햇살 좋은 오전에 자전거를 타고 옆집 할아버지에게

찾아갔다. 그 전에 옆집 아저씨네 먼저 들렸는데 일을 나갔다고 해서, "어디 계세요?" 물으니, "저기 앞 하우스에"라고 부인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다. 하우스 세 동이 연결된 곳은 집에서도 보여서, 자전거를 타고 쭐레쭐레 갔다. 그러나 따지 않은 애호박만 열려있고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곧바로 옆집 할아버지네로 출발했다.

일단 내가 아는 곳이 옆집 할아버지네였기 때문에 갔는데, 마침 할아버지는 마실 중이었다. 자전거를 타며 한 손으로 손을 흔들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이웃 분들을 만날 때에는 목소리를 '솔톤'으로 맞춰서 인사를 드린다. 매일 보는 사이도 아니고, 사람 만날 일이 많지 않다는 걸 아니까 되도록 밝게 인사하는데 그 효과는 백배로 돌아온다. 그러나 밝게 인사하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 밝은 인사에는 또 다른 밝은 인사가 되돌아온다.

"여기까지 웬일이야."

할아버지도 '솔톤'으로 맞이해주신다. 웃으며 반겨주신다. 자전거를 내려놓고 간단히 문패 위치와 모양을 알려드렸다. 그렇다. 오늘은 할아버지의 문패를 맞추기 위한 날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얼굴을 그리는 날이기도 했다. 나는 이웃 분들을 찾아가 한 분 한 분과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남짓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적고, 얼굴을 그리고, 문패를 담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돈영 할아버지는 그 첫 번째 주인공인 셈이다.

"할아버지 자기소개!"

"자기소개? 나야 뭐,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평생 산 사람이지 뭐."

"완전 토박이시구나, 몰랐어요."

나는 이곳에 초등학생 때 이사를 와 스무 살인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지냈지만, 어르신들하고는 "안녕하세요" 말고 그 이후의 대화를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인사 말고는 해본 적이 없는 셈이다. 그런 내가 서른이 넘어 마을로 돌아와 어르신들과 마주하려니 나도, 어르신들도 우리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다. 여든이 훌쩍 넘는 돈영 할아버지와 서른 남짓한 나와의 대화는 예상보다 시작이 좋았다.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있다면? 할아버지가 가장 잘하시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잘하는 게 뭐 있나?"

잠시 생각하시더니, 할아버지는 웃으며 답하셨다.

"난 마음만 고와."

마음이 고운사람. 할아버지는 평생 알산골에 살았고 가장 나이가 많다고 했다. 나는 어느 이웃 분에게도 나이를 묻지 않았다. 나이를 알면 나이만큼 거리가 멀어질까 봐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나이가 오십 년이 넘게 차이 나는 돈영 할아버지와 나는 조금도 멀어지지 않아서 신기했다.

"아이가 다섯인데, 자식들 건강하고 대학까지 보내 키운 것도 자랑이지."

할아버지는 아이가 다섯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많이 낳으면 열까지도 낳았다고 했다. 6·25 때는 열일곱 정도 나이였는데, 그때 손곡리가 불난리가 나서 충주까지 피난을 가셨다고. 전쟁 이후 돌아와 평생 농사를 지었다고 하셨다.

"지금 농사는 기계로 하지만, 그땐 다 손으로 했어. 초봄에 땅이 아직

얼어있을 때 추워도 가래질하면서 밭 만들었지. 지금이야 장화도 있지. 그땐 장화도 없었거든. 낮이고 밤이고. 달밤에 나가면 훤해. 아주. 그때도 일하는 거야. 밤새 가래질했지."

"할아버지 가래질이 뭐예요?"

"아 그거 있잖아. 밭에 둔덕 만드는 거."

"아~이거?"

나는 가래질하는 몸동작을 보였다. 아버지가 봄마다 삽과 괭이로 둔덕을 만드는 모습이 바로 가래질이었다.

"어어 맞아, 맞아."

"오, 하나 배워가요, 할아버지."

"내가 그걸 평생 해보니까, 자식들은 못혀. 그래서 빚내서라도 애들 교육 다 해서 공무원 하고, 직장 잡게 한 거지. 그땐 물이 어디 있어. 하늘만 보는 거여. 하늘이 비를 안 내려주면 일 년 농사는 접는 거여."

"저도 농사하지만,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거봐, 못혀. 요새 보통은 다 못혀. 그런데 요새 사람인 너는 하잖어? 그래서 대단한 거지."

"맞아요. 제가 생각해도 대단한데, 할아버지 때는 기계도 없었잖아요."

"농사 다 지으면 수확해서 지게에 짊어지고 가고 부론 오일장, 문막 장에 걸어서 가는 거여. 시방은 호강이여."

"할아버지, 그럼 어느 때가 가장 기억나는 순간이에요?"

"기억나는 순간?"

"네, 이 동네, 이 마을에 살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

"뭐, 자식들 다 건강히 키워서 자리 잡게 한 게 가장 기분 좋은 거지."

나는 문득, 돈영 할아버지의 문패에는 뭐라고 적어야 할까. 할아버지에게 가장 알맞은 문장은 뭘까 고민했다. 다들 자녀를 키운다고 청춘을 논밭에서 보냈고, 그 이후로도 빚도 갚고 땅도 사고 집고 짓는다고 논밭에서 보낸 분들이었다. 돈영할아버지도 마찬가지였고 일흔까지는 농사를 지었지만 여든부터는 더는 가래질을 할 수 없었다고 하셨다.

"그나저나, 난 곧 죽을 텐데, 뭐 하러 이런 말을 하냐."

"할아버지 정정하셔서 오래 사실 것 같은데요?"

그도 그럴 것이 돈영 할아버지는 매일 마을 산책을 하고 어디 하나 아픈 곳이 없으실 정도로 정정하셨다.

"다~ 네가 뭘 한다니까, 이 마을이 좋다니까, 나도 하는 거여."

마을 분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곧 죽을 건데 뭘 하냐?"였다. 하지만 하나같이 다 빠지는 일 없이 참여해주시고 모자란 말없이 답해주셨다. 그 마음을 알기에 한 마디 한 마디가 감사했다.

"아이고, 할아버지 그 마음 제가 알죠. 마음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됐어. 어렵게 살아, 어렵게. 그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짓나 봐요. 할아버지, 저 이장님네 가는 데 같이 가실래요?"

"내가 왜, 어여 다녀와."

옆집 할아버지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때까지 뵈었던 분이라 너무나 익숙한 얼굴이다. 익숙한 얼굴이 내게 인사한다. 잘 다녀오라고. 잘 살라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이 동네에서 보자고.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밭에서 일하다 보면 기꺼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안부를 물어주는 어르신이 계시다. 어르신이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청춘의 에너지를 가진 분. 바로 손곡3리 총무님! 나는 대부분 성함을 몰라 "어! 총무님!" 오랜만에 뵈어도 "어! 총무님!" 하고 인사를 드리고는 한다. 밭에 안 보이면 무슨 일 있는 건 아닌지 걱정해주는 사람도 총무님이었고, 열심히 일하면 너무 열심히 일한다고 걱정해주는 분도 총무님이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공무원 하면 얼마나 좋아~"

"에이, 총무님, 제가 공무원 할 수 있으면 했겠죠. 저는 밭에서 일하는 게 좋아요"

"그건 그래, 사람마다 체질이 있는 거지. 근데 잘 먹고 잘살아야 하는데 걱정이 돼서 어쩌냐."

"오, 제 걱정을 다 해주시고~"

먹고 사는 걱정까지 해주는 사람이 총무님인지라. 총무님과 대화할 때면 말속에 따듯함이 고여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다.

총무님이 차를 타고 지나가시기에 "총무님!"하고 붙잡아 마음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시라고 꼬드기기를 한 차례, 기다리고 기다리던 와중에 드디어 들러주셨다. 마침 구판장에 들어가려 하니, 손님에게 방해가 될까 염려하시는 듯했다. 내가 입구 근처에 있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그럼, 여기서 하죠. 뭐!"하고 실실 웃자, 총무님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때로는 이런 바닥이 더 편할 때도 있다.

"총무님, 총무님이 가장 잘하시는 게 뭔가요? 자랑해주세요!"

"잘하는 거? 나야 뭐, 농사꾼인데. 농사만 30~40년인데. 농사지 뭐."

"오~ 농사왕~"

내가 엄지손을 추켜세우니, 이런저런 엄청난 총무님의 역사가 주렁주렁 열렸다.

"근데 그건 다 적지 마. 괜히 자랑하는 거 그래."

"총무님, 겸손하시군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야지. 괜히 자랑 한 거 적지 말고 다른 거 물어봐."

"아깝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럼 총무님에게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일까요?"

"좋은 동네지. 내 고향이니까. 포근하고 따듯하고 편안해."

"맞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손곡리에 자랑할 만한 게 있다면? 우리 동네는 이렇다! 이런 거요."

"손곡리 뭐, 저수지 있고 낚시도 할 수 있는 게 자랑이지."

"아, 낚시 좋아하세요?"

"난 안 하지. 바빠. 요새 표고버섯 한다고 바빠."

"오~표고! 저 표고버섯 좋아하는데. 저한테도 파세요."

"비싸. 그리고 그 나이에 좋은 거 먹으면 병 나."

"하하하. 그런가요?"

"그나저나 너도 바빠 죽을 텐데, 문패도 만들어주고 크리스마스인가 뭐도 하고. 다 찾아가서 말도 걸어주고. 농사로 바쁠 텐데, 고마워."

이럴 수가. 나는 총무님께 역질문을 당하고 줄줄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읊다가, 총무님의 답을 듣고는 순간 멍했다. 이게 뭘까. 감동이라고 하기엔 두 글자로 표현이 안 되고.

"고맙긴요, 저는 제가 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고마워. 잘하고 있어."

"역시, 그렇죠?"

"그래, 잘하고 있지. 누가 해. 요새 젊은 사람들 농사지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도 농사가 제일 힘들다는 걸 아니까 자식들한텐 공부하라고만 했어. 다 공무원이지. 동네에 젊은 사람이 있나. 없지."

"그럼 지금 손곡리에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사람이지 뭐. 농사짓는 50대가 동네에 3명밖에 안 돼."

"30대는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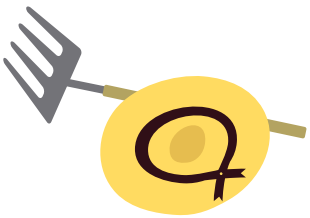
"3리에 너밖에 더 있어? 귀농한다고 해도, 3~4년이면 못 버티고 돌아가. 그만큼 힘든 거지. 근데 이웃이라고 동네 어르신들도 챙겨주고 고맙네."

국립국어원 국어사전에 '고맙다'를 검색하면, "남이 베풀어 준 호의나 도움 따위에 대하여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다"라는 뜻풀이가 나온다. 누군가 나로 인해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니! 인터뷰라는 명목으로 진행한 짧은 대화였지만 "고맙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는 총무님과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여기저기 자랑하고, 문득문득 떠올리며 뿌듯하게 여겼다. 총무님은 나로 인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나는 고맙다는 말에 마음이 흐뭇하고 즐거우니, 고마움은 고마움을 낳는다. 마음이 마음을 낳듯이.

메리 손곡마스-농번기가 지나면 농사꾼은 병원을 찾는다. 병원에 오가는 겨울날에, 정말 산타클로스가 우리 마을에 온다면 이웃 한 분 한 분

과 대화하는 것으로 선물을 나눠주지 않을까 싶다. 마을 분들은 그것으로도 충분히 즐거워하실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메리 손곡마스'를 마을 구판장에서 연다. 한여름부터 시작해 마을 분들을 만나고, 활동한 기록과 문패, 초상화를 겨울날 선물처럼 전달하기 위함이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누군가에게는 익숙한 하루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낯설디낯선 하루 일 수도 있다. 땅이 단단히 얼어있을 한 겨울날, 우리 농부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따듯해지기를 소원해본다. 오늘도 나는 가족들과 넓디넓은 밭과, 작은 마을에서 옹기종기 각자 삶을 살아가는 평균 나이 일흔이 넘는 마을 분들과 함께 봄, 여름,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기다린다. 오늘도, 마을과 마음이 여느 날과 같이 포근하기를 바라며.



장려상

	제	6	회		여	성	농	업	인	
		생	활	수	기		공	모	전	
			수	상	작	품	집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귀농 새내기에서 강소농을 꿈꾸며 | 강보민

삶의 향기 | 김미자

다시 찾은 꿈, 도전하는 여성 농업인 | 김지원

사과꽃 필 무렵 | 박종임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라네 | 유명숙

쌀귀리 농사를 짓다보면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 유순복

헛고생 | 임병숙

나는 영농코디네이터 장광숙 | 장광숙

귀농, 희망을 전해준 일곱 빛깔 무지개 | 장성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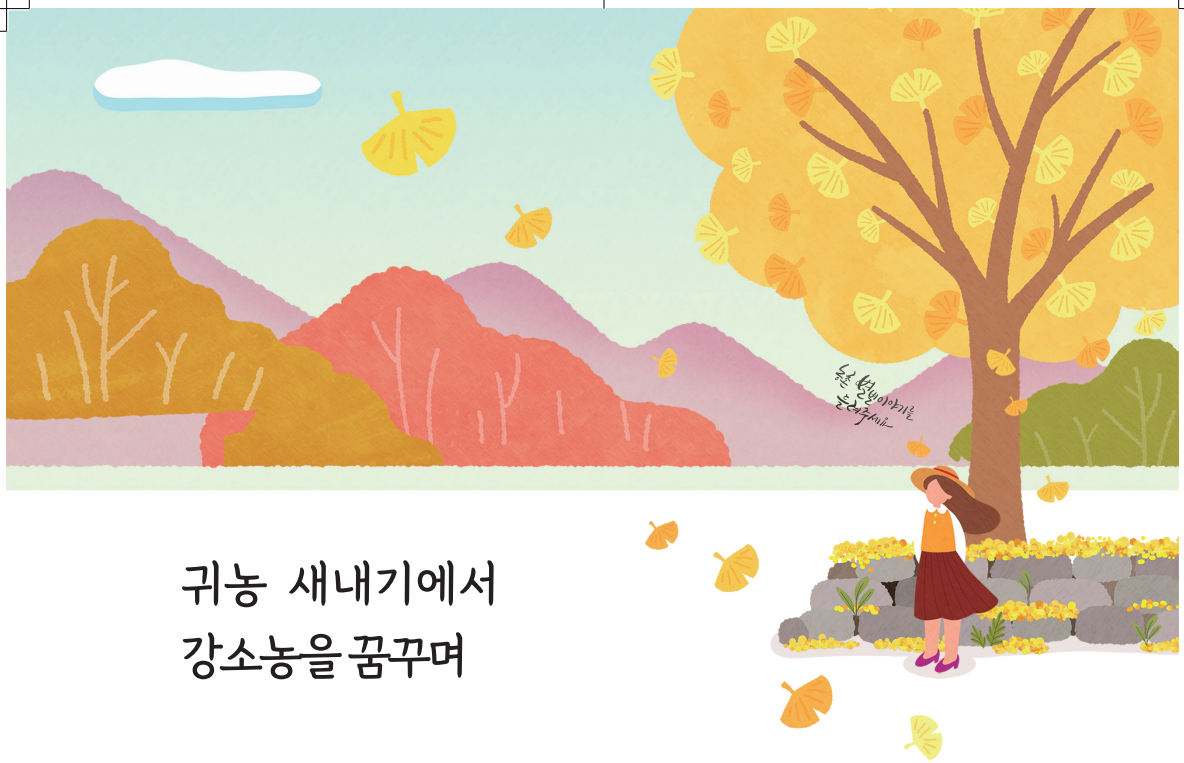
뻐꾸기 울던 시절 | 정덕화

난 할 수 있다 | 조연희

고생 끝에 얻은 행복 | 최명자

이 여자가 요즘 사는 법-순자씨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 최순자

전생에 농부였을 거야 | 추서연



귀농 새내기에서 강소농을 꿈꾸며

강보민

15년간의 직장생활을 하며, 직장인으로서 세 아이의 엄마로서 한 가정의 든든한 조력자인 아내로서 1인 3역을 하며 쉼 없이 바쁘게 살다 보니 나의 건강을 챙길 시간도 내 삶을 뒤돌아볼 조금의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탈이 나기 시작했고, 쳇바퀴처럼 빙글빙글 돌아가던 삶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직장 일을 그만두고 쉬는 동안에도 앞으로 무엇을 할지 궁리할 정도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일벌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주변 지인의 권유로 귀촌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챙기고 여유를 가지라는 말에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자금으로 귀촌생활을 준비하기

로 마음먹었습니다.

먼저 농촌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농사지을 땅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아이 교육문제로 고등학교만 졸업시키면 계획한 대로 남편과 함께 귀촌해서 농사일도 배우면서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생각을 하며 행복했습니다.

구입한 땅은 김천 감문면 남곡리에 위치한 600평으로 거봉이 심겨 있는 밭이었습니다. 현재 농사일을 하는 남편의 지인들이 제가 구입한 거봉밭을 보더니 거봉포도 4년생이라 나무상태도 아주 좋고 관리도 잘 되어 있어 수확량도 아주 좋을 때라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며 쉬엄쉬엄 배운다는 생각으로 농사를 바로 시작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지인들이 대부분 포도농사를 짓고 있기에 그 말들이 더욱 솔깃했고 아깝다는 말에 바로 수확하여 처음 해보는 귀농·귀촌 생활에 풍족함을 더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또한 친구들의 말에 동조되어 지금 하는 개인 사업을 하며 갑작스럽게 투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라 너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그래서 내게 포도밭을 파신 어르신께 조언을 구하러 갔습니다. 어르신은 본인이 짓고 일군 땅이라 잘 아신다며 1~2년간은 농사일을 도와주며 알려 주겠다는 말씀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었고 제가 좋은 분들을 인연으로 만나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한 생각도 잠시, 감문이라는 낯선 곳에서 타지 사람인 저와 남편

이 적응하기엔 여간 쉬운 일이 아녔습니다. 2017년 12월 포도밭을 사서 2018년 봄이 되면서 첫 농사일을 시작하였습니다. 포도밭에 가는 길에 동네 어르신들을 만나 인사를 전하는데 첫마디가 "젊은 새댁이 뭣도 모르고 땅값을 막 올려놓더니 이제는 좋은 땅도 다 버리게 생겼네. 에휴"라고 하시며 수군거리셨습니다.

"농사는 좀 알고 짓지 어짤라고 시작했노. 새댁!"

"잘 키운 좋은 나무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걱정된다."

죽은 나무가 있어 베어내려고 하자 "어쩔라고 돈을 다 캐내노. 몰라도 어찌 저리도 모르나, 쯧쯧쯧!" 동네 입구 쪽에 큰 도롯가에 위치한 포도밭이라 지나가시는 동네 어르신들이 자주 들리시면서 간섭과 지적이 들어가니 가슴이 답답했고, 끝내 다 잡은 마음을 흔드는 말들로 나의 선택에 물음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염려 섞인 말씀과 간섭 한마디 한마디에 결국 곪았던 마음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며칠 동안 포도밭도 감문 쪽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노력도 안 해보고 포기할 순 없지, 해보자 딱 1년 만이라도 노력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기 위해 갑작스럽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이기에 기본부터 배우자는 생각에 경북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포도 교육을 시작으로 김천시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 수업까지, 좋다는 교육은 모두 신청하고 듣게 되었습니다. 교육받으면서 궁금증도 풀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알아간다는 것, 내 것으로 만들어 나만의 노하우를 만든다는 것이 마냥 기뻤습니다.

배움을 거름 삼아 좀 더 나아가기 위해 국제사이버대학 웰빙조경학과

에 편입하여 농사짓기 최적의 토양을 만들고 관리하는 수업도 들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년 동안 교육을 듣고 배우면서 실전에 맞추고 예전 포도밭 어르신들의 경험과 신기술을 습득하고 접목하면서 조금씩 포도에 대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시작했지만, 농사일은 결코 짧은 기간 안에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 또다시 고비가 다가왔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포도 알솎기, 포도 순따기 등 이것저것 수확기를 맞이하기 위해 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포도밭이 도로 옆이다 보니 우리 차를 주차하면 동네 주민들이 주차할 공간이 없다며 도로 쪽으로 주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걸까? 라는 생각과 함께 속상한 마음뿐 이였습니다. 연고가 없는 타지역에 들어와 농사지으면서 터전 잡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로만 듣던 텃새를 내가 겪고 있구나. 매일 동네 어르신들과의 기 싸움에 마찰이 연속으로 생기다 보니 시골생활에 대한 회의도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

힘든 마음과 함께 날이 새면 포도밭에 가는 것조차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선택하고 시작했기에 노력해 보자는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듯 힘든 몸을 이끌고 포도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또 일주일 지난 주말에 동네 어르신들이 우리 밭으로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농수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동네 물을 쓸 자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동안 너무 힘들고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나도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말다툼. 동네 어르신들을 대표해서 전달한다고 하시면

서 포도밭 앞 도로변에 주차도 하지 말고, 동네 농수도 쓰지 말라며 고래고래 소리치셨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고 말해야 할 것 같아 어르신께 얘기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옳고 그른 일인지 법적으로 하겠다. 경찰서에 신고해서 명명백백 가리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어르신과의 말다툼에 동네와 도로 주변은 시끄러울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마침 농정활동으로 지나가던 감문면사무소 직원이 동네 주민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어 차를 세워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마침 직원이 동네에 사는 분이라 동네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터라 공동농지 물 사용과 도로 주차에 관한 내용을 잘 안내해줘서 이틀 만에 정리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공동으로 마을 주민들과 함께해야 할 것들과 동네 분들과 조율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막무가내로 타지 사람인 제가 와서 동네 물 흐린다고 소리치시던 어르신들은 우리 포도밭을 지날 때마다 고개를 휙 돌리시고 지나가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봄과 여름이 지났고, 유별나게 나를 힘들게 하셨던 어르신들의 텃세도 일단락 마무리되었지만, 나는 이 평온했던 동네에서 굴러들어온 싸움닭, 성질 못된 젊은 새댁으로 낙인찍히고 말았습니다. 정말 포도밭도 다 팔고 다시 시내에 나가야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포도밭에 갈 때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 말씀씩 불평을 건네며 가셨기에 무시 받아 힘들고, 간섭받으며 걱정했던 불안한 마음은 어느 정도 없어졌기에 편했습니다. 그렇게 그 해포도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해를 시작하며

nice
ghost
club
감천

nice
ghost
club
감천

두 번째 농사철이 다가왔습니다. 새해가 되자 지나가던 어르신들과의 관계는 서먹서먹하고 다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까. 농사에 무지한 답답함이나 주변 환경이 불편한 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심리적인 불편함이라고 할까. 마음이 편하질 않았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그냥 지나치실 때마다 답답한 마음과 함께 부모님 같은 어르신들에게 내가 너무 인정머리가 없이 대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터 한 해 농사가 마무리될 때마다 동네 노인회관에 떡과 음료를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안 좋게 관계를 시작한 분들도 계시지만 소문만 듣고 나를 잘 모르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를 이해해 주실 분이 한 분이라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 해도 동네 들어와 인사를 제대로 못 드린 것 같다며 떡과 음료를 돌리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다음 해쯤 한 분이 지나가다 포도밭에 들러 해마다 잘 먹었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해 주셨습니다. 내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와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마음이 짜릿하던지,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분을 시작으로 한분 한분 지나가다 들러 주시면 먼저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 어르신이 밭에 계시길래, 더우실 텐데 더위 식히고 쉬엄쉬엄하시라며 시원한 얼음물을 가져다드렸더니 다음 날 아이스크림을 사서 오셨고, 포도밭 앞에 빨갛게 주차금지라고 크게 써 놓고 주차를 못 하게 하셨던 어르신도 준비한 간식거리를 챙겨 드렸더니 며칠 뒤 포도밭 앞에 장갑이

랑 텃밭에서 갓 딴 채소가 있다며 놔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동네 어르신들과의 충돌과 서먹함을 푸는데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동네 분들이 일부러 밭에 오셔서 포도 성장도 봐주시고, 농사일하는 데 필요한 조언들도 해주시며 아직 초보 농사꾼이지만 부지런히 잘한다며 칭찬도 아낌없이 해주시면서 마음을 나누는 진짜 이웃사촌으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일부 농촌에서는 농사일하고 배울 청년들이 없어 귀촌과 귀농을 권장하며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농촌에 정착하기까지의 어려움은 농사일에 대한 지식과 경험보다는 인간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낯선 외부인에 대한 경계심을 함께하자는 포용과 관심으로 보듬어 주면 좀 더 빨리 정착하고 농촌 문화에 융화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귀촌에 대한 자연친화적인 로망으로 나 또한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시작하였기에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5년이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귀농하여 농업을 배우고 익혔던 5년의 기간 동안 농민들의 고충을 알게 되었고 농산물에 대한 귀함도 알게 되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시기에 맞게 씨를 뿌리고 적당히 물을 주면서 성장을 위한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무럭무럭 자라 결실을 맺어 수확한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경험하며 접해보니 우리 농민들이 농산물의 올바른 성장을 지키기 위해 온갖 노력과 애정 그리고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이 올바른 농산물을 키운다는 걸 몸소 보고 배우고 깨달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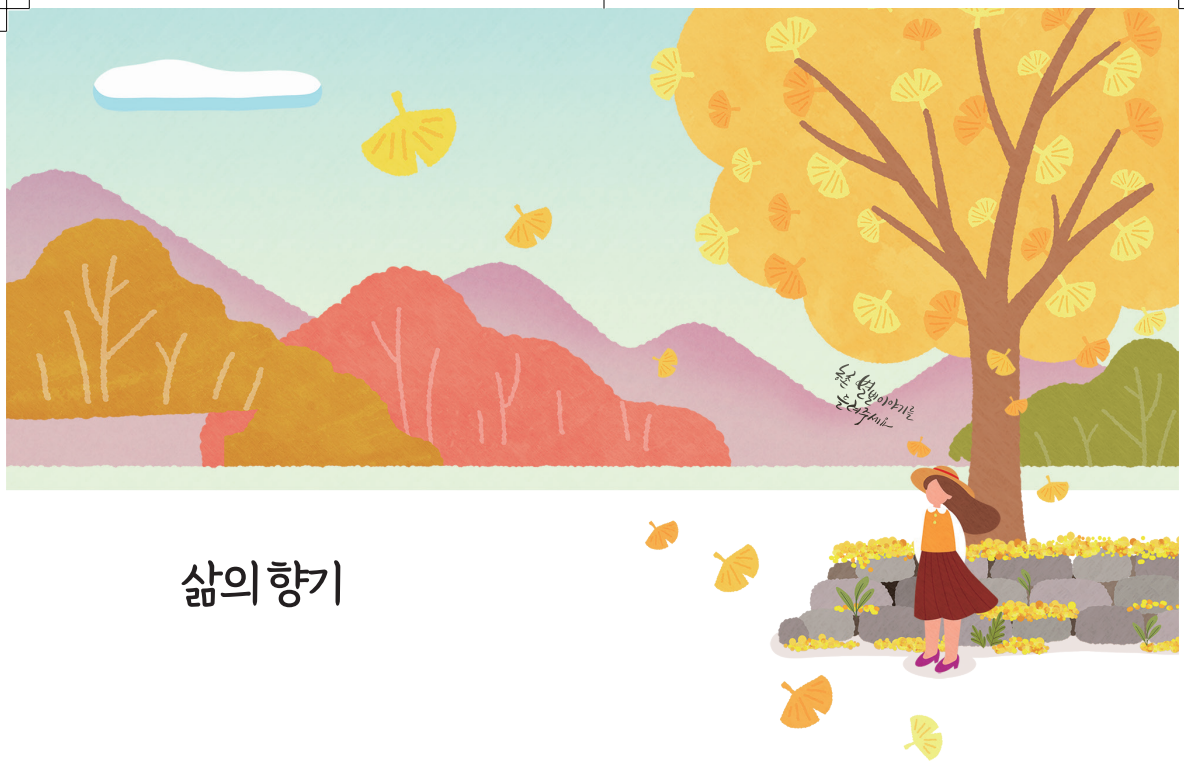
그 깨달음이 스스로에게 강한 채찍질이 되었고,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욕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바른 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과 신념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통해 기본 농법과 선배 농민들의 노하우 그리고 신기술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달려 볼까 합니다.

그 과정을 토대로 나의 것으로 만들고, 나의 농지에 맞게 접목시켜 재배하여야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각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인을 위한 정책과 시기별로 맞는 제도를 아낌없는 지원해 주고 내가 속해 있는 곳의 지역농협에서 하는 현장실습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익힐 수 있어 저처럼 초보 농사꾼에게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준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강소농(强小農)이 되고자 다양한 교육으로 많은 정보와 농정 기술을 익히고 프리미엄 과일 수확을 하고 나의 이름이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문 이방인, 초보 귀촌인에서 이제는 포도를 사랑하는 프로 농사꾼으로 거듭나도록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김천 감문면에서 탐스러운 포도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강소농이 되기 위해 서서히 스며들며 즐거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삶의 향기

김미자

오전 4시면 어김없이 나의 단잠을 깨우는 핸드폰 알람 소리는 여명이 트는 밝아오는 아침 희망의 속삭임으로 들려온다.

세수하고 모닝커피 한잔을 음미하기 위해 보온병을 챙긴다. 때로는 블랙 때로는 일회용 크림 아니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분에 따라 커피도 색다르게 챙긴다. 농사꾼의 발걸음 소리에 곡식들이 자란다고 하듯 일찌감치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호미가 거름이라고 열심히 호미질해야 하고. 하루라도 안 나가면 금방 표시가 나니 안 나갈 수도 없거니와 밤새 안녕이라고 고라니 멧돼지 습격은 당하지 않았나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다. 어느새 농사꾼이 다 되었나 보다.

산밭 농사로 약수터를 오르내리는 상쾌함도 꽤 쏠쏠하다. 칡꽃 향이 먼저 마중 나오는 언덕배기 아래서 모닝커피 한잔하는 여유로움은 그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행복인 것 같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힘들게 농사짓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 같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준비 운동을 하고 김장 심을 채비로 밭이랑에 들어섰다.

헐렁한 고무줄 바지에 얼룩무늬 차양이 넓은 모자에 장화를 신은 이 모습이 나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단벌 신사처럼 입고 언제나 짐꾼처럼 배낭을 짊어지고 다니는 이 모습은 흡사 제집 등에 짊어지고 다니는 달팽이 같다. 그래도 건강한 달팽이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속으로 혼자 픽 웃는다.

먼저 지정 거리는 장맛비에 봇도랑이 되다시피 한 밭이랑을 쳐올린다. 무슨 비가 그렇게도 쏟아붓던지 기록적인 물 폭탄이 중부지방을 휩쓸었다는 뉴스처럼 휩쓸려 나간 밭은 엉망이었다. 그 틈새 공략으로 물만난 어린 방게가 물살을 타고 오르내리며 놀고 있고 어느새 훌쩍 자란 피는 씨앗을 달고 있었다. 때아닌 피사리가 급선무로 피사리부터 했다. 바로 그때 부지런한 이웃들이 아침 인사를 건넨다.

"어휴 일찍도 나왔네. 새벽에 나왔나 봐. 잠은 언제 자고..."

"사람이 풀을 못 이겨. 자고새면 풀인 걸 뭐 풀과의 전쟁이지"

"김장 심으려고? 알뜰하네 참깨 베어내고 심으려고? 이젠 제법이여. 아주 상일꾼이 다 됐어."

그 소리에 한바탕 까르르 웃었다.

5년 차 농사꾼인 내가 처음 삽질할 때 "농사는 그렇게 시적으로 짓는 게 아녀. "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처음 땅 한 뼘 없던 나는 방석만 한 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고 있었다. 농촌 태생으로 흙이 좋아서였다. 그러던 중 뜻밖에도 서울에 시는 시누이가 꽤 큰 산밭 하나를 사 주는 계기로 농사를 짓게 되었다. 휴경농지로 신고가 들어가 두어 번 벌금형을 내렸던 밭이라고 했다. 마을 어귀로 산밑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귀띔해 주었다. 그래서인지 그 묵정밭은 키가 크고 튼실해 보이는 명아주가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잡초가 무성하고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소원해 오던 것이었으니 즐거웠다. 신바람이 난 나는 콧노래를 부르며 열심히 일했다. 그 어떤 대지주 부럽지 않았다. 내가 좋아하는 일은 힘들지도 않은 것 같았다. 산밭으로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장마 때는 비 피해도 보거니와 질밭으로 농사짓기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말을 듣고 객토 작업을 했다. 그런데 업체에 맡겼더니 흙을 너무 많이 넣어 사람들은 집을 지으려나 논을 만들려나 했다고 했다. 목적은 밭인데 말이다. 그러니 왕초보에 경험 없이 무슨 씨앗도 없고 빈 땅으로 놀릴 수도 없고 첫해는 그냥 옥토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내 좋아하는 달맞이꽃을 심기로 했다. 도랑 옆으로 무성하게 피어있는 달맞이꽃 모종을 하여 심어 가꾸어 그 씨앗으로 기름을 짜서 판매하는 그 수익성을 생각해 낸 것이었다. 고가라는 말에 은은한 그 향내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밤에 피었다가 낮이면 오므라들어 밤에 피는 장미라고도 한다는 그 꽃은 참 신비롭기까지 했다. 해 질 녘 바람에 흔들거리는 그 꽃은 정말 정관이었다. 그러나 웬걸 너무 키가 커서 비바람에 쓰러진 달맞이꽃은 이리저리 제멋대로 쓰러져 누워 낮잠 자다가 썩어 문드러지고 남은 씨앗 한 말에서 나오는 기름은 고작 소주병 하나로

방앗간에서 짜주지도 않았다. 그래서 아는 사람한테나 짜준다. 그것도 읍내에 있는 단 한 군데 방앗간에서 신용거래를 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여 첫해는 실패작, 다음 해에는 오이며 상추 같은 푸성귀에서 고구마, 땅콩, 팥 등을 골고루 심었다. 그런데 그만 땅콩은 수확도 하기 전에 무엇이 모두 파먹고 고구마는 멧돼지 먹잇감으로 내주고 콩과 팥은 고라니 몫이 되고 말았다. 그 허탈감에 밭이랑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안 되겠다 싶어 다음 해에는 울타리도 치고 땅콩도 꽃이 필 무렵에 망을 씌워 보호했다. 그랬더니 동기간들과 나누어 먹을 것은 찾을 수 있었다. 보람 있었다. 조금씩 노후대책으로 준비해둔 연금이 있어 크게 생활에 불편함은 없어 그저 농사는 동기간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을 양으로 짓는 것이니만큼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그래서 무농약으로 그것이 진짜 유기농이라며 내가 먹을 것이라며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니 소출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잘되는가 싶더니 병충해로 참깨며 콩, 들깨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탄저병에 걸린 고추는 걷잡을세 없이 모두 병이 들었다. 실하게 잘 된다고 하며 좋아하는 내게 이웃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했다.

"농사는 자루에 담아 봐야 알어 싹 보고는 몰러 잘 됐다고 하기에는 안 작 일러"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는데 농사를 짓고 나니 그것을 알 수 있었다. 정말 옳은 말씀이었다. 옛 어르신들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진리 같았다. 그런 선생님들 옆에서 배우며 어깨너머로 농사를 짓고 있다. 그다음 해에는 나를 위한 농사로 넓고 큰 밭둑을 무성한 잡초만 키우며 제초 작업하기도 힘들고 내가 좋아하는 들꽃 마을 조성을 하리라는 야무

진 꿈으로 온 봄내 야생화 캐러 다니기 바빴다. 뜰 안에 내 고향 산천에서 무수히 피고 지는 들꽃을 옮겨 심어 가꾸고 싶었던 내 바람대로. 그렇게 하여 꿈은 이루어졌다. 얼마나 기쁘던지! 행복감이 밀려왔다. 제비꽃에서 개망초, 꿀풀, 오이풀, 쑥부쟁이, 구절초, 원추리, 각시붓꽃, 은방울, 산나리 등 백여 가지의 들꽃 하나하나에 이름표를 달아주는 나는 그 어떤 식물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 같았다. 세상 부러운 것도 없었다. 그 삶의 향기가 나를 행복하게 했다. 그래서 행복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그대로 있을 줄 알았던 그것들이 제각기 흩어져 흔적을 남긴 것이었다. 온 밭이 민들레며 고들빼기 제비꽃 흡사 핑크뮬리 같다는 아니, 은발로 그보다 더 멋스럽게 느껴지는 정감 있는 것이라고 떠다 심어 가꾼 스크렁이 온 밭을 다 뒤덮고 있었다. 우리뿐 아니라 이웃집 밭으로까지 번져 본의 아니게 민폐를 끼치게 된 것이었다.

"저저. 반지꽃(제비꽃)은 천에 못써 여간해서 안 죽고 잘 퍼져, 그 집에서 날아와서 골치여. 농사는 그렇게 시적으로 짓는 게 아녀. 지난해에는 무슨 달맞이꽃을 그렇게 심어 이웃 밭에 죄다 씨를 퍼처 골치를 썩이게 하더니만. 그래서 이웃도 잘 만나야 한다니까. 애기 엄마는 그냥 책이나 보고 시나 썼으면 좋을 걸 그랬어. 직업을 잘못 선택했어. 그걸 잘 한다믄서"

군락을 이루다시피한 제비꽃을 캐내는 이웃 아저씨가 내게 한 말씀이었다. 하필이면 자로 재어가며 반듯반듯 깔끔하게 농사짓기로 입소문이 난 집 옆 밭이어서 그런지 정말 대조적으로 속이 상했다. 어찌나 무안하던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 나온다. 그래서 농사는 시적으로 짓

는 게 아니라고 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격려도 해 주고 비둘기 울면 무슨 씨앗 심고 뻐꾸기 울면 무엇을 소쩍새 울면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시는 고마운 분으로 내 농사 친구(?)가 되었다. 종자 씨앗이며 들깨 모종도 아낌없이 내어 주신다. 맛이나 보라며 밭둑 너머로 몇 개 던져주는 실한 살구며 자두는 정말 맛이 있었다. 나는 과수나무는 꽃이 예뻐 관상용으로 기르는 블루베리밖에 없으니. 그렇게 농심은 아직 정겨움이 있다. 그 덕에 왕초보도 상일꾼으로 될 수 있었다.

참깨 끄트러기를 뽑아내고 비닐을 걷고 삽질해가며 두둑을 만들어내니 바둑판 같은 터전이 보기 좋았다. 보람 있었다. 이제 무, 배추 알타리며 갓, 쪽파 등을 심기만 하면 된다. 벌써 기대가 된다. 수확의 기쁨을 또 한 번 누릴 생각에 아침에 목표 세운 할 일을 끝내고 났더니 그렇게 홀가분할 수가 없었다. 마치 밀린 숙제로 청탁받은 원고를 탈고한 기분처럼 날아갈 듯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다. 그 기분에 살랑살랑 불어대는 바람결에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서는데 그 무엇이 내 발목을 잡는다, 벌개미취며 마타리꽃이었다.

"어머머 세상에 미안해. 내가 미처 못 돌아봤어." 비 맞은 중처럼 중얼거리며 얼른 그 앞으로 가서 그것을 손질했다. 키가 클 때로 큰 마타리는 쓰러져 호박 덩굴 속에 파묻혀 있고 벌개미취는 한 아름이 굶주린 일가족처럼 쓰러져 땅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바쁘다는 이유로 그것을 소홀히 해 그토록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내친김에 바랭이 속에 묻혀있는 으름덩굴까지 꺼내주고 난 나는 제구실을 못 하고 지고 있는 그 꽃이 너무 아까워 한 아름씩 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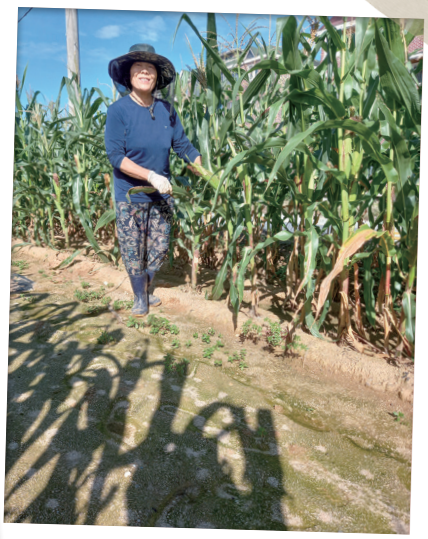
어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꽃말을 검색해보니 너무 좋아 남편에게 안겨주고 싶은 충동이 생긴 것이었다.

실은 남편은 십수 년째 뇌졸중 환자로 서울의 어떤 큰 병원을 오르내리며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냥 연금으로 생활할 뿐 가장 아닌 가장이 된 내가 농사를 짓게 된 것이었다. 그냥 하루 무탈하게만 보내준다면 지금의 나로서는 더 바랄 게 없다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세상에 어쩜' 하는 감탄사를 보낸다.

"저, 이 꽃말은 '잴 수 없는 사랑'이고, 또 이것은 '널 잊지 않으리'라고 한대. 내 마음 알지? 이 꽃으로 대신할게"하고 남편의 가슴에 안겨 주었다. 순간 까닭 모를 눈물이 확 쏟아져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을 울었다. 과연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 짜릿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다. 실로 아무 일도 없는 척 명연기로 '아까 눈에 흙이 들어간 것을 이제 제거했어. 눈이 아파서 혼났네' 하는 연출로 식탁을 차렸다.

아침 먹고는 뜨거워 낮 동안 쉬었다가 선선한 오후에 다시 들로 나간다. 그사이 잡다한 집안일을 끝내고 머리가 맑아지는 카페인 성분으로 찾는 커피 한 모금 음미하고 잠시 내 시간을 위해 컴퓨터 앞으로 다가앉는다. 나의 오랜 취미며 생활인 글쓰기 습작을 하기 위해서였다. 농사에 전념 하다 보니 내 시간이 없다는 것이 늘 그렇기는 했다. 자투리 시간도 허투루 사용할 수 없어 아주 잠깐 주로 밤과 새벽에 조금씩 작업을 하는 터라 사람들이 잠은 언제 자냐고 물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작업을 그만 접어야 했다.

꽃병에 꽂아놓은 그 꽃이 그만 시름시름 하는 것이었다. 벌개미취가 그



랬다. 그 아까운 꽃이 안 되겠다 싶어 얼른 그 꽃을 따서 책갈피에 곱게 넣어두었다. 60대 후반인 이 나이에 소녀적 감상대로 갈피갈피 예쁜 들풀이며 꽃을 모아두는 것이 있었다.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의 분신인 아들아이가 데리고 드나드는 그 여자친구에게 결혼할 때 예쁜 꽃 편지를 써서 맞이할 생각이다.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편지지에 담은 시어머니의 편지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었다. 그렇게 삶은 향기롭기만 했다. 물론 각색 연출 모두 내가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다시 저녁나절들로 나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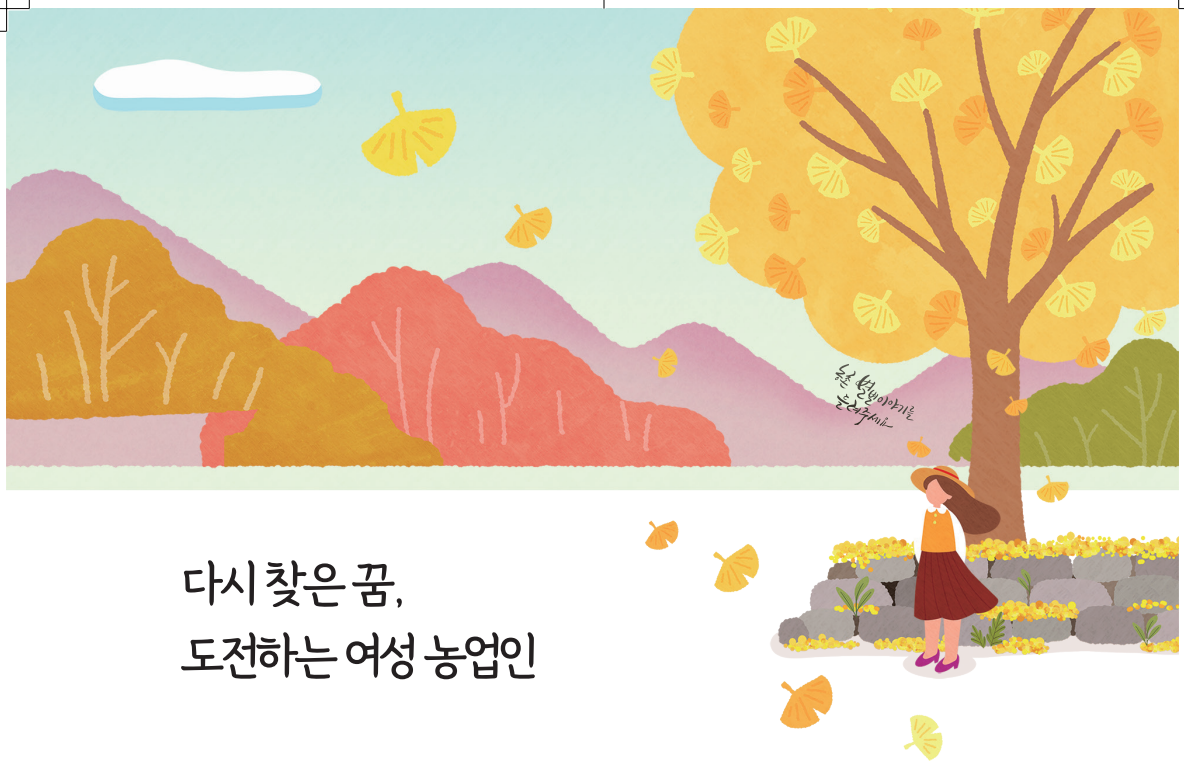
그 즐거움에 애창곡을 흥얼거리며 걷는 내 앞에서 길앞잡이로 나선 장푸라기로 불렸던 메뚜기 프르럭 고운 날게 옷 펼치며 날아가고 놀란 산 꿩 푸드덕 날아가고 벚나무 위에서 아슬아슬한 곡예를 타며 그 묘한 풍경보기를 하던 청설모가 너무 귀여워 손 빠르게 얼른 찰칵 핸드폰에 담았다. 수입 잡았다며. 그 광경이 너무 재미있었다. 아마 도시 사람들은 그런 것을 모르고 있을 것 같았다. 모두가 여성 농업이기 때문에 얻는 호사였음에 농업인이 된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 사람들은 힘들게 농사를 왜 짓냐고 한다. 대농도 아니고 또 거기서 얼마나 나오며 안 해도 되지 않겠냐며. 그 소리에 나는 그냥 피식 웃을 뿐이었다. 그 소리가 정답 같기는 했지만, 농사는 어떻게 보면 내 정신적 지주인 것 같기도 하다. 뿌린 대로 거두고 사랑을 주는 만큼 알찬 열매로 보답하는 것이 농사로 잔소리며 소리 없이 잘 자라주는 나의 기쁨조로 든든한 나의 지원군이 되어주니 그보다 더 든든한 지원군이 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꼭 육아하는 것처럼이나 행복감이 밀려온다.

추수철이 다가오지만, 들깨밭은 풀밭이 되다시피 했다. 이젠 김매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뜯어내야 했다. 땅콩이며 고구마밭에서도 바랭이가 흔들흔들하며 약을 올린다. 그 옛날 소먹이로 아주 좋았던. 열심히 김매기 해 놓은 것이 잦은 비로 인해 엉겨 붙어 있던 것으로 크게 힘들지 않았다. 오늘의 목표량은 무난히 해 낼 수 없었다. 강행군으로 무리를 할 생각은 없다. 차분히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오늘을 바쁘게 살아야 하는 여성 농업인의 자세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이제 며칠 있으면 땅콩을 시작으로 10월이 오면 고구마에서 들깨며 서리태도 뽑아야 하고 김장이 끝나야 농사가 끝으로 내 손이 바빠질 것이다. 따라서 마음도 바빠질 테지만 그만큼 거두어들이는 소득에 나는 또다시 즐거움을 맛볼 것 같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라며 동기간들과 지인들에게 농산물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그 기쁨 또한 나의 행복이다. 때로는 만만치 않은 배송비로 남편의 눈치가 보이기도 하지만 받기보다 주어서 더 마음 편한 내 성격이니 어쩔 수가 없다. 수확의 기쁨에서 분배의 몫으로 기쁨이 두 배가 될 농사는 나의 절친처럼 느껴진다.

올해는 들깨를 더 많은 밭에 심었다. 휴경농지를 누가 주었는데 노는 땅 두고 못 보는 성격으로 들깨 모종을 한 것이었다. 벌써 향긋한 들깨 내음이 코끝에 와 닿는 것 같다. 내 삶의 향기가 느껴지는 바로 그런 것처럼, 내일은 창고에서 낮잠을 자는 도리깨도 꺼내 손질해 두어야겠다. 어머니의 그림자가 되어 투덕투덕 도리깨질을 하는 내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았다. 깨소금 난다는 신혼이 아니라 멋진 인생의 황혼녘에 고소한 들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풍길 것을 생각하니 벌써 기대가 된다. 아니, 삶의 향기로 가득 찰 나의 보금자리가.



다시 찾은 꿈,
도전하는 여성 농업인

김지원

다시 이 땅을 밟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가끔 꿈을 꾼다. 친구들과 뜀박질로 들판을 지나, 산을 넘어, 저 먼 세상으로 내달리던 그날을. 어린 시절 평상에 앉아 '저 산 너머에 뭐가 있을까?', '어떠한 모습으로 누가 살까?' 늘 궁금했다. 논에서 일하다가도, 고추를 따다가도, 잠깐씩 쉴 때면 보이지 않는 곳을 상상하며 그곳을 동경했다. 시골이 싫어서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중학교 졸업 후, 난 도시로 진학하여 동경했던 그 세상에 발을 디뎠다. 되돌아보니 열심히도 살았다. 그러나 갑자기 닥쳐온 사업의 실패가 나를 무너뜨렸다. 이후 도시에서 살아갈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 때, 나는 숨 쉴 곳을 찾아 농

촌으로 눈을 돌렸다.

다시 이 땅을 밟으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시골을 떠난 지 30년이 되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다니! 그때의 나로서는 상상조차 못 할 일이었다. 서울 생활의 마침표를 찍고 마흔 중반이 되어, 갓 중학생이 된 아들과 단둘이 셋째 언니가 있는 익산시 웅포면 고창마을로 이사 왔다. 12월 이삿날의 웅포면이 기억에 선명히 남아있다. 쉴 새 없이 내리는 눈으로 온 마을이 하얗게 물들던 그날. 온갖 살림을 다 정리하고 트럭 한 대에 짐과 나와 아이를 싣고 오는 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퍼붓는 눈으로 웅포면 칠목재를 거북이처럼 넘어왔던, 착잡하고 심란한 마음을 눈물로 쏟아낸, 그날. 이삿짐 기사님께서는 우리더러 눈 오는 날 이사하니 부자 될 거라고 말씀하셨다. 물론 지금도 부자는 아니지만, 기분 좋게 살만한 듯 싶다. 고요히 흐르는 금강과 무채색으로 뒤덮인 웅포면의 자태는 찬란했고, 마치 도시 생활에 지쳐 마음마저 가난해져 있던 나를 행복으로 초대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나의 벅차오르는 마음처럼, 내 아들도 그러하기를 소망하며 금강 변을 거닐던 그때를 회고한다.

하지만 현실은 매서웠다. 많은 도시 친구들과의 생이별을 겪은 우리 아이는 주위 또래가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컴퓨터에만 몰두하기 시작했다. 비단 사람뿐이 아니다. 어디 갈 곳도 없었다. 자동차 이외에는 여차하면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는 35번 버스만이 익산 시내로의 유일한 이동수단이었다. 언젠가 눈이 많이 내리던 날 심한 몸살로 시내 큰 병원을 4시간에 걸쳐 다녀왔던 때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아직도 기억난다. 당시의 나는 이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의

입구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웅크린 채 머뭇거렸던 것 같다.

그런데도 시간은 흐르고, 봄은 찾아왔다. 마을의 색을 지웠던 눈은 어느새 녹아 그 자취를 감추고, 웅포는 다시 푸르른 그 색을 되찾았다. 3월의 봄은 겨울의 추위를 완전히 떨쳐내진 않았지만, 햇살만큼은 따스했다. 우리 아이는 중학교에 들어가 친구를 사귀며 활력을 되찾았다. 웅포중학교 또래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포함해 5명이다. 전체 학생 20명이 넘지 않은 아주 작은 학교이다. 행여 교육이 뒤떨어지질 않을까? 너무 경쟁이 없어 이대로 괜찮을까? 많은 고심은 혼자만의 기우였다. 오히려 자연과 함께하는 학교생활은 아이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활발한 활동들, 사제 간의 다양한 체험과 견학 등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가져다주어 신나게 학교에 다녔다. 이에 따라 늘 아이를 보며 느꼈던 마음 한쪽의 죄책감도 점점 작아져 갔다. 기나긴 겨울이 지나 우리 마을에도, 우리 마음에도 완연한 봄이 찾아온 것이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순간이 축복이었음을 알기에, 지금의 난 그때의 봄날을 감사하게 기억한다.

농업인이 되기 위한 발판을 만들다

셋째 언니는 가진 것 없이 자존심만 센 철부지 동생인 나의 생활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며 행여나 마음 상하지 않을까 서서히 농촌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손길을 내밀었다. 난 그 마음을 알기에 주저 없이 내밀던 손을 잡았다. 형부는 60년 평생 이곳에서 나고 자라며 3대째 농업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25년째 친환경 농업의 선두 주자로서, 최고의 전문가이다. 언니와 형부는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한 나를 배려해 본인이 운영하

는 영농조합의 농업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언니는 나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손을 보태줘서 고맙다고 늘 말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일하였다. 또한, 풍족하진 않더라도 알뜰하게 살림하여 점차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친환경작목반 반장이며 마을의 이장이신 형부와 마을의 부녀회장인 언니는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나아가도 괜찮다고, 지금도 아주 젊고, 앞날이 밝다며 희망찬 조언을 해주셨다. 그 말과 언니 부부의 성실한 일상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갔다. 벼농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며 종자를 소독하고 파종하는 일, 육묘장에서 육묘를 키우는 일, 잡초 제거하는 우렁이를 논에 넣는 일, 나락을 수확하고 건조하는 일, 수확한 나락을 수매하는 일, 고추와 콩을 심고, 텃밭에 온갖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 등을 배우며 익숙지 않았던 농업을 차근차근 배워나갔다. 본격적으로 여성 농업인이 되기로 다짐한 나는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인력개발원 등에서 진행하는 친환경 농업, 농촌 체험, 농식품 가공, 마케팅, 회계, 치유농업, 소형건설기계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면허증을 취득하면서 농업인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때마침 1000평 남짓의 친환경 논이 나왔다. 경제 상황이 넉넉지 못한 상태여서 땅 매입액의 3분의 2를 신용대출과 농협 대출로 샀다. 빈털터리였던 내가 생애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되어있는 땅을 바라볼 때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 작은 땅에서 나오는 수익은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부자가 된 것처럼 행복했다. 내 논에 모를 심고 잡초 제거작업, 물관리를 하며 스스로가 어엿한 농업인이 된 것 같아 뿌듯했다.

지역사회의 어엿한 일꾼이 되다

마을 어르신들은 정성스레 키운 농산물과 간식거리를 가져다주시며 나를 편견 없이 대해 주셨다. 그 진심을 알기에 어느새 어르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며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없나 세심히 들여다보게 되었다. 특히 자녀들과 소통하는 휴대 전화 관련 문제 해결, 의료 관련 서류 보내는 일들은 어르신들에겐 버거운 일이었다. 나에겐 아무것도 아닌 아주 간단한 일이 어르신들에겐 적잖이 큰일이어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며 연신 고맙다며 건네는 말씀을 들으며 부모님께 불효했던 일이 떠올라 후회가 되기도 하였다.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농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면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농업 관련 보조사업에 필요한 서류안내와 접수, 시기마다 진행하는 농업 관련 교육장으로의 차량 운행을 도와드리고, 여러 지원사업 정보를 알려드렸다. 또 농협 대의원과 웅포여성의용소방대에서 활동하며 주민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일을 하니 농촌 생활이 즐겁고 나름대로 지역에서의 입지를 다진 것 같아 자부심이 생겼다.

마음의 안정이 오니 지역사회와 농민들을 위해 할 일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며 할 일들을 찾기 시작했다. 동네 분들의 농산물 연결 서비스와 농사 체험을 진행하면 좋을 듯했다. 내가 생각해본 방식은 이러하다.

첫째, 온라인 마케팅을 이용하여 도시 소비자에게 마을 분들의 농산물 고춧가루, 감자, 콩, 블루베리 등을 홍보하고 배송하는 시스템 구축하기. 둘째, 서울 학생 학부모를 초청하여 친환경 벼 재배 농사 체험을 진행하며 어르신들을 체험 도우미 역할로 고용하여 경제효과 증대하기.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씩 하나씩 더디지만 준비했다.

첫째로 마을 분들의 농산물 홍보와 판매이다. 자녀들에게 주고 남은 농산물을 판매해준다고 하니 다들 좋아하셨지만, 실제 판매는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았다.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농산물 품질에 대한 견해 차이와 예상치 못한 주문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인해 많은 도움을 드리지는 못한 게 아쉽다.

둘째로 농사 체험이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익산시에서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보조사업이 있어 부담 없이 체험을 진행할 수 있었다. 오랜 기간 도시에서 생활해 왔기에 지금도 서울에 사는 지인과 동생의 도움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초청하여 체험을 진행했다. 봄 파종 체험은 5월 초에, 모내기 체험은 6월 초에 연휴를 이용하여, 가을에는 10월 초 연휴에 수확 체험을 하는 식으로 진행했다. 가을 황금빛으로 물든 금강 변의 친환경 재배단지를 트랙터 마차 위에서 바라보는 것은 너무나도 신나는 일이다. 잠시 금강 변에 멈추어 금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자유롭게 보내는 시간을 체험객들은 매우 좋아했다.

우리가 늘 먹는 밥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산되는지, 나락이 쌀이 되는 과정을 몸소 배우고, 재배지를 둘러보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40대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그동안 몰랐던 지식도 쌓고 자연과 더불어 웅포의 역사를 알아보는 체험을 하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체험이라 엄지를 치켜세웠다. 이 모든 것은 작목반 회원님과 동네 어르신들이 체험 도우미로 손을 보탰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동네 할아버지께서 모심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조심스럽게 낫으로 벼를 베고 홀태를 치는 법도 알려주셨다. 의미 있는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경제소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게 되

어 기뻤다. 체험은 2015년부터 2019년 말까지, 코로나19가 퍼지기 전까지 진행하였다.

여성 농업인, 꿈을 현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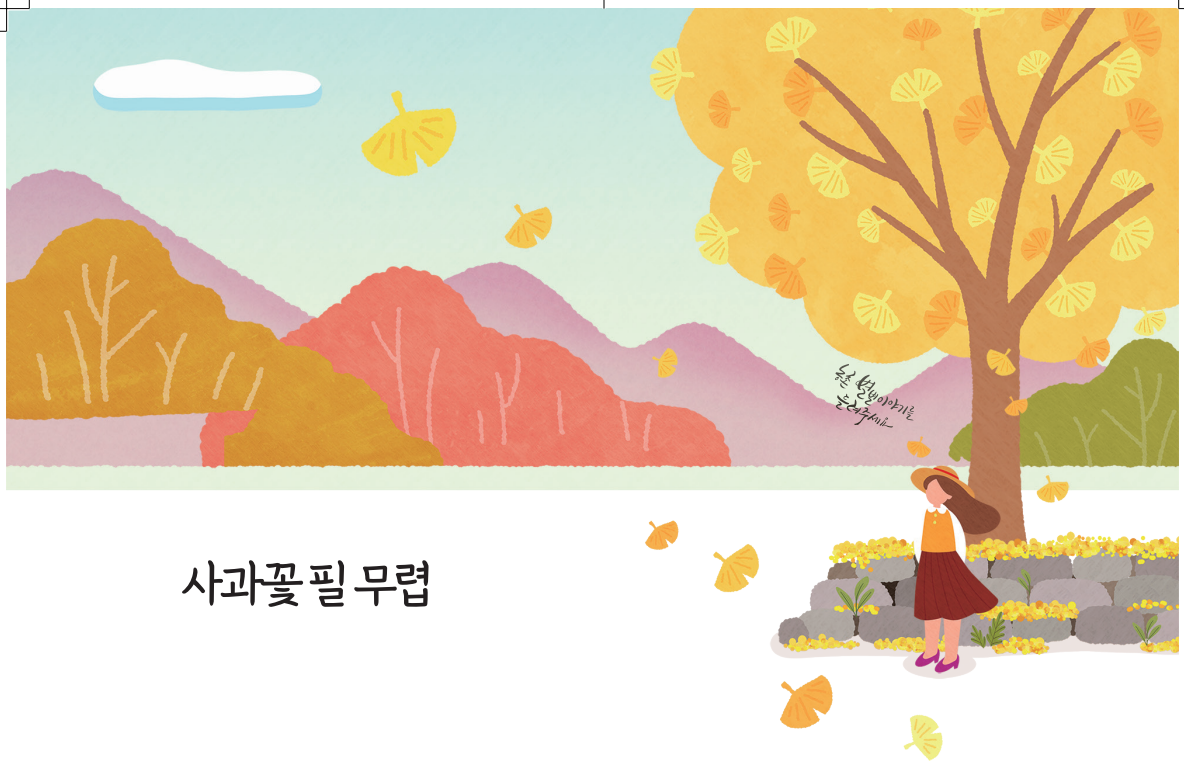
귀농한 지 만으로 5년이 되었다. 이곳에 정착하고 여성 농업인으로서 길을 걸어가기 위해 계속해서 땅을 일구고 넓혔다. 마을 주민이 되기까지, 농민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단 하루도 힘들지 않은 날이 없었다. 이불속에 얼굴을 묻고 숨죽여 울기를 몇 번이나 했던가. 하지만 늘 나를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기에 날이 갈수록 성장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도시 친구들은 나의 얼굴과 손을 보면서 슬픈 눈을 감추지 못했지만 난 이대로의 내가 좋다. 이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 매일매일 남는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다. 저녁 시간을 배움의 시간으로 활용하여 야간에 원광보건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심화 과정까지, 4년간 다녔고 지금은 졸업했다. 육체적 일을 하고 저녁에 학교에 가는 일은 너무나도 고된 일이었다. 그런데도 즐거웠다. 인간과의 관계 형성, 우리가 지역사회에 사는 것, 현실과 직면한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을 배웠다. 나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순해졌으며 어느 순간 어떠한 것에도 수용하는 범위가 넓어졌음을 느꼈다. 비로소 이제야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았다.

난 익산 웅포의 땅을 사랑하고 이 지역이 좋다. 중학생 사춘기 아들은 대학생이 되었다. 아직도 웅포에서의 중학교 시절이 그립고 좋다고, 정말 학교 즐겁게 다녔다고 한다. 이 친구들과 지금도 교류하며 사회에 나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으로 자립하기 위해 무던히 노력한 날

용프고장 가람들녘
자연을 담은 농업·도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농촌

들을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다.

이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도농 교류 활동에 자연 속의 농업, 자연과 어울림, 치유농업의 요소를 접목하여 생활 속에 지친 사람들의 삶을 위로하며 정서적인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기획하여 다시 농촌으로 손님을 맞이할 발판을 다지고 있다. 농업의 나아갈 방향과 미래, 그리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개발하여 농촌의 발전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 계속 꿈꾸며 도전할 것이다.



사과꽃 필 무렵

박종임

나는 시골에서 살 생각도,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생각도 전혀 없었다. 귀농 귀촌이란 말도 사용하지 않았던 25년 전, 귀농을 생각하던 남편이 안성농협 교육원에서 '돌아오는 농촌 과정'이라는 교육을 받고 오더니 지인과 함께 충북 괴산의 땅을 샀다. 남편은 1년 먼저 내려와 주변 숙소에서 숙식하고 서울에 오가며 주민들도 사귀고 농장 일도 도와주는 일을 했다. 남편이 구입한 땅은 사과나무가 있는, 노부부가 운영하던 농장이었다. 사과 과수원을 매입했지만 우리는 사과 농사를 지을 엄두도 못 냈고 할 생각도 없었다. 서울에서 하던 일을 하며 가끔 오고 갈 계획이었다. 그래서 노부부께 계속 과수원을 도지 없이 그냥 하시라고

약속하고 땅을 매입했다.

그런데 계속 농사하기로 약속했던 노부부가 갑자기 농사를 안 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하셨다. 나무는 1년만 가꾸지 않아도 다 죽는다고 했다. 사과나무가 죽어가는 것을 볼 수는 없어서 우리는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고 무엇하나 정든 것 없는 외딴 산골 그야말로 땅도 설고 풀 한 포기 돌멩이 하나 낯선 곳으로 이사를 했다. 그때부터 나의 고행은 시작되었다. 아니 또 다른 삶이 시작되었다.

컨테이너에서 시작한 시골 생활

괴산으로 내려오기 전, 서울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우유병 물린 채로 어린이집에 보내고, 함께 가게를 운영했다. 아이들과 시간을 가져주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해하며 너무도 열심히, 여유 없이 살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기회를 통해 시골에 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고, 한 3년 동안 쉼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가족들과 친정어머니께서는 반대를 많이 하셨다. 남들은 서울로 가는데 왜 서울에서 돈 잘 벌고 직업도 있는데 그 촌구석으로 가느냐고. 정말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시골로 오기로 했고, 사과 농사를 시작했다. 사과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과가 어디에 달리는지, 사과의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빨갛게 열린 사과가 마냥 예쁘고 신기할 뿐이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다가올 삶의 무게가 내 어깨를 짓누를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급히 오느라 집을 따로 알아보지 못해서 노부부가 살고 계시던 농막 같은 집을 고쳐서 살기로 했다. 농막을 수리하려고 보니 벽돌담이 흔

들흔들 곧 쓰러질 것 같아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컨테이너 두 개를 갖다 놓고 이삿짐을 풀며 시골 생활이 시작되었다. 남편은 미안했던지 한 3년만 살다가 집을 짓자고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컨테이너에서 16년을 살았다. 여름엔 정말 덥고 겨울엔 또 추워서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은 집이 바로 컨테이너 집이다. 어느 해 겨울은 너무 추워서 집 안에 있는 수도가 얼어 아침밥을 할 수가 없어 드라이기로 수도를 녹여 밥을 해 먹기도 했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나에겐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졌다.

녹록지 않은 사과 농사

큰맘 먹고 시작한 사과 농사마저 녹록지 않았다. 사과 농사는 일반 농사하고 달랐다. 작물을 키우는 밭이나 논농사는 가을에 수확하고 나면 한겨울은 쉬면서 일년내 농사하느라 지친 몸도 충전하고 봄이 오기 전까지는 시간적 여유도 있다. 그러나 사과 농사는 일 년 내내 일해야 했다. 12월부터 시작하는 사과나무 가지치기는 하얀 눈이 쌓인 눈밭에서도 해야 했고, 땅에 떨어진 가지를 수거하는 작업은 정말 힘든 일이다. 찬 바람이 쌩쌩 불어 얼굴도 얼고, 손도 시리고 발은 동상이 걸리기도 했다. 그렇게 봄이 오는 3월까지 사과 가지치기를 하고 나면 또 어느새 사과나무에 꽃눈이 살포시 눈을 뜬다. 꽃망울이 커지면 꽃도 따줘야 하고 열매가 달리면 열매도 솎아 주어야 한다.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의 연속이었다. 힘들어서인지 사과 농사를 하면서 우린 참 많이 싸웠다.

어느 날은 비가 와서 사과나무가 쓰러졌다. 사과가 주렁주렁 달려 쓰러

진 나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무겁다. 그 무거운 나무를 늘 둘이서 세우곤 했다. 비가 억수같이 온 다음 날, 그날도 둘이서 죽을힘을 다해 사과나무를 세우는 데 남편은 나보고 힘을 쓰지 않는다고 잘못한다고 화를 냈다. 나는 차라리 나를 사과나무 밑에 묻어달라며 펑펑 울었다. 그만큼 사과 농사는 힘들고 낯선 곳에서 하루하루 삶이 너무 버거웠다. 그런 상황에서도 자연의 순리는 변함이 없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달리고, 여름을 지나 가을이 다가오더니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가 영글었다. 그렇게 1997년 사과 농사를 시작하고 첫 사과를 수확했다.

첫 사과를 수확했지만

첫 수확을 하고 어디에 팔아야 할지도 몰라서 나는 사과를 나무상자에 담아 화물 포터에 싣고 무작정 옛날에 살던 동네를 찾아갔다. 공판장에 가야 하는 것도 몰랐고 아는 사람한테 팔 생각만 했다. 2년을 그렇게 했는데, 계속 부탁하기도 미안했다. 그 생각에 어떻게든 판로를 찾아봐야지 생각하던 중에 농림부에서 전국에 있는 109개 농가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당시에 컴퓨터도 켤 줄 몰랐던 나는 무엇이든 해야겠다는 생각에 덜컥하겠다고 대답했고, 수원까지 교육을 다니면서 지금의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하지만 사과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를 만들었지만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홈페이지를 알리는 전단을 만들어서 서울 삼성역 지하철 출구에서 돌렸다. 전단을 뿌리치고, 수없이 외면하는 사람들, 받았지만 한 걸음도 안 가서 내가 보는 앞에서 구겨서 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눈물이 났다. 그럼 어떻게 해

야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올까 고민하다가 홈페이지 한 곳에 '선녀의 전원일기'를 만들어서 나의 사과 농사 이야기를 올렸다.

하나둘 상자 주문이 오면, 얼굴은 모르지만 내가 키운 사과를 먹어주는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정성을 다해 택배를 보냈다. 그렇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 주면서 점점 사과를 찾는 분들이 늘어났다. 하지만 아직 수익을 내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나는 사과 농사를 짓고, 남편은 서울로 일을 다녔다. 아오리 사과도 같이했는데 어느 날 자고 나면 사과가 떨어져 있고 나무 밑에 사과가 수북이 쌓여있었다. 왜 그런지도 모른 채 떨어진 걸 주위다가 팔지도 못하고 동네 분들께 나눠주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아오리 사과는 익으면 낙과가 되니까 그 전에 따야 하는데, 따는 시기도 모를 만큼 나는 초보 농부였다.

자나 깨나 사과 생각

고민이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로 가야 할지 아니면 이곳에서 계속 사과 농사를 지어야 할지 말지 말이다. 한 3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우리는 결심했다. 서울로 갈 때 가더라도 사과 농사를 제대로 한번 지어보고 떠나자고. 그때부터 남편은 서울로 일하러 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우리는 모든 걸 사과 농사에 걸었다. 괴산에서 수원 농촌진흥원까지 교육을 다녔고 전국의 농가들을 찾아다니며 사과 농사 공부를 했다. 오로지 사과나무만 생각했다. 앉으나 서나 누워서까지도 사과 생각만 했고 온갖 대화는 사과나무 이야기와 사과 농사뿐이었다. 나는 사과 농사 틈틈이 사과를 활용해서 만들 요리법을 배우러 다녔고, 각종 자격증도 땄다. 그렇게 10년을

하니 조금씩 나무도 변하고 사과 농사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다.

다양한 재배법을 공부하면서 우리 땅에 맞는 방법을 찾았고 지금의 아삭하고 과즙이 풍부한 사과를 키울 수 있게 되었다. 또 자연 덕분에 사과를 키우고 사니 되도록 자연에 해롭지 않게 농사를 지어보자 생각했다. 우리 농원에서도 화학 비료 대신 퇴비를 만들어 사용하고, 풀을 길러 깎아주는 초생재배를 하기로 했다. 비탈진 사과밭에 풀을 길러 깎는 일이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농부가 되어보자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기후 위기가 온몸으로 느껴지는 요즘은 힘들어도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고생한 보람만큼 사과 맛도 더욱 좋아졌다.

사과가 맺어준 인연

가을 농원 사과 맛을 다시 찾아 주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사과로 맺어진 인연도 생겨났다.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은 독일 파독 간호사로 한국에 오셨다가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분이다. 우연히 방송을 통해 가을 농원 이야기와 사과를 보고 사과를 주문하셨다가 나와 친해져서 언니 동생처럼 지냈다. 사과밭에 오고 싶어 하셨는데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렵다고 하셔서 내가 모시고 와서 2박 3일 동안 이곳에서 지내다가 가셨다. 한동안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하늘나라로 먼 여행을 떠나셨다고 한다. 꼭 한 번 더 오고 싶어 하셨는데, 재활 운동하시고 걸으실 수 있게 되면 모시러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다시 뵙지 못한 채 보내드린 게 두고두고 마음이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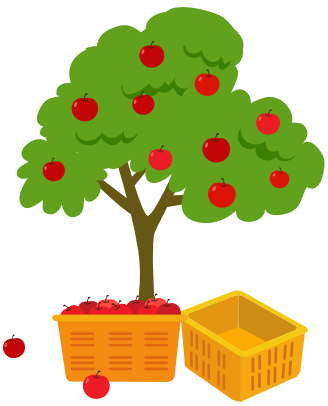
또 사과밭에 찾아오는 아이들도 귀한 손님들이다. 사과 따기 체험하러 오는 유치원, 어린이집 아이들, 부모님과 함께 오는 아이들을 보면 지난 시절 내 아이들에게 못 해준 기억이 떠올라 나는 유독 마음이 더 기운다.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지고 여행도 좀 다니자고 했던 약속은 사과 농사를 짓느라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지금도 가장 미안하고 후회되는 것이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이기에 사과 따러 오는 가족들에게 많이 놀러 다니세요, 같이 함께하시라고 말한다. 아이들이 다 자라 시골을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컨테이너 집을 벗어나 우리 집을 지었다. 사과 농사꾼으로 살면서 아이들과의 소중한 추억은 잃어버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자산인 사람을 얻었다.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농부인 친구들과 한 알의 사과로 이어진 분들은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값진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들이다. 힘든 농부의 삶이 나에게 남겨준 정말 소중한 보물은 바로 사과가 이어준 인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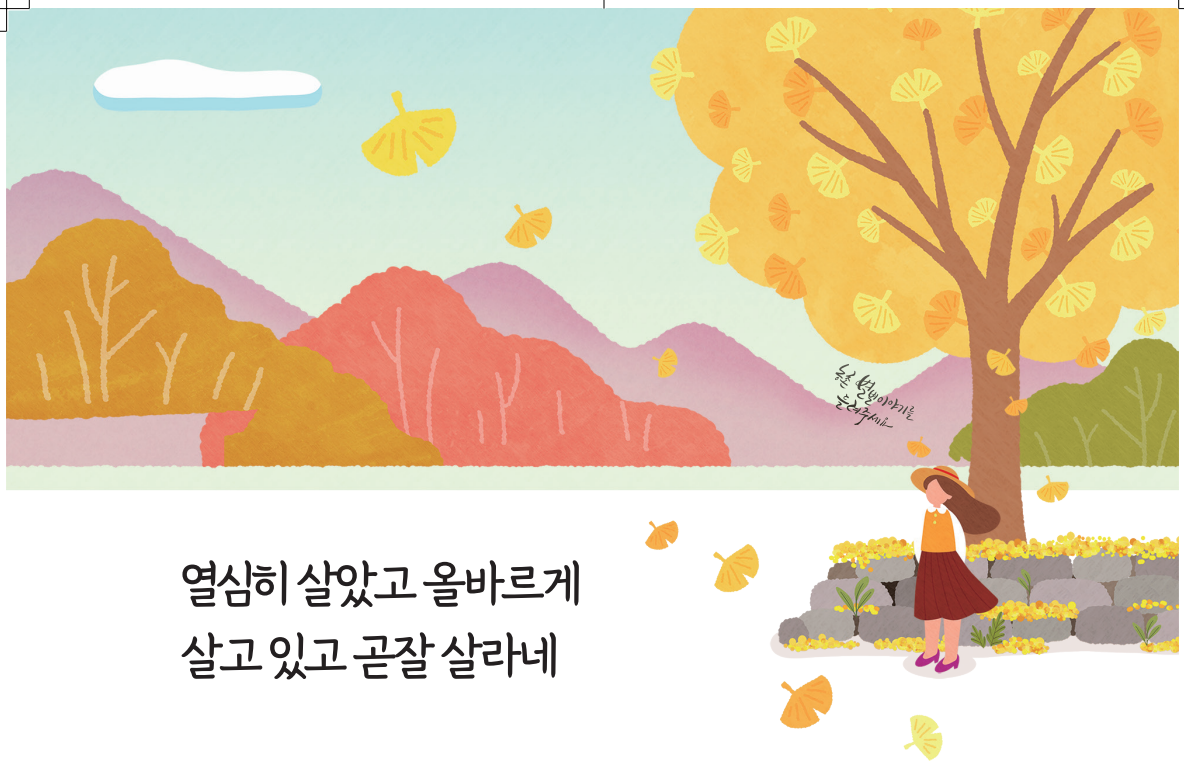
나는 천상 사과 농부

한때는 사과꽃 딸 때면 손톱 밑이 새까매져서 누가 악수하자고 하면 손 내밀기가 부끄러워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누가 나한테 악수하자고 하면 어쩌나?' 고민하곤 했다. 지금은 부끄럽지 않고, 참 많은 일을 한 내 손이 자랑스럽다. 처음 홈페이지를 만들 때만 해도 컴퓨터도 못 켰던 내가 지금은 유튜브에 사과 농사 영상도 혼자 찍고 편집해서 올리고, 젊은 사람들이 한다는 인스타도 하고, 블로그에도 틈틈이 글을 올리며 사과를 통해 소통한다. 대학로에서 열리는 마르쉐라는 장터도 처음 나갔는데 너

무 신기해서 눈이 휘둥그레졌다. 1톤 화물차를 혼자 운전해서 직접 부스를 설치하면서 자신감도 생겼고, 농사만 짓다가 사람들을 만나니까 기운이 났다. 누가 우리 집 사과 맛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25년 전, 이곳에 온 때가 4월이었다. 사과꽃 필 무렵이었다. 그때는 내가 저 꽃에서 사과 열매를 볼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 온 천지가 사과밭이 되었고, 나는 그 사과밭의 농부가 되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사과지만 또 사과꽃을 보면 여전히 예쁘고 설레는 건 어쩔 수가 없다. 남은 삶도 여전히 사과와 함께, 사과 농부로 살아가고 싶다.





열심히 살았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라네

유명숙

객지 생활하다가 귀향했다. 십여 년 비어있던 시골집을 헐고 다시 지었다. 마을과 가장 잘 어울리는 농가 견본주택이다. 예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은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물을 담았다. 터를 돋우다 보니 이웃과 좀 불편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개인의 이익 앞에서는 한 치 양보가 없다. 뻔히 비 오면 물 담는 줄 알면서 낮은 터에 그냥 지을 수는 없지 않은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다.

시골 태생이지만 남편의 직장 따라다니다 보니 농사일이 서툴다. 사백 평정도 되는 자드락에 밭농사를 짓는다. 한 면은 산과 붙어 있고 세 면은 도랑을 끼고 있다. 원래 있던 감나무, 자두나무, 대추나무는 나이가 들어

부실하다. 나이보다도 약을 안 치니 익기도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거다. 수확량이 적어도 우리 먹을거리니 하고 그냥 버틴다. 한창 자두가 익을 땐 온 나무에 붉은 꼬마전등을 켠 것 같았다. 아이들이 어릴 때 심었으니 꽤 나이를 먹었다. 지금은 수문장 노릇만 한다.

멧돼지는 수시로 주인을 데리고 논다. 몇 해 단호박, 옥수수, 고구마를 심었더니 사정없이 갈아엎어 놓았다. 어느 해는 너무 아까워 단호박과 옥수수를 다섯 그루씩만 심었다. 그해 멧돼지는 내려오지 않았지만, 너무 수가 적어 먹을 게 없었다. 지금도 한 해 거르거나 연이어 나타나 혼란스럽게 한다. 고라니는 콩잎이 나올 때부터 입을 대고 열매 맺을 때까지 줄기만 남겨두고 먹는다. 이것저것 빼고 나니 심을 게 없다. 현수막을 얻어와서 울타리를 치고 김장거리를 심는다. 남은 터는 고사리 뿌리를 묻었다. 두어 해 지나니 용수철 같은 순이 올라와 가슴 두근거리게 하더니 해가 갈수록 세를 넓혔다.

오육 년 지나니 심을 때 면적보다 두 배나 늘었다. 고개 숙이고 올라오는 모습이 부끄럼 많은 새색시 같아도 고개를 들면 영판 한몫하는 아낙 자세다. 고사리 사이를 까치발로 다니면서 눈을 맞춘다. 몸을 낮추어야 잘 보인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지나치기 쉽다. 지나간 자리를 되돌아보면 다시 보이는 게 고사리다. 낮에 가면 이슬이 깨어 옷을 버리지 않지만, 보풀이 호흡기를 자극해 괴롭다. 해 질 녘에 가면 딱 좋은데 삶아 널기까지 집안일과 겹쳐 바쁘다.

꺾는 시기가 중요하다. 부드러울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자주 밭을 오르내려야 한다. 시골에 살지만 옳은 농사꾼이 아니다 보니 선물할 작물이

마땅하지 않다. 손이 많이 가지만 삶아 말려 두었다가 지인들에게 선물하기 좋다. 처음에 고사리가 올라오면 눈에 어른거려 하루가 멀다 않고 밭에 오르내린다. 시일이 지나면 인간이 간사해서인지 처음의 호기롭던 마음과는 달리 밭에 가는 횟수가 줄어든다. 합리화시키며 미적거리다 시기를 놓칠 때도 있다. 해가 갈수록 고사리가 자라는 면적은 넓어져 힘에 부친다.

그런 나를 고사리는 새순을 밀어 올려 밭으로 부른다. 불러 주는 고사리에 허리 굽히며 "고마워" 좋아하는 지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어 "그 또한 고마워."

주인이 게으름을 피워도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세상에 얼굴 내밀어 줘서 "정말 고마워." 그러다가 나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는 의미로 멋쩍지만 흥얼거린다. 일종의 노동요인 셈이다. 정해진 곡조가 어디 있겠는가? 어느 날은 육자배기가 되다가 어떤 날은 폭스트롯이 되기도 한다. 그것마저 힘이 들면 "고사리 고사리" 중얼거리며 힘듦을 날려 보낸다.

어린 고사리의 힘찬 의지를 보며 삶을 더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꺾는 작업이 허리 아프고 삶아서 말리는 과정이 힘들어도 나에게 잘할 기회를 주는 고사리가 고마운 거지. 갈무리한 고사리를 봉지에 나누어 넣을 때가 제일 즐겁다. 봉지 개수가 많아질수록 행복하다. 내년에도 꾀부리지 않고 고사리 찬가를 열심히 불러야겠다.

두릅, 가죽나무를 심어 철에 맞는 음식을 만들어 나누어 먹기도 한다. 감자와 양파, 배추, 무는 해마다 먹을 만큼 재배한다. 김장을 넉넉히 해 노인들과 나누어 먹는 게 시골 생활하면서 느끼는 뿌듯함이다. 가장 기본

적인 양념은 농촌 경제활동에 일조한다는 의미로 콩, 고추, 참깨는 이웃 노인에게 사 먹는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받는 이야기할머니 활동비로 가능하다. 그러기 전에는 남의 밭에 잘 익은 고추와 조랑조랑 달린 깨꽃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재배도 해 보았다. 농약을 안 치니 되는 작물이 없었다. 잘할 수 있는 일로 못하는 일을 대체하면 되지. 마음을 비우니 좋다.

칠순이 넘었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청춘에 속한다. 육십 대 아낙들은 시설재배하느라 더 바쁘다. 노인들이 고추 딸 때나 참깨 대를 베고 단을 묶을 때 잎 훑는 일을 도와드린다. 고구마 줄기를 따거나 캘 때 손을 거들면 줄기도 얻고 고구마를 살 때 덤을 얹어 준다. 쪽파를 뽑아 단을 뭉친다. 열무도 뽑아 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탠다. 그게 어딘가. 일이 서툴다고 밀어내지 않고 받아주시니. 일을 도와드리면서 농사일을 배우는 거지. 처음에는 하루 일하고 이틀을 쉴 정도로 몸살을 했다. 자꾸 하다 보니 몸이 여물어진다. 사람 사는 이야기도 듣는다. 툭툭 던지는 노인들의 말씀이 인생 지침서다. 살아온 이야기가 간증이고 시고 수필이다.

밭이나 마당 잔디에 제초제를 안 친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풀과의 전쟁이다. 농약방 앞을 지날 때마다 제초제를 사고 싶어 얼쩡거린다. 사 놓아도 약을 안 칠 게 뻔하다. 남편은 화학공학과 출신이다. '지구를 살리자' 슬로건을 앞세우면 내 의견은 단순히 편하자고 내놓는 작은 불평에 거치고 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말씨름에 매번 진다. 도리가 없다. 밭이나 마당에 온갖 벌레가 다 모인다. 감자 이랑을 더듬거나 호미질하다 꿈틀거리는 지렁이가 나오면 호미를 냅다 던진다. 그건 십 년 전이나 지금

이나 마찬가지다.

고랑에 앉아 부부가 한 구멍에 참깨 너덧 알씩 떨어뜨리는 작업을 며칠 동안 한다. 모두 올라오면 솎아주고, 실패하거나 모자라면 또 뿌리고 하더니 어느새 꽃이 맺힌다. 윤이 나는 잎에서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는 듯하다. 아래로부터 오종종히 매달린 깨꽃이 하나하나 선한 등불을 켠다. 연분홍 꽃 색깔이나 모양새가 참 욕심 없어 보인다. 꽃이 지면 열매 맺히리라. 원기둥꼴의 열매가 익으면 누런 잎을 제거하고 깻단을 묶는 부부는 그 수고로움마저 즐거울 거다. 잘 말린 깻단을 거꾸로 들고 털면 '소소소' 양철지붕에 소낙비 떨어지는 소리가 나겠지. 생각만 해도 시원하다. 내 것이 아닌데도 배부르고 입꼬리가 올라간다.

자전거를 타고 약간 비탈진 곳을 오르다가 숨을 고른다. 모롱이에 좁고 긴 다랑이 밭이 있다. 밭 임자를 이사 온 그다음 해 봄에 만났으니 십 년 전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인은 별 변화가 없는데 나만 세월의 흔적을 남긴 것 같다. 노인은 굽은 허리에 고랑을 따라 궁둥이를 붙이고 끌고 다니는 품새가 똑같다. 비가 올듯하여 고구마 순을 심는다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검은 비닐을 씌운 구불구불한 두둑에 쇠꼬챙이를 비스듬히 찌르고 빼낸 뒤 고구마 순을 밀어 넣고 누른다. 내가 노인의 손에 든 꼬챙이를 받아 시키는 대로 남은 두둑에 고구마 순을 다 넣을 때까지 그 자리에 앉아 감독한다.

일을 끝내고 고랑에서 유모차가 있는 곳까지 부축해 드리자 입을 연다. 집에 있는 아이가 고구마를 좋아한다고. 내가 알기로 그 아이는 육십을 바라본다.

"걔는 집안일을 잘해. 밥하고 세탁기 돌리고. 나는 바깥일을 잘하고"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아들이고 어머니는 궁둥이를 밭고랑에 끌고 다니며 일하는데 아들은 집안일을 잘하고 노인은 바깥일을 잘한단다.

"해마다 고구마 순을 심으며 내가 죽으면 거둘 사람 없는 울 아들과 오래오래 살다가 같은 날 한 시에 묻히게 해 달라고 빌어"

그렇구나. 하루하루가 힘들지만, 그 염원이 노인의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구나. 노인의 뒷모습을 배웅한다.

여든이 훨씬 넘은 노옹이 애마인 트랙터를 타고 무논을 종횡무진한다. 종일 이 논에서 저 논으로 남의 논을 갈아 준다. 힘들지 않냐고 묻는 말에 "이 녀석이 날 호습게 한다오."

"우리 어렸을 때는 먹을 게 없어 굶기도 많이 했어. 지금은 누구나 부지런하면 먹고사는데 어려움이 없지. 움직일 만하니 움직이는 거요"

잠시 멈추고 다시 흙탕물을 일으키며 무논을 가른다. 그는 힘찬 노후를 갈무리한다. 논에서 밭에서 비닐하우스 안에서 구슬땀을 흘린다.

집 옆 밭에는 고구마 넌출과 잎이 이랑을 덮었다. 두둑에 외줄기 심은 것이 저리 덜퍽지다. 아래로 덩이덩이 달린 새끼에게 양분 나누어 주느라 허리가 접질려졌겠다. 거름 무더기 옆에서 샛노란 꽃을 피운 호박 넌출. 누가 맛집이라 소문을 냈나보다 벌써 벌들이 나든다. 실한 호박 키우려면 많이 벌어야 한다고 땡볕 아래 넓은 잎 쩍 벌려서 감사히 햇살을 받든다. 가던 걸음 멈추고 "수고 많으십니다" 공치사하고 말만으로 서운할까 봐 손을 쓰다듬는다. 고된 노동에 녹색 물 짙게 밴 거친 손이다.

햇살이 있기에 바람이 고맙고 그늘을 반긴다. 근엄하게 굵어지는 깻대와 거름더미 곁에서도 잘 자라는 샛노란 호박꽃처럼 순일해지는 거다. 쓸데없는 걱정으로 마음 흔들리지 말고 받은 사랑보다 더 돌려주는 식물처럼 살아야겠다. 그것이 곱게 늙어가는 최선의 삶이다.

지나가는 나를 보고 밭에서 일하던 옆집 아지매가 손짓한다.

"필요한 거 있으모 빼다 무라쿵께" 봉지에 시금치, 상추, 쪽파를 주섬주섬 담고는 "먼저 간 우리 영감이 잔파 송송 썰어 넣은 양념장에 밥 비벼 먹는 걸 좋아했제" 혼잣말한다. 돌아앉아 소맷부리로 눈꼬리를 훔친다. 기억은 참 사소하고 느닷없이 찾아오는가 보다. 그 모습도 찰칵. 언젠가는 그분들의 말씀과 모습을 담은 액자를 만들어 전시하고자 욕심을 부려 본다.

이른 아침, 예초기로 논두렁을 손질하는 아들과 평촌댁이 있다. "든든하시겠어요?" "야, 시집와서는 시어른이 시키는 대로, 시어른 돌아가시자 남편하고 손잡고 했제, 남편이 저세상으로 가서 이제 아들을 지켜보는 기라"

그래도 기계가 들어가기 어려운 구석진 곳은 낫으로 평촌댁이 풀을 벤다. 잠깐 쉴 참에 살아온 이야기를 펼친다. 젊었을 때는 느긋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 물에 말아 후딱 먹어 치우던 버릇이 남아 지금 위장병으로 고생한단다. 막내아들을 바라보는 눈매가 초승달을 그린다.

마을에서 묵이며 두부를 만들어 오일장에 파는 신불 댁 작업장을 찾아갔다. 작업장이라고 하지만 가마솥 하나에 백솥을 걸어놓은 창고다. 도토리묵을 끓인다. 불 돌보랴, 묵 솥에 걸친 주걱 돌리랴 바쁘다. 불을 대신

문산노인대학

살피겠다고 하니 그것도 아무나 못 한단다. 센 화력과 뭉근한 불길이 필요할 때가 다르다. 또 재가 날리는 신문지나 짚은 안 되고 깻단 정도는 지펴도 괜찮다. 대신 묵이 밑에 눌어붙지 않게 젓겠다며 주걱을 받았다. 웬걸, 서너 번 저으니 팔이 돌아가지 않는다. 묵이 되직해질수록 더 힘이 든다. 끝내 혼자서 발로 불을 밀어 넣고 손으로 주걱을 돌리며 팥죽땀을 흘린다.

"시집와서 이튿날부터 주걱을 돌렸으니 오십 년이 넘었네. 묵고 살자고 돌리다 보니 이래 세월이 갔다 아이가. 그 심으로 새끼 여섯 키우고 영감 병수발 했제. 먹고 살라꼬 자꾸 하다 보니 잘하게 된 거고. 사는 것도 살아보면 잘살게 돼. 이 주걱이 내 맹줄이다 맹줄"

반쯤 닳은 주걱을 쉼 없이 돌린다. 온기를 뿜어내는 듯 젖어가는 그녀의 몸에서 김이 오른다. 그렇다, 보석도 갈고 닦아야 빛이 나고 진주도 꿰어야 보배다.

"잘 찍어라이. 우짜꼬 새 옷 입고 나오까? 참으로 오랜만에 분칠한다 아이가" 잊었던 분첩을 찾아 얼굴에 입힌다. 신불 댁이 활짝 웃는다. 연분홍 나팔꽃이 카메라 렌즈에 피어난다. 모시옷을 입고 이야기할머니 활동하러 가는 나를 보고 깻단을 털고 있던 노인이 "아이고 씨언컷소" "얼른 다녀와서 도와드릴 테니 더운 날은 좀 쉬세요" "더븐 날은 놀아도 덥제"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생각이 오간다. 양 겨드랑이에 자식들 품고 허리 한 번 펴지 못한 채 일만 하고 살아온 여인들. 그녀들이 땅에 쏟은 노동이 농촌 삶을 일으켜 세운 슬픈 지혜이자 처세이다. 가난에 순응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 일어선 이 땅의 개척자다. 햇볕을 등지고 앉았지만, 옷

은 이미 땀에 젖었다. 길쌈하던 동네라 삼베로 만든 등거리 몇 벌은 있을 텐데 편한 옷을 입고 있다. 왜소한 체구가 더욱 작아 보인다. 손질할 시간이 없단다. 다음에 내 옷을 풀 먹일 때 같이 손보아 주겠다고 말씀드렸다. 마음이 짠하다. 이제는 일손을 놓아도 좋을 때다. 허리 수술을 하면 쉬어야 하니 일을 할 수 없어 못 한다는 노인이다. 다음날 삼베 옷을 입고 웃을 듯 말 듯 웃는다. '찰깍 차르르' 오늘 하루만이라도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 바람 벗 삼아 쉬면 좋으련만. 그 뒤로 나는 덥다는 말을 덜 한다.

시누이는 세 아들을 두었다. 없는 살림에 시어른과 농사일에 어정잡이인 남편, 아이들을 돌보느라 외출할 시간이 없더란다. 시집갈 때 마련한 모시옷을 고이 간직했다가 손질해 입으라고 나에게 주었다. 시침한 실도 뜯지 않은 그대로였다. 고마움보다는 찡한 마음이 든다. 힘들어도 노인대학을 아홉 번이나 다닌 열혈 학생이다. 그미에게 배움은 촌부의 고단한 생활을 풍성한 삶으로 바꾸는 한 호흡이었다. 항상 감사와 고맙다는 말을 달고 사는 그미. 말속에는 향기가 있다. 책상 위에 졸업 메달을 펼쳐 놓고 활짝 웃는다. 뒷산 황토밭에서 캔 고구마를 이고 내려오며 "아이고 이제 다 왔다. 쬐끔만 참자이. 이제부터는 평지다"

그미의 입에서 인생 한마디가 해바라기 꽃을 피운다. 그 꽃은 살아오면서 수십 번을 피웠다. 웃음을 사진으로 담아둔다. 밭에서 고구마를 수확하는 이웃과 대화를 나누며 얻은 삶의 고갱이를 채록한다.

"농사는 잘됐습니까? 고구마가 실하네요"

"밭농사, 논농사 쉬운 기 없구나. 자식 농사가 기중 에러버"

툭 던진 한마디로 얼굴을 붉힌다. 그렇다, 농사 중에서도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렵다. 단지 어렵다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할 뿐이다.

지금이라도 일손을 놓고 무더위 쉼터를 찾아도 누구 하나 눈총을 주거나 나무랄 사람 없건만 손길을 멈추지 않는다. 굳이 노구를 움직여 일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내려놓으면 좋으련만. 항상 바쁘게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오래된 관습에서 벗어날 때도 된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나이다. 일손을 내려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던 마음을 더 늦기 전에 흔들리지 말고 놓아주기를.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아주 작은 편안함을 원하는 자신을 지켜 주기를. 오늘 하루는 삼베 등거리 입고 정자나무 아래서 부채 바람이라도 쐬면 좋겠다. 그늘 짙은 나무 아래서 고단한 노축 모습을 남긴다.

노온이 쑥을 캐고 있다.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무겁고 버거워 오르기를 포기했단다. 휑하니 한 바퀴 돌고 내려오니 그때까지 주변을 맴돌며 제법 한 움큼이 될 만큼 쑥을 캐 놓고 쉬고 있다. 눈이 삼삼해서 그만두었단다. 국을 끓이기에는 모자라는 양이라 손을 거든다. 옆에 둔 지팡이가 내가 자주 사용하는 것이라 했더니 쑥을 캘 동안 다른 칼로 손잡이 부분을 다듬어 내민다. 내 전용 지팡이가 된 셈이다. 노인들이 짚기로는 무겁고 길이가 길다.

지팡이는 노년층을 건강한 삶으로 이끄는 세 번째 다리라고 하지 않던가. 시골 노인들은 신체 균형이 흐트러져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많다. 고된 노동으로 인해 척주기립근이 위축돼 허리가 굽은 노인이 대개라 오를 때보다 내려올 때 더 요긴하게 쓰인다.

몸을 지탱하기 위해 짚는 지팡이가 필요하다. 마음을 다잡아 바로 세울 수 있는 지팡이도 중요하다. 노온은 그날 처음 만난 나에게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재워 두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수제비처럼 뜯어낸다. 몇십 년 동안 쟁여 둔 사연은 윗물을 따라낸 전분처럼 더 단단하다. 어린 자식을 잃은 사연을 풀어내는 노온은 애절한 마음을 눈빛에 담기도 하고 몸짓으로 끊어질 듯 이어가다 간간이 말을 아끼기도 한다. 말이 끊어질 때는 마음이 조급해도 재촉하지 않고 같이 숨을 고르며 기다린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다가 같이 눈시울을 붉힌다.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마음처럼 짓무른 눈꼬리가 젖는다.

"내가 처음 본 양반한테 별소리를 다 하네. 그런데 동굴 같던 속이 뻥 뚫린 것 같아"

낯설었기에 편했던 건 아닐까. 참으로 내뱉기 어려운 이야기를 풀어 놓다니. 여럿이 움직였다면 나에게 이야기를 풀어놓지 못했을 거다. 서로 낯설었기에 가능했으리. 서로 시간이 맞지 않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을 오르지 못할 때가 많다. 미안한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이제 마음이 홀가분하다. 쓰임에 따라 모양과 재질이 다른 여러 지팡이가 있듯이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흔들리는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말벗이 되는 것도 지팡이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어머니이기에 굳게 참고 여기까지 왔을 테다. 작은 몸매에 여린 마음, 약한 것들로 이루어진 노구로 버티어 온 것이 장하다. 거칠고 투박한 손을 잡고 토닥인다. 그 울림이 도리어 나에게 전해진다. 누군들 맑은 날만 있으랴. 세찬 바람에 나무가 꺾이고 또 어떤 날은 장대비가 쏟아져 흙이

떠내려갈 때도 있다. 그런 날이 지나면 햇살 쨍한 날도 있지 않던가.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의 떠들썩한 소리가 바람 앞세우고 온다. '토옥 톡 타악 탁' 내딛는 지팡이 소리가 삶의 무게만큼 다양하다. 멀지 않는 나의 모습이다. 몸과 마음이 어긋나지 않게 바로 세우라는 지팡이의 가르침을 듣는다.

노인들은 사람 책이다. 사람 책들 속에서 십 년 넘게 공부했으면 책거리해야 하지 않겠나. 초등, 중학 문해교육 연수 과정을 마치면 어르신들의 학력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참여할 예정이다.

"내 살아온 기 소설책 몇 권은 될끼다"

노인들이 자유자재로 그림을 그리고 줄 글로 일기도 쓸 수 있도록 현실로 다가올 그날을 위해 맘을 흘린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책거리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적정 문화도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되어 열심히 살아왔고 올바르게 살고 있고 곧잘 살 시골 노인들을 모시고 당일 온천이라도 다녀오면 좋겠다.

쌀귀리 농사를 짓다보면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유순복

제 시어머니는 강단 있고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다가가기가 쉽지 않아 시어머니 앞에 서면 늘 제가 작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잦은 내원으로 농사일을 못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천에 있는 시어머니 집에서 생활하면서 농사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영농'이라는 말이 생소한 저는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몰라서 막막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소방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퇴근과 동시에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연천에서 분당 서울대병원까지 왕복하면 하루가 다 지납니다. 그래서 영농은 철저히 제 몫

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가 어려 육아까지 병행하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참고로 저의 아이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어른의 손길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저의 영농 인생은 시어머니께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단순한 일부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가 생소했습니다. 저는 1년에 두 번 전작(全作)과 후작(後作)을 했습니다. 전작은 쌀귀리를, 후작은 콩나물 콩을 경작하며 1년 내내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번 공모전 글쓰기 기회를 빌려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1년 2기작을 하는 영농인으로서 살아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누구에게 묻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농기구 창고 정리부터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주변에 있는 텃밭과 비닐하우스 제초 작업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은 관리가 편한 아파트가 아니라 1층 단독주택이어서 주변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농사일을 전혀 해보지 않은 저로서는 힘이 부쳤고 정리를 해도 일한 보람이 없을 정도로 표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고 바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힘들어서 남편에게 도움을 받고 싶었지만, 남편은 야간 근무를 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가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스스로 도와준 적도 있지만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도 쉬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018년 7월에 시어머니가 담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병시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곁에서 정성을 담아 수발을 들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오신 날이면 어머님은 기운이 없어 보였고 식사 거르기를 반복하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시어머니의 입맛을 찾아드릴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끼니마다 반찬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비록 제가 요리 솜씨가 뛰어나지는 못해도 반찬의 이름을 메모하여 순환하는 방식으로 밥상을 차렸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시어머니와 소통을 늘려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니 시어머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모르는 것이 생길 때마다 저는 시어머니께 물었습니다. 그때마다 "그것도 모르냐?"고 핀잔을 주실 때는 마음도 상했습니다. 그래도 '가르쳐 주시는 분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저 스스로 속상한 마음을 다독인 적도 많았습니다. '이런 게 시집살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서운한 생각도 순간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받고 오신 시어머니를 보면 잠시나마 서운한 마음을 가진 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항암제 때문에 퉁퉁 부어 있는 시어머니의 발에 온열 찜질을 해 드리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추었습니다. 찜질을 해 드리면서 저는 시어머니와 더욱 친해졌습니다. 찜질하는 동안 저는 영농 일과 장 담그는 법도 시어머니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맛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많아졌고 시어머니가 더욱 저를 신뢰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순간 당신의 아픈 몸을 생

각하시고 하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내가 몇 번이나 장을 담글 수 있을까?" 하셨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뜨끔해졌고 눈에서 눈물이 찔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감추느라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서서히 영농에 적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시던 농사 중에 쌀귀리 경작이 있었습니다. 저는 쌀귀리를 그냥 파는 것보다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에 가공해서 판매하는 것이 농가 소득에 훨씬 도움이 될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어머니께 말씀드렸고 법인의 대표자로 시어머니를 추천하였습니다. 항암 치료 중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사회적으로 더 많은 활동을 하시면 암을 이겨내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작은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시어머니 옆에서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경로당 봉사 활동을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지역 농산물 직판장도 다녔습니다. 사회 활동을 하시자 제 예상대로 어머니의 병세도 호전되어 항암 약을 30분용 주사만 맞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주사 대신에 경구용 항암 치료제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자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 의지를 갖추고 우리 영농조합법인에서 '강귀리삼팔오투'를 활성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로 뛰어다니며 홍보한 결과 연천군 먹거리를 책임지는 '전곡농협 로컬 푸드'에도 입점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로하신데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가공 교육을 수료하셨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의 병세가 호전되는 것만큼 저희가 만든 영농조합도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저희는 연천군에서 기온이 맞지 않아 경작이 안 되는 농작물에 도전해서 성공시키자는 꿈을 가졌습니다. 어머니의 창의력을 본보기 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시어머니가 '고부 여성 농업인'의 대표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홍보를 하고 매출을 신장시키고자 연천군청 농업정책과에 출입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영농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배우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르는 것은 군청의 농업 전문 공무원들에게 배우는 과정에서 저희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천군 농수산물 통합브랜드인 '남토북수(南土北水)' 인증을 받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남토북수 인증을 받으면 판로에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다니면서 신바람 나는 시간을 보내다가 2020년 6월에 남토북수 인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후 저희의 영농 사업은 크게 변했습니다. 첫째, 포장지에 남토북수 인증 마크를 인쇄하여 상품이 출하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상품이 신뢰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뿌듯했습니다. 둘째, '군청으로부터 온라인 상품 활성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홈페이지, 블로그, 인스타그램에서 다양하게 상품을 홍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 또한 세상에 다양한 농업 콘텐츠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셋째, 군납품 설명회에 초청되어 저희 제품을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쌓여 '소상공인 협의회 북부 상공회의소 가입'이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경기도 농업기술 센터에 쌀귀리 2기작에 대해 문의를 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얻었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농업기술 센터의 연

쌀귀리 농사를 짓다보면 시어머니와의 추억이 생각납니다

구 과제로 '쌀귀리 2기작'이 선정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연천군에서 쌀귀리 농사를 성공시킨 농가로 인정받아 '농촌진흥청 식량과학원'에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리하여 시찰단이 방문하는 등 연천군에서 쌀귀리 농사가 성공하였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낮에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연천군의 쌀귀리가 특산물임을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밤에는 '쌀귀리와 2기작'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며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온통 쌀귀리 농사를 성공시키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 자신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농사일이 서툴러서 막막했던 시골 아줌마였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변화가 오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제 모습을 시어머니도 좋아하셨습니다. 점점 나아지는 시어머니의 안색을 보니 안심도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담도암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졌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병원에서 폐에 전이되었던 암이 완치된 것 같다는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렇게 영농 일이 잘 풀리고 시어머니의 건강도 나아지자 제 안에 숨어 있던 열정도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연천군청이 연천군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공모할 때 응모하여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식인 센터 특허에 선정되어 쌀귀리를 시럽 제품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우리 영농법인에서 만든 포장 디자인이 심사에 계류 중인 것도 여러 개 있습니다. 쌀귀리 품종을 다변화하여 치매 예방 물질이 나오는 품종인 '대양' 경작에도 성공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역 공공 기관과 업체가 함께 하는 귀리 발전 협의체에서 우리 법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한 쌀귀리를 고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로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및 전곡 농협에서 로컬 푸드를 판매하면서 적은 매출이지만 성장하는 추세에 올랐습니다. 연천군 산업 단지 내의 여러 업체와 미팅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눈에 띄는 성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농업과 관련된 각종 지역 행사가 취소된 것은 잘나가던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시어머니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제 마음과 다르게 모든 것이 안 풀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원을 내방하거나 입원하는 날이 많아지고 2021년에는 척추 수술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거동조차 불편해지셔서 제가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 가며 간병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소변을 치우는 것보다 힘든 것은 '시어머니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이 생활한 5년! 제 시어머니는 동료 농업인이자 제가 친구처럼 따른 스승입니다. 농사를 모르던 저에게 남다른 열정을 깨우쳐 주셨고 농사의 멘토가 되어주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실까 봐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좋은 명약을 수소문하여 남편하고 찾아가 상담하고 약을 구해다가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약의 효능을 보는 것 같으면 기분 좋아졌고 희망도 생겼습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기를 10개월째 되던 때, 시어머니는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하늘은 왜 이렇게 나에게 깊은 시련을 주시는지 주저앉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답답함이 제 가슴에 울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 입원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퇴원하실 때는 잘 이겨내셨다고 생각했는데 병세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급기야 시어머니는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셨고 저는 옆에서 병시중을 들면서 곁을 지켰습니다.

적적한 날들이 이어졌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가르쳐주신 영농을 소재로 대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의 기운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이 제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담당 의사로부터 어머니가 오래 사시지 못할 거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2022년 6월 9일 제 앞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화환과 근조기,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이 남겨졌습니다.

착하게만 살아오신 우리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너무나 원통하고 속상합니다. 저와 농경지를 누비며 오래 살기를 기도했는데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저에게 잔소리하시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선합니다. 조금만 더 가족과 함께 사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시어머니를 시아버지 산소에 모신 지금도 시어머니가 옆에 계신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웃던 시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저는 지금 시어머니의 가업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쌀귀리 농사를 지으

면서 삽니다. 저는 농업에서 희망과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영농인으로 살아온 저를 돌아보는 것을 끝으로 하늘에 계신 시어머님께 마음의 편지를 써봅니다.

헛고생

임병숙

의식도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열흘 만에 먼 길로 떠나셨다. 삼우제를 치르고 눈물로 얼룩진 하얀 상복을 집 뒤에서 태웠다. 회색빛 연기가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고 집에 들어가니 남편이 하우스 안으로 들어갔다. 하우스 안에는 아버지가 뿌려놓은 고추 모종이 막 올라오고 있었다.

남편이 고춧모를 보며 말했다. “우리가 농사를 지읍시다.” 그 말에 깜짝 놀랐다. 남편은 직장을 다니고 우리 집에서 친정까지는 한 시간 정도 걸렸다. 나는 농사짓는 것을 반대했다. 직장 다니는 남편이 시간을 낼 수 없으니까 고추 모종을 그냥 버리자고 했다. 남편이 펄쩍 뛰며 말했다.

"아버님이 힘들게 뿌려놓으신 건데 이걸 어떻게 버려? 난 그렇게 못해."

남편은 농사를 짓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아버지를 생각하면 절대로 못 버리겠다고 했다.

그동안 10여 년 넘게 주말이면 친정에 가서 농사를 지어드렸다. 남편은 평일엔 직장으로 출근하고 주말엔 쉬지도 못하고 친정으로 가는 게 늘 미안했었다. 그래서 더 농사짓는 것을 반대했지만, 남편의 뜻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첫 농사는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것을 짓는 것이었다. 고추, 콩, 고구마, 들깨, 참깨 등 종류는 많지 않지만, 단둘이 하니까 땅이 무척 넓어 보였다. 십여 가구가 전부인 친정 동네는 전형적인 시골이다. 7~80대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일손을 구하기 어려웠다. 시내에서 용역일꾼을 부르면 인건비가 비싸서 농사를 지어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다. 우리는 주말마다 친정으로 가서 농사를 지었다. 그러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겼다.

힘들여 심은 고추 모종이 맛있는 것을 잘 아는 고라니가 제집 드나들듯 드나들며 똑똑 따먹었다. 고구마 모종을 심고 그다음 주에 가보면 단체로 와서 잔치한 듯 순을 모두 잘라먹었다. 땅속에서 콩이 간신히 싹을 틔우면 기다렸다는 듯 몰래 와서 보드라운 잎사귀를 똑똑 따 먹었다. 몸에 해로운 약을 가능한 한 치지 않고 하니 벌레들이 많았다. 마치 제 세상인 양 와글와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농사는 우리의 힘과 노력과 지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었다.

남편은 경운기와 이앙기 등 농기계는 모두 다루고 웬만한 일도 거의 다

하는 편이다. 하지만, 평생 농사만 지은 아버지가 몸으로 터득한 지혜는 쉽게 따라갈 수가 없었다.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먼저 고개를 내밀었다. 뽑고 돌아서면 나보란 듯이 또다시 올라왔다. 마치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잡초와 기 싸움을 하는 듯했다. 영양제를 일찍 치거나 너무 많이 쳐서 고추와 콩이 누렇게 말라 죽기도 했다. 결국 밭에 신경 쓰느라 못자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모를 비싼 값을 주고 사서 심었다.

그날도 밭에서 일하다 점심을 먹으려고 들어오는데 할머니들이 부르셨다.

"어이구 저 땀 좀 봐.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가게."

평소에도 땀을 많이 흘리는 남편이 땀범벅이 되어 걸어오는 모습이 안타까운 모양이었다. 남편이 지게를 내려놓고 할머니들 옆에 앉자 얼음을 띄운 냉수와 과일을 내놓으시며 "세상에, 얼굴이 익었네, 익었어. 일을 쉬엄쉬엄해야지, 이 땡볕에 무슨 일을 해.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라며 혀를 찼다. 한낮 기온은 삼십 도를 웃돌고 있었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낮에 일하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는가 보다. 할머니들은 연신 혀를 차셨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서 뭐가 남는다고 그 고생을 하나. 차라리 도지를 주는 게 낫지." 하는 말들이 쉴 새 없이 올라오는 잡초처럼 들렸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다. 평일에는 시간을 못 내고 주말만 가다 보니 한주라도 거를 수가 없었다. 바빠서 한 주를 쉬면 일거리는 배로 불어났고 잡초들은 신명 난 듯 기세등등하게 영역을 넓혔다. 그날 일을 마쳐야 하므로 달빛도 없는 어두컴컴한 밤에 간신히 끝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아무리 더워도 그늘

에서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했다. 품을 사게 되면 인건비가 비싸서 힘들어도 둘이서 악착같이 했다.

어린 시절 나의 꿈은 도시 친구들처럼 햇볕에 그을리지 않은 하얀 피부를 갖는 것이었다. 부모님을 따라 밭에서 일을 도와 드리다 보면 얼굴은 주근깨투성이고 손톱 밑은 시커멓게 때가 끼었다. 방학 때면 놀러 왔던 사촌들은 하얀 얼굴에 손톱 밑도 깨끗했고 반질반질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왔다. 사촌들은 자기들과 흑백으로 확연히 구분되는 나를 '촌뜨기'라고 놀렸다.

친구들을 만나면 나의 얼굴은 유난히 검게 보였다. 평소 화장을 즐기지 않지만, 일할 때는 화장을 진하게 했다. 아무리 화장을 진하게 하고 챙이 넓은 밀짚모자를 써도 얼굴은 주근깨와 기미가 생겼다. 지난여름부터는 오른쪽 다리의 신경이 아파서 병원에 다니기도 했다. 남편의 얼굴도 검게 그을리고 주름이 많아져서 농부로 보인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 무거운 걸 들을 때는 본인도 모르게 신음을 내며 팔을 부르르 떨었다. 일하고 돌아오면 진통제를 먹고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잠을 자지만, 농사짓는 게 즐겁다고 했다.

7월 말쯤 대지가 한창 뜨겁게 달궈질 때면 고추는 태양보다 더 빨갛게 모습을 드러냈다. 집에서 새벽 3시에 출발해서 미처 날이 새기 전부터 고추를 땄다. 한낮에는 현기증이 날 정도로 지쳤지만 쉬지 않고 해야 캄캄할 때 겨우 끝마칠 수 있었다. 얼마나 힘들던지 언제 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스치기도 했다.

동네 사람들은 농사는 하늘이 반을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 벼 이삭이

한참 통통하게 속을 채울 무렵 태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해보려는 것인지 논 한가운데는 삶의 희망을 잃은 듯 벼가 바닥으로 쓰러졌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연가를 내서 사흘 동안 벼를 세웠다. 진흙 범벅이 되어 하다 보니 벼 이삭은 허리를 펴고 섰지만, 우리가 쓰러질 것 같았다.

"그걸 어떻게 다 세우려고 그러나. 그냥 놔두지."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하며 우리가 내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을 거라고 했다. 벼를 세우는 것은 시간과 금전적으로 계산해 봐도 별로 남을 게 없다. 오히려 헛고생일 수도 있다. 미련하게 왜 이런 것을 할까 하는 회의도 들었다. 그러나 애써 가꾼 것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자식이 아무리 말썽을 부려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같은 것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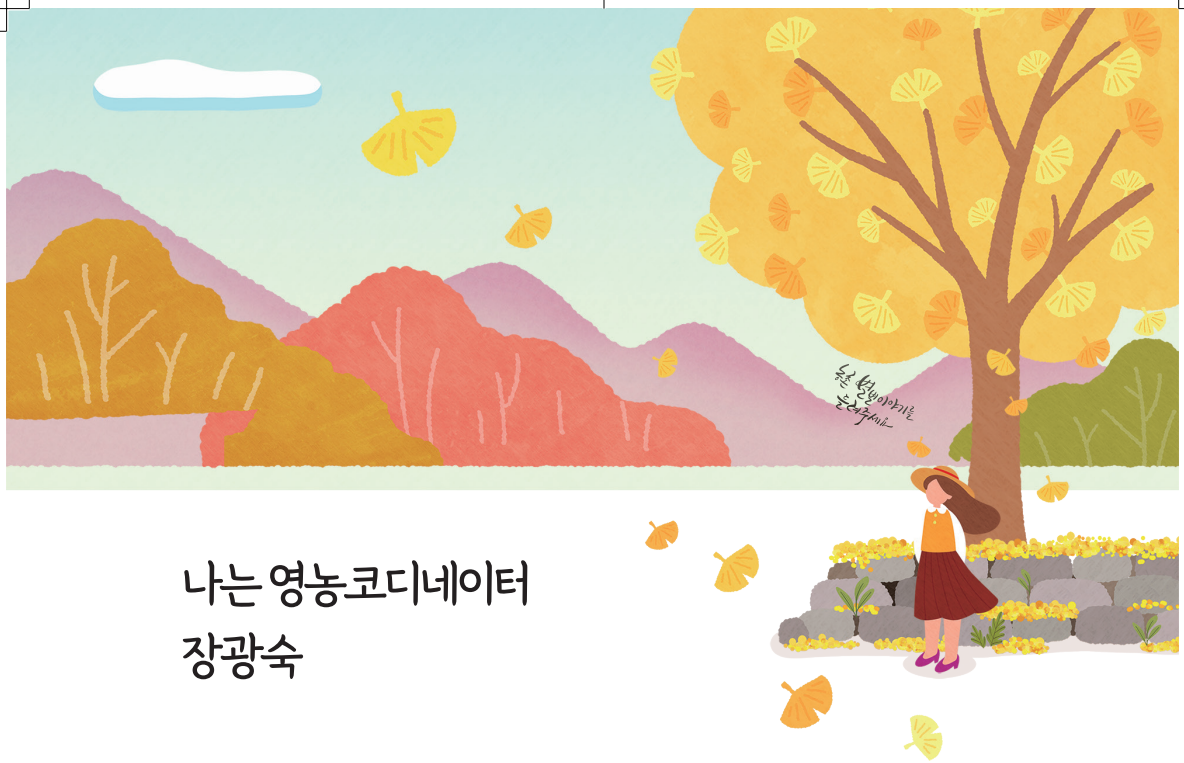
농사를 지은 첫해는 콩이 열리지 않고 빈꼬투리만 달렸다. 들깨도 알맹이가 별로 없었고, 고구마는 줄기만 무성할 뿐 고구마는 달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다음 해도 우리는 또다시 농사를 지었다. 마치 여성이 힘든 산고를 잊고 다시 아기를 낳듯이 또 농사를 지었다. 농사를 지은 지 십여 년 만에 남편도 정년퇴직해서 시골로 집을 옮겼다.

시골로 옮기고 나니 조금씩 시간 여유가 생겼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은 시내에 있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왔다. 책을 읽으며 문화생활도 즐기고 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힘겹게 일하고 있으면 우리 일은 미루고 얼른 달려가서 도와드렸다. 어르신들은 당신 자식들은 멀리 살아서 못 오는데 우리가 도와준다며 무척 고마워하셨다.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일까. 밭에서 일하다가 가끔 하늘을 바라보곤 한

다. 가식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늘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밭둑에 핀 작은 풀꽃도 가만히 들여다보곤 한다. 눈곱만큼 작지만 제 나름대로 고운 색상의 꽃잎을 갖춘 모습이 신비로웠다. 멀리서 들리는 새들의 지저귐도 전과는 다르게 들렸다. 전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면서 소중한 선물을 받는 느낌이다.

예전에는 부모님이 농사지은 것을 보내주면 별생각 없이 먹었다. 먹다 싫증 나거나 조금 상하면 미련 없이 버리곤 했다. 직접 농사를 지어보니 모든 게 부모님의 땀과 뼈마디의 신음이 만들어낸 결정체였다. 뼈마디의 이음새가 느슨하도록 고생했어도 부모님은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셨다.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땅은 온몸을 뒤틀며 자신의 수액을 모두 토해냈다. 그런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게 땅이고 부모의 마음이었다. 나 또한 내 부모님을 닮아가고 있다. 실하고 좋은 것은 아이들과 형제들한테 보내고 우리는 부실한 것을 먹는다. 그래도 행복한 것은 가진 것을 나누어주기 때문이다. 농사는 결코 헛고생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영농코디네이터 장광숙

장광숙

따사로운 봄 햇살에 산굽이에 숨어있던 잔설이 녹아 졸졸 소리 내며 흐르던 어느 날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정적을 깼다. “여보세요? 회장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농림부에 응모한 영농여건개선교육 사업이 선정되었대요.” 횡성여성농업인센터장인 한영미 소장이 들뜬 목소리로 흥분해서 나에게 전화했다.

“어머, 그래요? 잘됐네. 축하해요!”, “그런데 어쩌죠? 이제부터 많이 바빠지실 거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그리 바쁠까, 하면 되겠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 그러나 그건 나의 큰 오산이었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애초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회의를 통해 마을지킴이 활동가교육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과는 별개로 이들을 중심으로 횡성에서 자체적으로 영농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자고 얘기가 됐었다. 때문에 단체별로 2명 이상 강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하고, 단체장들은 의무적으로 활동가 교육을 받고 있던 터라 만만하게 생각했다. 마을지킴이 활동가 교육 안에는 영농여건개선 교육 시연, 성평등 교육, 강의 기법, 플워크숍 등 교육내용이 좋아서 처음부터 신이 났었던 기억도 있다.

하지만 막상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며 농사철이 닥치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교육 시간조차도 부담스러웠다. 단체장으로 체면도 있고, 함께 한 협의 사항도 있으니 빠질 수도 없어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협의회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끼며 교육에 참석하였지만 바쁘고 피곤한 탓에 짜증이 올라오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회원은 처음엔 18명 정도였으나 수료한 회원이 12명이었다. 이른 봄에 시작했지만, 농사 준비와 겹치면서 낙오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다. 회장이라는 책임감이 아니었다면 나 역시도 무사히 수료하지 못했을 것이다. 바쁜 농사일과 교육을 병행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다.

중앙에 서서 교육하는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나도 강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었다. 내가 만약 저 자리에 서면 어떤 강사가 될까 하고 말이다. 그런데 정작 횡성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가 사업자로 선정되고, 강사 교육을 받으며 영농코디네이터가 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강사로서의 갖추어야 할 태도며 말투며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들을 때뿐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게 되는 건망증 때문에 머리는 항상 텅 빈 상태였다. 배울수록 더 어렵게 느껴졌다. 어쨌거나 2월에 시작한 강의는 5월 초가 되어서 끝이 났다. 봄 농사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고추도 심고, 모도 심었다. 채마 밭에 소소하게 심는 일들만 남은 상태라 맘은 여유로워졌는데 그러는 동안 농사일이 앞서고 강의는 뒷전이었다. 센터장에게 전화가 안 오면 세상 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사일과 집안일에 집중하는 사이 또 한영미 센터장한테 전화가 왔다.

"회장님, 이제 강의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머리가 띵한 것이 없던 병도 생길 판이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머리 싸매고 열심히 할걸.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12명 영농코디네이터들도 다 같은 고충이 있었나 보다. 강의 못 한다고 다들 발을 빼기 시작했다. 120개 마을 교육을 해야 하는 건데 나부터 이 모양이니 큰일이 난 거 같았다. 일단 협의회 회장들과 머리를 맞대고 영농여건개선교육에 대한 매뉴얼과 시나리오를 작성했다. 센터장은 매뉴얼대로 움직이고 강의시나리오를 외워서 발표하면 된다고 했다. 한 번 해보자 할 밖에. 고시 공부하는 학생처럼 들일을 하는 틈틈이 시나리오를 배우처럼 열심히 외웠다. 수없이 읽고 외워도 뒤돌아서면 까먹고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했을까? 머리통을 쥐어박으면서도 그래도 외우고 또 외웠다.

5월 말 둔내 현천리 마을을 시작으로 9개 읍면 강의 스케줄이 쫙 짜졌다. 횡성군에서 이장단협의회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우린 강의만 하면 된다, 한두 번 강의하다 보면 자연스레 되겠지, 잘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마

인드컨트롤을 하고 있었는데 순조롭게만 진행되는 줄 알았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생겼다. 횡성군새마을협의회에 통보 없이 마을부녀회장들에게 협조공문을 보낸 것을 문제 삼아 협조할 수 없다고 통보해온 것이었다. 우리도 처음 하는 교육이라서 조급한 마음부터 앞서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새마을협의회 부녀회장을 찾아가 사과하고 각 면 회장님들을 모아놓고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나는 마음이 씁쓸했다. 모두가 횡성 군민이고 모두가 속해 있는 다 같은 단체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생각하니 시작도 하기 전에 온몸에 힘이 쭈욱 빠져나가는 듯했다. 그래도 어려운 자리에 함께 가서 체면을 구기며 말을 거들고 힘을 모아주신 여성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님들에게 쓰디쓴 커피 한잔을 마시며 다시 힘을 내보자며 화이팅을 외쳐야 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둔내팀이 먼저 강의를 시작했다. 처음 포문을 여는 첫 강의였다. 농식품부 오미란 과장님이 직원들과 함께 나와 보셨고, 농정과에서도 나오고 새마을부녀회에서도 나와 주시니 금세 경로당 안이 사람들로 북적였다. 내가 하는 강의도 아닌데 떨리고 가슴이 콩닥콩닥리며 진정이 안 되었다.

둔내면과 안흥면을 맡은 이귀자 회장과 민채옥 회장이 한 조가 돼서 인사를 했다. 이귀자 회장이 본 강의를 시작해 큰 목소리로 좀 서툴긴 해도 조목조목 설명을 잘해 나갔다. 뒤를 이어 민채옥 회장이 근골격계 질환예방 체조 및 노동경감을 위한 편의장비 소개를 하면서 강의는 끝이 났다. 센터장이 강의 시연을 할 때는 두렵기만 했는데 나랑 같은 위치에 있는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니 아 저렇게 시작하면 되겠다고 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잘 들었다며 격려의 말을 해주니 더 큰 안도의 한숨이 나왔다. 나는 같은 동네에서 부녀회장을 맡은 최명숙 코디네이터랑 한 조가 되어 강의를 다녔다. 첫 교육장소로 상동 마을이 선정됐다. 부녀회장님과 이장님께 전화했더니 일이 바빠 못 한다고 단번에 거절했다. 각 리 부녀회장님들의 협조 없이는 교육 일정을 잡는 것부터 어려운 일이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우리 교육에 대한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생각하니 불안하고 우울했다. 일정을 잡기 위해 반나절 이상 전화통을 붙잡고 있느라 가족들의 핀잔을 들기 일쑤였다. 하우스 오이 농사에 밭일이며 잡다한 농사일을 하면서 가다 보니 일정이 뒤로 밀리기 시작했다. 불안했다. 방법을 바꾸어야 했다.

그래서 어쩌다가 교육 일정이 잡히면 다른 일을 제쳐두고 강의를 다녔다. 교육을 안 받겠다는 거절을 들으면 부녀회장에게 양해를 구한 뒤 농가주부모임이나 생활개선회 등 단체중심으로 면단위 회장님이나 지인들에게 전화해 여성농민분들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했다. 흔쾌히 사람들을 모아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격려의 말과 함께 연락이 오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앗싸, 한 마을 잡혔다!”라고 신나서 실무자에게 전화하던 내 모습이 생소하기만 했다. 내가 모르는 나의 다른 면을 발견했다고나 할까.

글을 쓰다 보니 나의 인생 첫 강의 순간이 기억난다. 평생 자리에 앉아 남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는데 내가 강사가 되어 강의를 주도해야 한다니 떨리는 가슴은 진정이 안 되었다. 첫날 교육엔 상동리 주민 여덟 분이 참석해 주셨다. 인원수가 작아서 다행이다 생각하며 상동리 마을 정자에서

공근면자원봉사협의회

여정
장광숙 지음

첫 강의를 시작했다. 다 외웠다고 생각했던 시나리오인데도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아 나는 메모로 가득한 시나리오를 흠칫흠칫 보면서 겨우 강의했다. 격려차 나온 센터장과 눈이 마주칠 때면 잘하고 있다고 격려 사인을 주곤 했다. 고개 끄덕여 주는데 그것이 뭐라고 힘이 났다. 끝이 났을 땐 힘찬 박수와 격려가 쏟아져 나왔다. 박수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내 정신이 돌아온 듯했다. 너무 긴장돼서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도 잘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정말 잘했다고, 잘 들었다고 말해줄 땐 그동안의 떨리고 힘들었던 일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너무 잘했다고, 시나리오는 안 보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듣자 스스로 주문을 걸게 되었다. "그래, 난 할 수 있다!" 한 번 강의하고 나니 두 번째 마을부터는 시나리오 없이 차트 목록만 보고 강의를 할 수 있었다. 부창리 마을에서는 15명 정도 참석해 주셨다. 나의 열정을 함께 느끼셨는지 끝나고 모두 한마디씩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다. 마음 한편이 뿌듯하고 벅차오름을 느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많은 생각에 잠겼다.

사십여 년 전 시집이라는 것을 와서 아무것도 몰라 쩔쩔매며 힘들어했던 때가 생각이 났다. 서울에서 자란 나는 농사일이 뭔지도 모르고 횡성으로 시집을 왔다. 시월에 결혼했는데 환경도 바뀌고 생활도 바뀌어 생소한 와중에 겨울로 접어드니 마음 갈피를 못 잡았다.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는 것 같았다. 추워 소리가 절로 나왔다. 서울보다도 훨씬 추웠는데 옛날 한옥이라 단열이 전혀 되지 않았다. 밤에 방에 물을 떠다 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어붙을 정도였다. 한번은 목욕하러 가야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 당신은 부엌에서 했다며 핀잔 아닌 핀잔을 주신다. 나도

그날 저녁에 불을 지펴놓고 큰 함지에 물을 받아서는 목욕을 시작했다. 당시에 홑몸도 아니었는데 문 틈새로 스며드는 칼바람에 서러운 눈물이 복받쳤다. 대충 물을 끼얹고는 옷을 입고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소리 죽여 울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엔 절대로 집에선 목욕하지 않았다. 큰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또 임신을 했다.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진 것이다. 겨울엔 일이 없으니 그런대로 편했지만 봄이 되니 다시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어머님과 신랑은 들로 밭으로 다니며 농사일이 바빴다. 나도 큰아이 돌보랴 집안일 하랴 바빠졌다. 홑몸도 아닌데 사람들을 사서 일을 하는 날이면 임신하여 부른 배를 안고 뒤에는 큰아이를 업고 밥을 해서 이고는 들로 나갔다. 하필이면 밭이 산꼭대기에 있어 밥을 이고 올라갈라치면 눈물이 절로 났다. 차도 없을 때니 오죽 힘이 들었을까? 저 멀리서 어머님이 보시고는 달려 내려오신다. 어머님이 우는 모습 보시고 속상하실까 봐 얼른 눈물을 훔치곤 했다.

그렇게 시부모님 마음 헤아려가며 살았다. 그렇게 또 분주히 살다 보니 세월이 흘러 또 셋째가 들어섰다. 나는 돈 이만 원을 어찌어찌 모아들고 배 속 아이를 지울 요량으로 원주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다. 의사 선생님은 제왕절개 하는 데 드는 비용이 사만 원이라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셋째가 태어날 운명인가 보다 하고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또 여전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다. 셋째는 살림 밑천이라는 딸이었다. 이름을 하늘이라고 지었다. 그런데 우리 하늘이가 세 살 되던 해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했다. 용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 다녀도 병명을 모르겠다고 했다. 나는 벌을 받나보다 생각했다. 외부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창문

너머로 부지런히 다니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나도 저런 날이 올까 싶었다. 움직일 때마다 배가 너무 아파서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의자를 놓고 앉아서 요리해야 했다. 서울에 용하다는 병원도 소용이 없었고, 죽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할 즈음에 아는 지인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밑져야 본전이니 자기 아는 병원에 가서 진찰이나 받아보란다. 통증이 시작되고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러가고 있었다. 우린 급하게 어머님과 함께 그 병원을 찾아갔다. 젊은 여자 의사였다. 나를 진찰한 의사는 수술해보자고 했다. 기독교병원에선 우리 며느리 살려달라고 어머님이 의사에게 수술이라도 해달라고 애걸하셨을 때 의사가 노발대발한 적이 있었다. 큰 병원에서 수술은 안 된다고 한 건데 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수술이라도 해 보고 죽겠다고 생각했었다. 그때가 내 나이 39살 되던 해다. 나는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한 보름 정도가 지나자 언제 아팠냐는 듯 통증이 사라졌다. 요즘엔 '빈궁마마'라는 말도 있고 우울증도 온다고 하는데 자궁이 없어도 아프지 않으니 너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았다. 일해도 기뻤고 아이들 키우는 일도 기뻤다. 모든 것이 감사했고 모든 것이 즐거웠다. 내가 웃자 아이들도 웃었다. 돌아보면 죽음의 기로 앞에서도 꿋꿋하게 버텨낸 삶인데 강의쯤이야.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선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잘했어'라며 가슴을 두드렸다.

'이까짓 강의쯤이야' 하고 생각하니 자신감이 절로 생겨났다.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나니 일정들도 일사천리로 잡혀 나의 강의도 점점 더 좋아졌다. 틈나는 대로 집안 일하랴 하우스 오이 작업하랴 몸이 열이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어느 때는 오전 오후 그리고 저녁 시간까지 강의를 해야

했다. 그럴 땐 밤이면 녹초가 됐다. 그래도 하루 종일 뙤약볕에서 일하시고 나와 주신 어르신들을 보면 힘이 났다. 검게 그을리고 주름진 얼굴에 반짝이는 눈으로 나를 바라봐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르겠다. 그럴 땐 내 몸의 피곤함도 잊은 채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알려 드리는 걸로 보답해야지 다짐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내가 강의를 다닌다하니 처음엔 '네가 무슨 강의냐'며 못마땅해 하시더니 열심히 하는 나를 보고는 강의를 다녀온 날이면 "그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어?" 하시며 궁금해 하신다. 그럴 땐 나는 뽐내듯이 말씀 드린다 "한 20명은 왔을걸요." 그러면 흐뭇한 표정을 지으시며 대견해 하신다. 가는 마을마다 더운데 수고한다며 시원한 음료며 수박이며 맛난 음식들을 대접해 주셨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집에 일을 얼른 해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강의를 다니게 되었다.

마음이 몹시 아팠던 경험도 있다. 갑천의 한 마을에 강의를 갔을 때였다. 팔십이 가깝다는 한 어르신께서 왜 이제 그런 교육을 하느냐고 하시며 조금 더 젊었을 때 받았더라면 나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텐데 이젠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늙은이가 됐다며 많이 슬퍼하셨다. 나 역시도 돌아올 때 마음이 무척 아팠다. 대부분의 마을이 거의 비슷하다.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이 70대 이상 노인들이라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다.

어쩌다 장날 거리에서 나를 기억하는 어르신들을 만나는 날도 있다. 강의 잘 들었다며 다시 한 번 칭찬을 해 주시니 그보다 더한 보람이 또 있을까? 뿐만 아니라 나 역시도 강의를 하면서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여성농

업인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설명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도 가질 수 있어 내가 얻은 것이 더 많은 것 같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이다.

나에게 배정되었던 마을교육이 끝나갈 즈음 다른 면 교육을 맡았던 강사님에게 연락이 왔다. 도저히 시간을 낼 수 없으니 대신 강의를 해달라는 것이었다. 내 지역도 아닌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하려니 또 겁이 났다. 단체장으로서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못한다는 말을 못했다. '에라, 거기도 다 똑같은 사람들이겠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감사하게도 다른 면도 역시 호응이 좋았다. 잘 들었다며 힘찬 박수를 쳐 주셨다. 그래 이런 게 사는 거야, 내심 기분이 좋아서 운전하는 동안 콧노래가 절로 나왔다.

가을로 접어들며 대신 맡은 강의를 여기저기 뛰고 있는데 카톡 알람이 정신없이 울린다. 어찌 된 일인가 싶어 봤더니 농림수산식품정보원에서 농식품부 장관상을 받을 사람을 추천하라고 연락이 왔단다. 그래서 횡성군 여성농업인 단체협의회 카톡방에서 나를 이구동성으로 농림부장관상에 추천한다는 글을 올리느라 연신 카톡이 울렸다. 상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렇게 큰상에 추천받는다는 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수고로움이 전부 보상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농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는 연락이 왔다. 처음 교육을 시작하면서는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는 보람이 될 줄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난 뛸 듯이 기쁘기도 했지만 모두 함께 수고한 우리 회장님들께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우리 식구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축하해 주었다. 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이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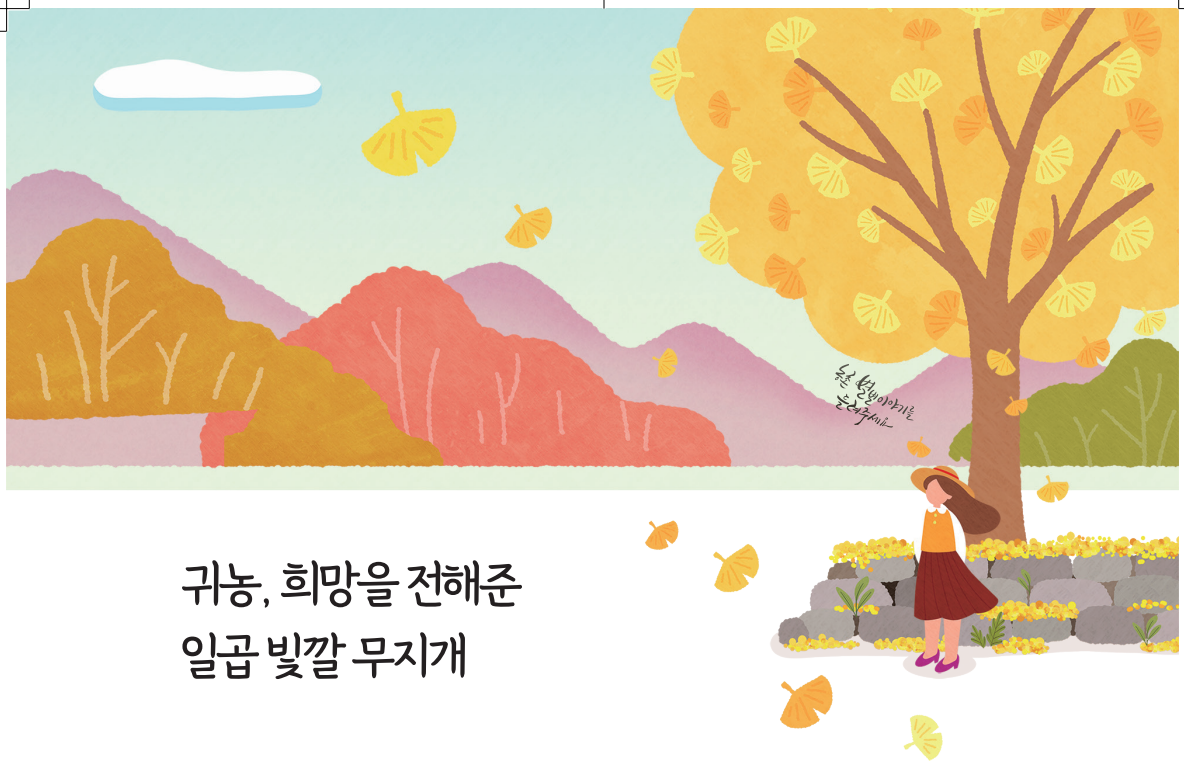
에게 실망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아 보자고! 나는 이제 인생 2막을 걷고 있다. 24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그것도 서울에서 자란 내가 이곳 농촌으로 시집을 와서 낯선 곳에서 익숙해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서울에 사는 친구들을 만날 때면 농사꾼이란 생각에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들곤 했다. 그렇지만 황혼의 길목에 선 지금 난 누구보다 행복하다.

나에겐 버킷리스트가 있다. 버킷리스트 1번은 농사지으면서 느끼고 행복했던 일들을 글로 적어두었던 것을 책으로 내는 것이었다. 슬플 때나 기쁠 때 맛있는 것 먹었을 때나 아름다운 광경을 봤을 때 그때그때 떠오는 생각이 너무 아까워 까먹기 전에 적어놓았던 글들을 모아 자식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순간의 시 그리고 삶 〈여정〉 수필집을 내주었다. 자식들이 내준 책이지만 장광숙이란 이름이 찍힌 책을 받아보고 흘린 눈물은 농촌에서 여성농민으로 살면서 버텨온 삶의 값처럼 빛나는 눈물이라 자부한다.

또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인 나의 발이 되어주는 꼬마차도 하나 마련했다. 남편과 여기저기 다니고 싶었는데 생각처럼 안 된다. 너무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보다. 대신 꼬마차를 타고 동경으로만 남겨 두었던 강사 활동을 하러 다닌다. 여성농업인 단체협의회장을 맡아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보너스로 찾아와 준 선물이 아닌가 싶다.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영농여건 개선 교육 강사라는 타이틀 앞에 오늘도 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

올해엔 '여성농업인이어서 정말 좋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일을 준비하

고 있다. 횡성군 '여성농업인의 날'을 제정하고 선포하는 행사이다! 영농 코디네이터도 그랬지만 여성농업인 날 행사도 처음이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면서 여성농업인단체 회원들과 함께하는 일에 대해 소중함도 다시금 깨닫는다. 여전히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두려움이 앞서지만 "다 잘 될 거야, 힘내자"는 다짐을 다시 해본다.



귀농, 희망을 전해준 일곱 빛깔 무지개

장성희

"문디 가시나. 도시에서 편하게 살라고 공부시키 낳더마는 머할라꼬 촌에 기 들어갔노? 어이구, 어이구!"

시골에 정착한 지 1년 만에 우리 집에 오신 엄마가 기역으로 굽은 허리를 지팡이에 의지하며 차에서 내리시더니 연신 넋두리를 늘어놓으셨다.

"농사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기제. 맨날 골골하던 니가 우짤라고 이라노?"

엄마는 끝내 눈물까지 훔치셨다. 우리가 결혼할 무렵에 선을 보면 첫째 조건이 남자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것이었다. 그만큼 농사는 힘들고 고생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엄마는 당신처럼 살지 말라고 못 입고

못 먹으면서도 딸이었지만 대학교를 보내주셨다. 그 탓에 엄마는 허리가 굽어서 똑바로 서서 하늘을 볼 수도 없게 되었는데 금지옥엽 키운 딸내미가 느닷없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엄마의 우려 속에 시골에 산 지 8년이 되는 귀농인이다. 포항의 오지마을 죽장면 상사리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고 있다. 이곳 상사리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의 자매마을이었다. 우연히 복분자 묘목이 심어져 있는 땅을 사게 되고 남편과 나는 주말마다 들어와서 밭을 둘러보며 조금씩 농사를 지어 보았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던 해에 남편이 갑자기 실직하게 되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지 막막했다. 오빠와 동생들이 사는 창원으로 가서 학원을 내어볼까. 아니면 다시 직장을 알아볼까. 나는 아이들이 어릴 때 직장을 그만둔 경력 단절 여성이었고 남편은 사무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둘 다 구직은 쉽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나마 끈이 된 상사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참 겁 없이 귀농을 결정했다. 남편과 나는 둘 다 시골에서 농부의 자식으로 자라 부모님이 하는 일을 좀 도와보았다는 것으로 농사를 안다고 생각해서 내린 결정이었다.

아이들은 학업을 계속해야 했고 우리에게 그해에 바로 나올 수 있는 수입원은 복분자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혹독한 농사 훈련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풀과의 씨름이었다. 골에는 마을주민이 쓰지 않고 쌓아둔 헌 부직포를 얻어서 깔았다. 복분자가 심어져 있는 두둑에는 손으로 뽑았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밭이라서 겨울을 이겨낸 풀들이 얼마

나 강한지 잡아당기면 내가 오히려 딸려가는 느낌이었다. 한 골을 뽑고 나면 땀이 줄줄 흘렀다. 그래도 풀을 뽑은 골을 돌아보면 훤해져 있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다. 다시 밭으로 들어가는 힘이 되어주었다. 한창 뽑고 있는데 마을 주민이 안쓰럽다는 얼굴을 하고 말했다.

"풀은 못이긴데이. 제초제를 쳐라. 그것밖에 없데이."

"할 수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 많이 해보았는걸요."

그때는 자신 있었다. 몸만 부지런히 움직이면 이것쯤이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날을 걸쳐서 풀을 뽑았다. 경사진 밭에 쪼그리고 앉아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파김치가 되어버렸다. 허리, 팔, 다리, 어깨 안 아픈 데가 없었다. 한숨 돌리는가 싶었지만, 곧 장마가 오고 새로 난 풀은 언제 뽑았냐는 듯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부직포 위에도 풀이 돋았다. 밭둑도 풀숲을 이루었다. 남편이나 나나 기계치였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취기를 살 엄두를 내지 못했다. 뽑다가 안 되면 낫으로 풀을 베어내었다.

콩 농사와 고추 농사도 지었다. 콩밭에 난 풀도 일일이 손으로 뽑았다. 골에 난 풀을 낫으로 베다가 독사를 만나기도 했다. 먼저 보았으니 다행이었지 큰일 날 뻔했다. 뱀은 도망을 가기는커녕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너무 무서워서 오히려 내가 콩밭을 뛰쳐나오고 말았다. 남은 풀은 결국 우거지게 놔둘 수밖에 없었다.

고추도 직접 심어서 풀을 잡고 줄을 쳤다. 그해에는 날씨가 맞았는지 잘 되어 빨간 고추가 주렁주렁 달렸다.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잘 익은 고추를 땄다. '이런 맛도 있어야지.' 하면서 제법 농사꾼티를 내었다. 그 기쁨도 잠시였다. 밭농사가 마무리되어갈 무렵부터 팔과 어깨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다. 밤에는 자다가 몇 번이나 깨기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오른팔을 들 수가 없어서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 병원을 찾아서 진료받으니 오십견과 테니스엘보가 왔다고 했다. 무조건 일을 하지 말라는 충고를 듣고 물리치료를 받았다. 멋모르고 너무 무리한 것 같았다. 그것은 쉽지 않은 농사 수업의 시작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농촌에 살면서 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너무 힘들어서 예취기를 사자고 했다.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기계를 괴물이나 되는 듯 무서워했다. 결혼 초에는 형광등도 내가 갈았으니 기대를 할 수가 없었다. 기계를 다루려면 내가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경북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여성농업인 밭작물 기계화 교육이 있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등록하여 예취기 다루는 법과 관리가 사용 방법을 배웠다. 2박 3일의 교육을 등에 업고 예취기를 샀다. 낫으로 풀을 베다가 예취기를 사용하니까 신의 한 수를 배운 것 같았다. 농사는 기계가 다 짓는다는 요즘 세상에 낫으로 깔짝거렸으니 참 미련했다는 생각도 들었다.

복분자 나무는 쑥쑥 자라 바닥에 길게 누웠다. 우리는 복분자의 생태를 잘 몰랐다. 넝쿨성이라서 지지대를 박아 줄로 매어주어야 한다고 이웃 사람이 가르쳐주었다. 우리는 준비된 농사꾼이 아니었다. 시골에는 트럭이 있어야 마음 놓고 물건을 실을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승용차밖에 없었다. 당장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승용차가 짐차 역할을 했다. 고물상을 찾아가서 헌 지지대를 구입하고 우리의 짐차에 실었다. 지지대는 길이가 있어서 조심한다고 했지만 날카로운 부분으로 의자에 흠집을 내었다. 그런 일쯤이야 대수로운 것이 아니었다.

커다란 망치로 지지대를 박고 줄을 쳤다. 그리고 복분자 새 가지를 한 가락 한 가닥 끌어 올려서 줄에 묶었다. 아주 깔끔한 일자형 복분자 골이 완성되었다. 이제 내년에는 따뜻한 햇볕을 받아 복분자가 수없이 달리고 어떻게 딸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며 대박을 꿈꾸고 있었다. 그런데 자연은 쉽게 복분자를 주지 않는 모양이었다. 그해 가을에 올라온 태풍은 복분자를 빗자루로 쓸어놓은 듯 너무도 완벽하게 한쪽으로 눕혀놓았다. 지지대도 약하고 무성해진 가지를 일자로 올려놓았으니 바람을 제대로 받은 것 같았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숨만 내쉬고 있었다. 그래도 주저앉아 있을 수만 없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를 블로그에 올렸더니 블로그 친구가 희망을 안겨주었다. 복분자는 강한 식물이라서 다시 세우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과 손발을 맞추어 일일이 일으켜 세웠다. 살아만 있어 주기를 바라며 비지땀을 흘린 결과일까. 다음 해 복분자는 많이 따지 못했지만, 신초가 튼실하게 나왔다. 사실 넘어간 복분자보다 더 속상하게 하는 것은 남편이 화를 내는 일이었다. 인터넷에서 복분자 농사를 짓는 포장을 보니까 티자형으로 지지대를 세운 사람이 있었다. 나무의 키가 작아지고 바람에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았다. 사례를 찾아 보여주며 우리도 그렇게 설치하자고 하였다. 그런데 남편의 머릿속에는 이웃 사람이 가르쳐준 일자형만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이 말처럼 쉽겠냐며 더 단단한 지지대를 사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박기도 어렵고 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 같았다. 이번에는 양보할 수 없는 내 고집으로 티자형을 설치하기로 했다. 티자형은 지지대 개수도 늘

어나고 가로로 고정도 시켜야 했다. 일이 더디게 진행이 되니까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 아마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아서 불만이 쌓인 것 같았다. 지지대에 줄을 맬 때는 손발을 맞추어야 팽팽하게 당겨졌다. 적당하게 힘을 주며 설치해 가는데 잠시 주춤했더니 한 쪽 줄이 느슨해졌다. 그러자 똑바로 잡지 못한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다. 나도 기를 쓰고 하고 있는데 그만한 일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힘이 쭉 빠졌다. 몸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겠는데 남편이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것은 참기가 힘들었다. 그날은 말도 하기 싫었다. 다른 사람은 아내가 들어와서 같이 농사짓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도 욕을 먹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시 시내로 들어가서 직장을 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살아오면서 싸움 한번 하지 않던 우리 부부에게 그런 냉전은 수시로 찾아오는 단골손님이 되었다.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도시로 횅하니 가버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날에는 슬그머니 다가오는 남편과 다시 말을 하게 되고 지지대 설치도 마무리를 하였다. 웬만한 바람에는 끄떡도 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덕에 다음 해에는 맛있는 복분자를 대량으로 수확할 수 있었다.

이제는 자신감도 붙어서 복분자 농사를 더 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복분자는 신초의 줄기 끝이 땅에 닿아 뿌리를 내리면 묘목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묘목이 나오는 대로 밭을 늘려갔다. 모든 작업은 삽과 호미로 하였다. 삽으로 두둑을 만들고 호미로 심었다. 처음에는 990㎡(약 300평) 정도 있었는데 1980㎡가 되고 나중에는 3300㎡(약 1000평)이나 되었다.

복분자는 가시가 많은 식물이다. 나무를 헤집어가며 따야 해서 토시와 장갑을 껴도 가시에 찔리고 긁히는 일은 허다하다. 복분자를 따고 나면 구초를 잘라내고 신초를 받아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찮은 일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조금씩 짓던 사람들도 모두 갈아엎고 우리만 남게 되었다.

의욕에 차서 열심히 했는데 복분자는 호락호락한 농사가 아니었다. 우리 밭은 가뭄을 많이 타지 않는 진흙땅이었다. 그러면서 경사가 있어 물도 잘 빠졌다. 그래서 웬만한 농사는 물 시설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데 한해는 가물어도 너무 가물었다. 심지어는 모든 작물을 이긴다는 풀조차 맥을 추지 못하고 비실거렸다. 작물이 타들어 가는 만큼 우리 마음도 바싹 말라갔다. 뭐라도 해보자고 남편에게 말을 해보았지만, 방법이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밭 위쪽에 조그마한 웅덩이가 하나 있었다. 아랫동네에서 농수로 쓰는 지하수를 끌어올려 비상시에 쓰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받아놓은 웅덩이 물에 기다란 호스를 사서 꽂았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호스에 물을 가득 채우니 계속 흘러나왔다. 그렇다고 수압이 셀 수는 없었다. 쫄쫄 흐르는 호스를 끌고 다니며 복분자 골에 물을 주었다. 남편은 간에 기별도 안 가겠다고 하며 혀만 끌끌 차더니 집으로 가버렸다. 자전거로 혼자 밭을 오가며 물을 주었다. 몇 날 며칠을 주었는지 기억도 까마득할 정도였지만 나무는 여전히 축 늘어져 있었다. 그해에는 그야말로 작은 콩알만 한 복분자가 달려서 1킬로그램을 따는 시간이 엄청나게 걸렸다. 수확한 만큼 품삯으로 나가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도 나무가 완전히 마

동양

르지 않고 살아난 것은 쫄쫄거리는 물이라도 만났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알맹이는 작았지만, 그때의 복분자 맛은 너무너무 달달했다.

복분자는 쉽게 물러지는 과일이다. 그래서 따는 그날 소비자의 손에 가지 못하면 바로 냉동 창고로 들어간다. 포항 시내에는 지인들에게 생물로 주문받아 남편이 그날 오후에 바로 배달을 갔다. 양이 많이 나오는 때여서 동네 주민들이 품으로 와서 복분자를 따고 있었다. 예상보다 더 많이 나와서 갖다 놓은 상자가 부족했다. 밭에서 집까지는 왕복 3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이다. 차가 없으니 어떡해. 집까지 달리기했다. 그때는 빨리 상자를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다. 상자가 없으면 품으로 온 사람들이 일할 수가 없었다. 가볍지만 부피가 큰 상자를 양손에 두 묶음씩 들고 숨이 목에까지 차서 밭으로 달려왔다. 상자를 밭 가에 내려놓으니 세상이 노랗게 보였다. 한참을 주저앉아 열을 식히고 나니 정신이 돌아왔다.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냉동 창고에 들어갈 복분자를 쌓아두고 남편을 기다리는데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주민들은 이미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아 있는데 산 밑의 밭에는 어둠이 짙게 깔렸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둠을 특히 무서워했다. 어둠 속에 혼자 있으면 누군가가 꼭 목덜미를 잡아끄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다. 어른이 되어서도 어둠은 쉽게 가시지 않는 두려움이다. 갑자기 풀숲에 산짐승이 있는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간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복분자가 쌓여 있는 원두막 기둥에 꼼짝도 못 하고 붙어 있었다. '왜 이렇게 안 오지?' 걱정하면서도 운전 중일 것 같아 전화도 걸지 못했다. 얼마쯤 시간이 흘렀을까. 농

로를 따라 밝은 차 불빛이 올라오고 있었다. 그때야 안도감과 함께 등골에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남편에게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 물었더니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지 들어보라고 했다. 여러 군데 배달해야 하니까 마음이 급했단다. 약속 시간에 늦은 집이 있어서 서둘러 차를 돌렸는데 내려서 보니까 층층이 쌓아 놓은 복분자 상자가 일부 넘어져 있었다. 무른 복분자가 어떻게 되었을지는 상상이 갔다. 까맣게 잘 익은 복분자가 트렁크 바닥에 흩어져서 빨간 물을 토해내고 상자도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상자에 대충 주워 담고 덜 묻은 상자는 수건으로 닦아내었다고 했다. 남편의 손을 보니 온통 빨간 물이 들어 있었다. 망가진 복분자는 배달할 수 없어서 마지막 사람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양해를 구했다는 것이다.

갓길에 잠시 주차하고 마지막 배달을 한 뒤에 버린 복분자가 아까웠지만 홀가분한 마음으로 차에 탔다. 그런데 차를 빼려고 후진을 하는데 뭔가 닿는 느낌이 들었단다. 내려서 보니 그사이에 바로 뒤에 다른 차가 주차를 한 모양이었다. 다행히 세게 부딪친 것은 아니었고 차주도 괜찮다고 하더라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크게 깨달았다고 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시간에 쫓기니까 운전하는 일이 너무 위험하다고 했다. 하나 덜 배달을 하더라도 너무 조급하게 하면 안 되겠다고 했다.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었다.

그해에는 복분자가 잘 되어 냉동 창고에 켜켜이 쌓였다. 풍작의 기쁨은 잠시였다. 우리는 농사를 지어놓고 파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아는 사

람들에게 판매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이 많은 복분자를 어떻게 하나. 설상가상으로 복분자 주산지에서 그동안 팔지 못한 냉동복분자가 대량으로 풀렸다는 소식이 들렸다. 가격은 하염없이 내려가고 그마저도 찾는 사람이 없었다. 품삯으로 들어간 돈이라도 건져야 할 판이지만 더 싸게도 팔리지 않았다. 냉동 창고에 가득 쌓인 복분자를 보니까 숨이 콱콱 막혔다. 원래 악재는 겹쳐서 나타나는 것 같았다. 냉동 창고의 노후화로 밖에서 더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바닥에 물이 떨어지고 그 물이 얼어서 빙판이 되었다. 돈이 모자라서 중고로 설치했는데 탈이 난 것 같았다. 마냥 그대로 놓아둘 수도 없는 판국이었다.

냉동복분자에 아이스팩을 넣어 일일이 소포장하고 경매장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경매는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낙찰되었고 취소도 가능하다고 했다. 생물로 가지고 가도 힘들고 냉동은 더더구나 찾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았다. 애써 딴 복분자를 버릴 수는 없어서 반은 제탕원에 가져가서 즙으로 내리고 반은 발효액으로 담갔다. 지인들과 나누어 먹으며 그렇게 악몽 같은 한해는 지나갔다.

판매를 위해서는 대책이 필요했다. 그때부터 판매를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재배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동영상으로 편집하는 방법을 배웠다. 블로그에 올리고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에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복분자 농사를 짓는다고 알렸다.

우리가 팔 수 있는 판매 사이트가 있다고 하여 가입하려고 했다. 처음 시도한 것이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였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았다.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볼 곳이 없었다. 그래서 가입도

되지 않았다. 한참 고심하고 있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판매를 도와주는 교육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달려갔다. 열심히 찾으면 못 할 일은 없는 것 같았다. 가입 방법을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 해 보니 판매자로 등록이 되었다. 박차를 가해 '경북사이소'에도 판매자로 등록했다. 요즘은 판매 밴드도 있어서 도시의 구매자와 쉽게 연결하는 고리도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씩 판매 방법을 늘려가니 숨통이 틔는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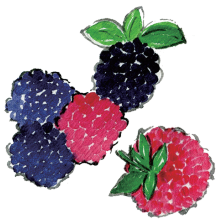
복분자 농사를 지으며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탱글탱글한 복분자를 따면서 달린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오래도록 보고 싶어 사진을 찍기도 하고 금방 불어나는 복분자 상자를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한번은 열심히 따고 있다가 새집을 발견하였다. 복분자 나무 사이가 아늑하였는지 알이 다섯 개나 있었다. 그 속에 생명이 움트고 있다고 생각하니 감격스러웠다. 주위에는 알을 걱정하는 어미 새가 맴돌고 있었다. 너무 신기하여 퍼뜩 사진만 찍고 그 줄은 가장 나중에 따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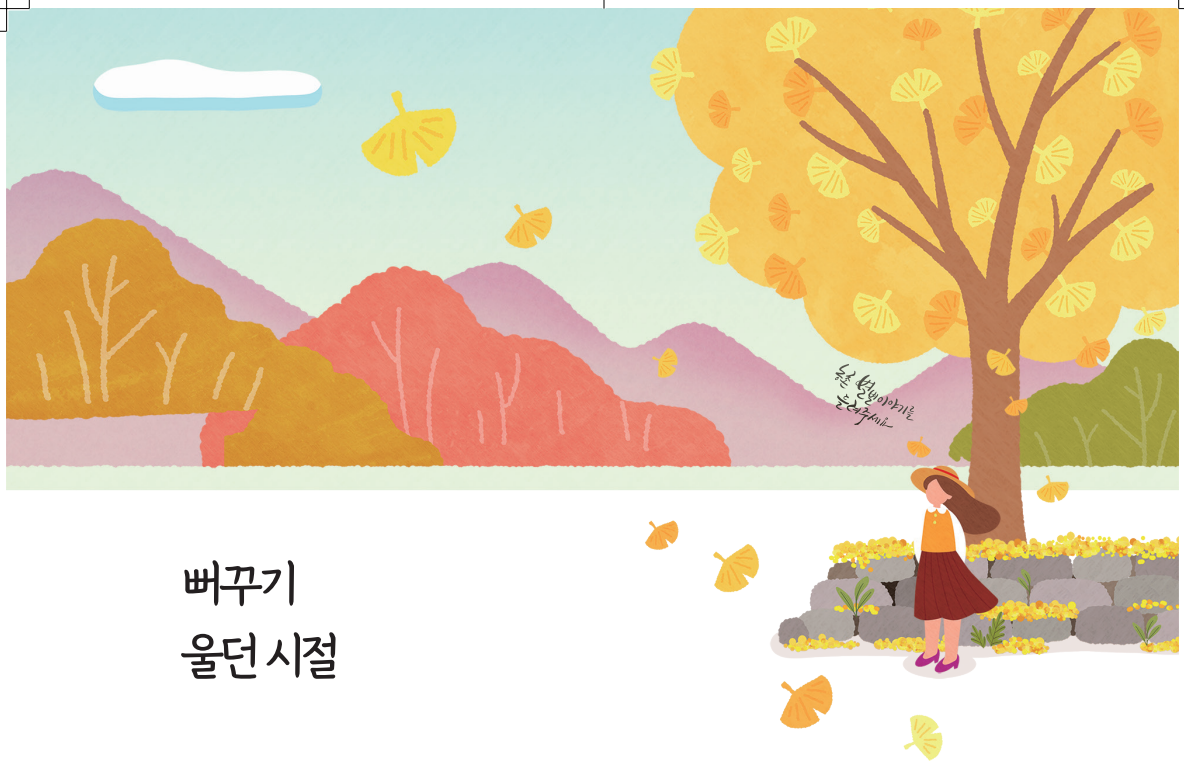
복분자를 따는 시기는 무척 더운 때이다. 뙤약볕에서 밭 가운데에 있으면 땀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그날도 남편과 함께 복분자를 열심히 따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더니 장대비가 내렸다. '조금만 더 참아주지.' 하면서 손을 부지런히 놀리다가 도저히 안 되어 원두막으로 피신했다. 하지만 지나가는 비였다. 구름이 물러가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해가 나왔다. 그와 함께 나타난 일곱 빛깔 무지개가 저 멀리 우리가 이름 지은 문필봉과 병창이라 불리는 산 중턱에 걸쳐졌다. 우리는 비 온 뒤의 무지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여름 복분자밭에서 제대로 보게 되었다. 비지땀 흘리며 고생하는 우리에게 행운이

라도 주려고 온 것일까. '할 수 있어!' 하고 마치 희망을 말해주는 것 같았다. 보는 순간 마음은 이미 무지개의 일곱 빛깔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막막했던 귀농 생활이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화를 자주 내던 남편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준다. 마음의 여유도 생겨서 뭔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불이 나는 등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가 있었다. 가입하고 일하다가도 연락이 오면 바로 달려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누가 물어도 당찬 농부가 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지금은 기계치도 옛말처럼 되어가고 있다. 예취기로 풀을 베고 관리기로 밭을 간다. 가끔 기계가 말썽을 부리면 인터넷을 뒤져 원인을 찾아내고 손을 보기도 한다. 혹독한 훈련을 시키며 우리를 진정한 농부로 만들어준 복분자 농사도 계속 짓고 있다. 이제는 어느 정도 복분자의 성질도 알고 농사짓는 노하우도 터득하게 되었다. 물 시설은 기본으로 하고 거름도 듬뿍 주어 튼실한 복분자가 열린다. 지금도 복분자가 까맣게 익어 가면 "어머!"를 연발하는 감동을 느낀다. 해마다 나무 밑의 풀을 뽑고 수확하고 나면 구초를 잘라내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 뜨거운 여름날, 살며시 다가와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준 무지개를 떠올리며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예.'





뻐꾸기 울던 시절

정덕화

뻐-꾹. 뻐-꾹. 뻐꾸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시절이 아련히 생각난다.

1970~1990년대, 경북 영일군(지금의 포항시 흥해읍)의 작은 농촌 한 모퉁이의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먹을 것만큼은 풍족했다. 남편과 막내 시동생이 만든 닭장에는 지네 잡아먹은 닭이 크고 튼실한 계란을 낳아주었다. 게으른 닭이 정오쯤은 돼서야 '꼬끼오' 하고 우는 게 거슬렸지만 그래도 나는 계란을 슬쩍 빼서 밥에 간장 넣고 내 새끼들에게 먹였다. 그럴 때마다 닭에게 미안했다. 닭도 나 같은 어미가 아닌가. 나는 내 새끼를 먹이기 위해 남의 새끼를 앗아간 게 아닌가.

막내 시동생은 식용 달팽이 양식을 한답시고 우리 집 너른 마당에 작은 비닐하우스를 차렸다. 아무리 마당 넓은 시골집이라지만, 한복판의 비닐하우스라니. 덕분에 내 아이들은 소꿉놀이할 수 없었다. 게다가 잘 팔리지 않는 그 달팽이는 밥상 위에 종종 올라왔다. 그럴 때마다 아이들은 달팽이가 징그러워서 넙치처럼 밥상에 머리를 딱 붙이고 밥을 먹다 나한테 혼나기도 했다.

막내 시동생이 점거한 마당의 끝에는 내가 키우던 작은 텃밭이 있는데, 계절에 따라 서로 다른 꽃들이 피고 졌고, 서로 다른 먹거리가 마법처럼 '짠' 하고 나타났다. 자연의 순환이 텃밭에서 여러 색채로 나타났다. 텃밭에 있는 은행나무의 잎사귀가 구운 은행 빛깔을 띠는 걸로 계절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농장 깊숙이 넣은 두툼한 옷가지를 빼내서 아이들을 입힐 시기였다.

봉숭아가 피고, 가지, 상추가 자라는 텃밭 옆에는 포도나무가 넝쿨을 이루고 있었다. 한여름에는 그 포도나무가 햇볕을 막아주는 양산 노릇을 했다. 우리 식구는 시원한 포도나무 아래 펴둔 평상 위에 올라 바로 포도를 따서 손을 적셔가며 몇 송이씩 먹어댔다. 그래도 넉넉한 포도나무는 소출이 참 많았다.

고추밭 가장자리에서 따온 옥수수들도 큰 통에서 김 뿜으며 익어갈 땐 마음 급한 막내딸이 뜨거운 옥수수에 손가락을 댔다가 아야 하고 놀라곤 했다. 그 바람에 평상 위에 올려둔 수박이 굴러떨어져 따로 칼질 없이 우걱우걱 먹곤 했다. 우리는 뭐든 함께 먹는 식구(食口)였다.

가을이 익어 가면 농사짓는 집들은 나락을 탈곡하느라 온 동네에 쌀겨

냄새가 진동했다. 그 구수한 냄새를 맡기만 해도 맛있는 밥 한 그릇 먹는 기분이었다. 이럴 땐 온 동네 사람이 모두 식구인 듯했다.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초입은 텃밭 옆의 감나무가 알렸다. 내 아들이 태어날 즈음 시아버지가 심으신 한 그루의 감나무는 아들과 함께 장성했다. 광주리 수북이 딴 홍시를 일부는 먹고 일부는 곶감으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감나무 꼭대기에는 까치가 먹을 감이 넉넉히 남아 있었다.

날씨가 추워지면 아이들에게 솜으로 채운 싸구려 비닐 점퍼밖에 입히지 못했다. 그래도 함께하는 마음만은 따뜻했다. 나는 어느새 부쩍 큰 아이들과 리어카를 끌고 배추밭으로 갔다. 김장할 때가 된 것이다. 앞에서 리어카를 끄는 건 아들 몫이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들이 벌써 이만큼 컸나 싶어 너무나 기쁘고 기특했다. 내가 먹여 저리 장성한 아이가 아닌가 싶어 자부심이 느껴졌다.

리어카 한가득 실어 온 통통한 배추는 고추밭에서 따와 빻은 고춧가루로 버무려 김장했다. 힘이 들면 나는 아직 채 치우지 않은 평상에 앉아 쌀쌀한 공기를 마시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까치가 쪼다가 떨어진 홍시가 마당에 퍽 하고 떨어지던 날에는 막내딸이 그렇게 웃어대는 것이었다.

추운 날에는 묵은지 김치찌개를 밥상에 올렸고, 그 칼칼하고 얼큰한 국물에 식구들 모두의 숟가락이 정신없이 풍덩 담겼다. 밥상을 물린 후에는 역시 집에서 키운 부추로 전이 구워졌다. 부추전이 없는 날에는 시어머니가 캐 오신 고구마에 김치를 얹어 모두 호호 불어가며 먹었다.

계절은 변하고 또 변해 봄이 오면 된장찌개에 냉이가 들어갔고, 또 그렇

게 봄이 가고 여름이 다가오면 뻐꾸기가 뒷산에서 울어댔다. 시골의 자연은 끊임없이 돌고 돌았고, 때가 되면 언제나 제자리에서 제 모습을 드러냈다.

뻐-꾹. 뻐-꾹.

아들이 다섯 살쯤 되었을 때였던가, 나는 아들을 평상에 앉히고는 수제비를 떠먹여 주었다. 그럴 때마다 뻐꾸기가 울어댔다. 아들은 그래서 수제비의 이름이 뻐꾸기인 줄 알았다.

"뻐꾸기 먹고 싶다. 뻐꾸기 해줘."

잘 익은 감자를 아낌없이 넣고 푹 끓인 수제비가 당기는 날에는 아들이 나한테 뻐꾸기를 해달라고 졸라대곤 했다. 나는 환하게 웃으며 "오냐, 뻐꾸기 해주마."라고 대꾸하시던 게 기억난다.

가난한 80년대였다.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 초라하고 남루한 옷차림이었다. 하지만 겉은 볼품없지만 속은 꽉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식구를 먹이느라 분주히 움직이신 나와 시어머니의 노고 덕이었다. 우리는 언제나 자연에서 먹을 것을 얻었고, 그래서 잘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함께 먹을 때는 식구 간의 따뜻함을 느꼈다. 세상에서 가장 친근한 단어인 '식구(食口)'에 '먹을 식(食)'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네 삶에서 먹는 것이 가장 근본인 까닭이다.

1997년, 우리 가족은 뻐꾸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인근 도시로 이주했고, 시어머니도 돌아가셨다. 이제 나도 갈수록 늙어간다. 그런데도 내 뚜렷한 기억 속에서 울던 그 뻐꾸기 울음, 그 울음을 들으며 먹어 치우던 그 숱한 맛과 정성과 냄새와 식구 간의 정(情)은 여전히 생생하다. 그 따뜻

한 정이 그리워, 마을의 나락 냄새가 그리워 시골로 다시 이주했다.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155번지. 집은 낡은 채로 방치돼 있었지만, 닦고 치우면 옛 모습 그대로다.

나는 요즘 남편과 포항 한동대학교 부근의 곡강리에서 쌀농사는 소작주고 있다. 포항 시금치로 유명한 그 곡강리 말이다. 죽천리에서 곡강리 조금 못 가 있는 밭에 상추와 쪽파, 고추를 키운다. 공들여 키워놓으면 사람이 뜯어 가고, 짐승이 뜯어 먹지만 그것도 나누는 인심이라 생각하고 괘씸하게 여기진 않는다. 돌이켜보면 지나간 일은 다 아름다운 추억이라 했던가.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찌 모두 아름답기만 할 수 있을까. 시골에서 살아온 나날들을 떠올리면 눈시울이 붉어질 때가 많다.

옆 동네 사는 가난한 농사꾼의 맏이 총각과 결혼하여 수돗물도 안 나오는 시댁에 시집을 갔다. 동네 도랑(개울)에 가서 중풍 걸리신 시조모님의 분뇨 묻은 이불을 새벽마다 빨아야 했다. 아들은 또 어찌나 밤마다 오줌을 싸대는지, 나의 아침은 똥오줌 냄새로 시작했다. 여름은 그래도 견딜 만했다. 겨울에 고무장갑도 없이 얼음을 깨 차가운 물에 빨래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를 걱정해 주지 않았다. 혼자 견뎌내야 했다. 엎친 데 덮친다고 시아버지께서 위암에 걸려 몸져누우셨다. 돈만 있다고 해결될 병이 아니었지만, 우선 병원비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없는 살림에 약 한 첩 제대로 못 써본 게 두고두고 한이 된다.

시아버지께서 돌아가시자 시어머니는 그 충격에 일손을 한동안 놓아버리셨다. 나 혼자 모든 걸 해내야 했다. 경운기는커녕 소 한 마리 없이 혼

자서 쌀농사, 보리농사를 지어야 했다. 500평짜리 정구지(부추)밭에 가서 온종일 허리 숙여 일해야 아이들을 먹일 수 있었다. 300평짜리 고추밭에 가서 땀을 뻘뻘 흘려야 소출을 낼 수 있었다. 내가 멈추면, 내가 포기하면 아이들이 굶어야 했다.

곡식은 농부의 땀을 먹고 자란다. 내가 더 땀을 흘릴수록 소출은 많아졌다. 여자라서, 여자니까, 여자인데, 라는 식의 약한 생각 따위는 품을 겨를도 없었다. 오히려 여자라서, 엄마라서 그 누구보다 강인해져야 했다. 그 무엇도 견뎌내고 이겨내야 했다. 한여름의 땡볕과 한겨울의 칼바람도, 남몰래 흘리는 눈물과 남보다 더 흘리는 땀방울도 나는 꺾진 못했다. 나는 대지와 겨루듯, 땅과 씨름하듯 논에서 밭에서 들에서 산에서 일하고 또 일했다.

땔감도 내가 장만해야 했다. 두 살배기 셋째 딸을 등에 업고 뒷산에 가서 땔감을 해 와야 했다. 아직 가마솥에 밥을 하던 시절이라서 마른 날에 땔감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으면 궂은날에 밥을 할 수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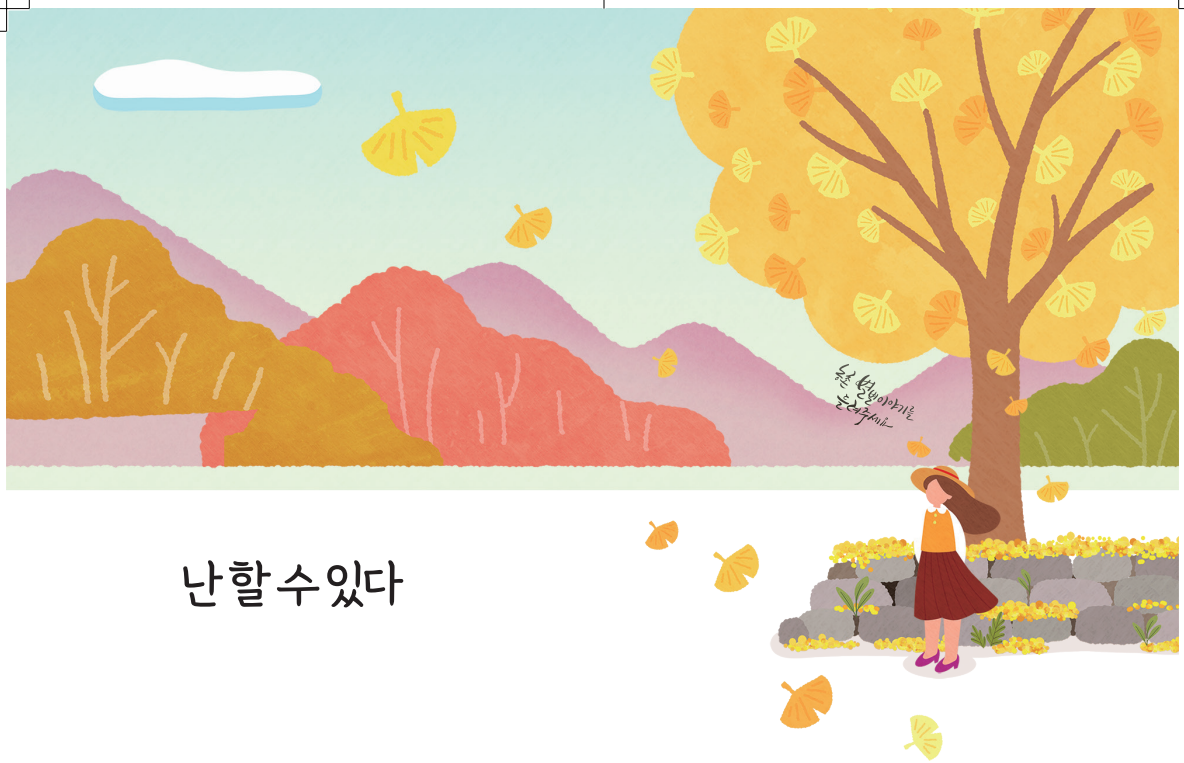
나는 정말이지 새벽부터 새벽까지 논농사, 밭농사, 나무하기, 빨래하기, 밥하기, 설거지하기, 아이들 돌보기, 시조모와 시아버지 병수발로 잠시도 쉴 수 없었다. 봄부터 겨울까지 옷이라곤 몸빼바지 한 벌이 고작이었다. 저녁에 그걸 빨아 가마솥 뚜껑에 널어놓고서 새벽에 다시 입고 개울가로 가서 시조모의 이불 빨래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했다. 공무원 박봉을 받으며 아홉 식구를 부양하던 남편은 집안일을 도와줄 겨를이 없었다.

군대를 제대한 막내 시동생이 집에 오자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다. 장골이(장정)가 도와주자 농사가 한결 수월해졌다. 막내 시동생은 기운

이 넘쳤다. 땔감 실은 지게를 짊어질 때는 경운기 같았고, 논을 갈 때는 황소 같았다. 여전히 생활은 힘들었지만 혼자서 모든 걸 할 때 비하면 단맛에 취해 산 듯했다.

지나고 보면 그 시절을 어떻게 버텼나 싶지만, 이제는 농사가 그리워 다시 시골로 돌아왔다.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마당에 그네를 만들어 손자 손녀들이 뛰어놀게 해주고 싶은 것이다. 나는 비록 엄마라는 이유로 한평생 고생했지만, 나의 땀과 눈물이 젖은 땅 위에서 아이들은 활짝 웃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나는 할머니가 됐지만, 마음은 아직 늙지 않아 여전히 청춘처럼 새로운 꿈들을 꾼다.

가버린 세월은 다시 잡을 수 없고, 고생만 해온 내 팔자도 되돌릴 수 없다. 그래도 내게는 따뜻한 가족이 있다. 모두 착하게 자라난 아이들을 보며 내가 허투루 산 것은 아니란 위안에 주름 편 입가에 웃음꽃이 번진다. 그 옛날 텃밭에 키우던 형형색색의 꽃들처럼, 내 입가의 웃음꽃도 자연의 순리대로 주름이 졌다. 그런데도 그리 서럽지 않은 것은, 내가 여성으로서, 농업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내 몫을 해냈다는 자긍심 덕분이다.



난할수있다

조연희

저는 농협중앙회에서 10년 근무하고 연년생 육아 문제로 퇴직하면서 사업하는 남편과 삼 남매의 자녀를 가진 다복한 가정을 꾸리며 부러운 것 없는 여느 주부로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건설 중장비 하는 남편의 수고로움으로 주는 생활비를 소중히 여기며 알뜰살뜰 모아 남들 앞에 보란 듯이 멋진 정원을 가진 집도 지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아를 잃어버린 보상을 받아내려는 듯 나는 열혈 엄마가 되어 자녀교육에 최선을 다했고 덕분에 공부 잘하는 자식을 둔 엄마,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으로 세상 부러운 것 없는 저였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농지에 소일거리로 농사를 지으며 용돈 버는

재미 또한 쏠쏠했습니다. 세상사는 게 자체가 이렇게 재미있고 신바람 날까 싶은 정도로 나는 꽃길만 걷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느 날부터 남편을 찾는 전화가 부쩍 많아지고 은행직원이라면서 남편분과 통화가 안 된다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을 느끼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봤지만, 남편은 아무 일 없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도리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토목공사 하청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00mL 이상의 폭우를 몰고 온 태풍 '나리'에 의해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시간이 더 많아졌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음식 준비하는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는 업자가 찾아오고 우리 가족은 두려움과 공포로 불안하게 지내야만 했습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기와 밖에는 채권자, 사채업자까지 들이닥쳐 너무나 두려웠던 저는 죽은 듯이 아이를 부둥켜안고 어서 어두운 밤이 지나길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과 당장 먹어야 할 양식이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고통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죽으려고 할 때마다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책임감 때문에 미안해서 죽음을 포기했습니다. 믿고 의지했던 남편은 실패했다는 절망과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지만, 저라도 무언가 해내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현실을 인지하고 악착같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교원 임용고시를 앞둔 딸과 서울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한 큰아

들, 중3인 막내아들 뒷바라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둘도 없이 식구처럼 지냈던 친구들에게도 도움을 청해도 실패한 친구에게서 피해당할까? 저 스스로 조심하며 피했습니다. 그때 저는 어려워 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동안 소일거리로 했던 농사를 절박한 생계 해결을 위해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고소득 작물을 찾아보고 부딪치면서 밤을 낮처럼 모든 작물 하나하나에 매달렸습니다. 제주 농업기술센터 계장님으로부터 초당 옥수수 재배를 권유받고 낮에는 초당 옥수수에 지극정성 쏟아냈고, 밤에는 한 박스에 3천 원 하는 상추를 자정 넘어까지 피곤함과 모기와 싸워가며 희미한 어둠 속에서 감각에 의지하여 수확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하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려고 죽을힘을 내며 열심히 생활했습니다. 빚으로 넘어간 농지는 소유주가 감사하게도 임대료 없이 경작하라고 대신 수확물이나 보내달라며 제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너무나 큰 행운이었습니다. 죽으라는 팔자는 아니었던 가봅니다.

큰아들은 휴학하여 입대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주고 임용고시에 응시했던 딸은 합격하여 절망적이었던 우리 가정에 위안과 희망이 생겼습니다. 자식 둘이 경제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혹은 타의에 의해서 어쨌거나 부담을 줄여줘 약간은 수월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 초당 옥수수 재배는 성공했고 알려지지 않는 작물이라 판로가 없어 전량 농산물 경매시장으로 계통 출하하였습니다. 중매인들 사이에 반응이 좋아 5kg 망당(14~15개들이) 25,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어 농사에 대한 가능성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운 좋게도 방송작가의 요청으로 'KBS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제 농장의 초당 옥수수가 전국에 방영되었습니다. 이어 'TV조선 만물상', 'JIBS'와 'KCTV'에서도 저희 초당 옥수수가 방영되면서 조연희라는 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거래를 처음 시작하였고. 유통업자들께서도 판매해보겠다고 농산물을 공급해 달라는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직거래로 유통되는 상품이라 최고의 농산물을 만들어 내고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더더욱 지극정성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가 먹는다'는 신념으로 농사를 지으며 정성과 따뜻함이 담긴 '엄마 손길'이라는 농장 명도 지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둡고 암울한 밑바닥에서 나도 모르게 서서히 희망의 시간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감귤 농사도 해보라며 과수원 임대도 받아 여름엔 초당 옥수수로, 겨울에는 감귤로 직거래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던 생활에서 약간의 통장에 비축하는 여유로움 마저 생겨났습니다. 다시는 두렵고 고통의 시절로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은행의 도움을 얻어 800평의 농지와 자택을 구입하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될 줄이야…' 안도의 한숨도 잠시…. 남편의 사고 소식 전화를 받았습니다.

119 소방대원 다급한 목소리로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응급실로 간다는 청천벽력 같은 전화에 우리를 또다시 절망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남편을 간호하랴 낮에 농사를 지으랴 녹초가 되어 쓰러질 듯 해도, 절대 좌절하지 않으려고 다시 이를 악물었습니다.

덕분에 서로 보듬고 챙기면서 우리 가족의 결속력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발 완쾌되길 빌고 빌면서 아이들은 저마저 쓰러질까 봐 엄마를 위로하기 바빴습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는 돈만 있으면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나서 건강을 잃어보니 건강이 가장 소중하고 행복이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건강을 되찾아 우리 가족은 다시 웃음꽃이 피어나고 나는 세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해낼 수 있는 자신감으로 마음 근육이 단련되었습니다. 주저하기엔 내가 해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 하고 싶은 욕심에 농업인 정보화 단체에 가입하여 뜨거운 뙤약볕에 지친 몸을 쉴 새 없이 밤에 SNS, 온라인 통신판매 교육을 빠짐없이 받으러 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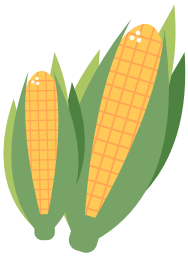
간절한 마음이 닿았는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제주 초당 옥수수 쇼핑 윈도우 1페이지에 뜨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농산물을 만들기 위해 독자적인 재배 기술, 품종 선택, 영양제 자가 제조에 충실하여 맛을 좋게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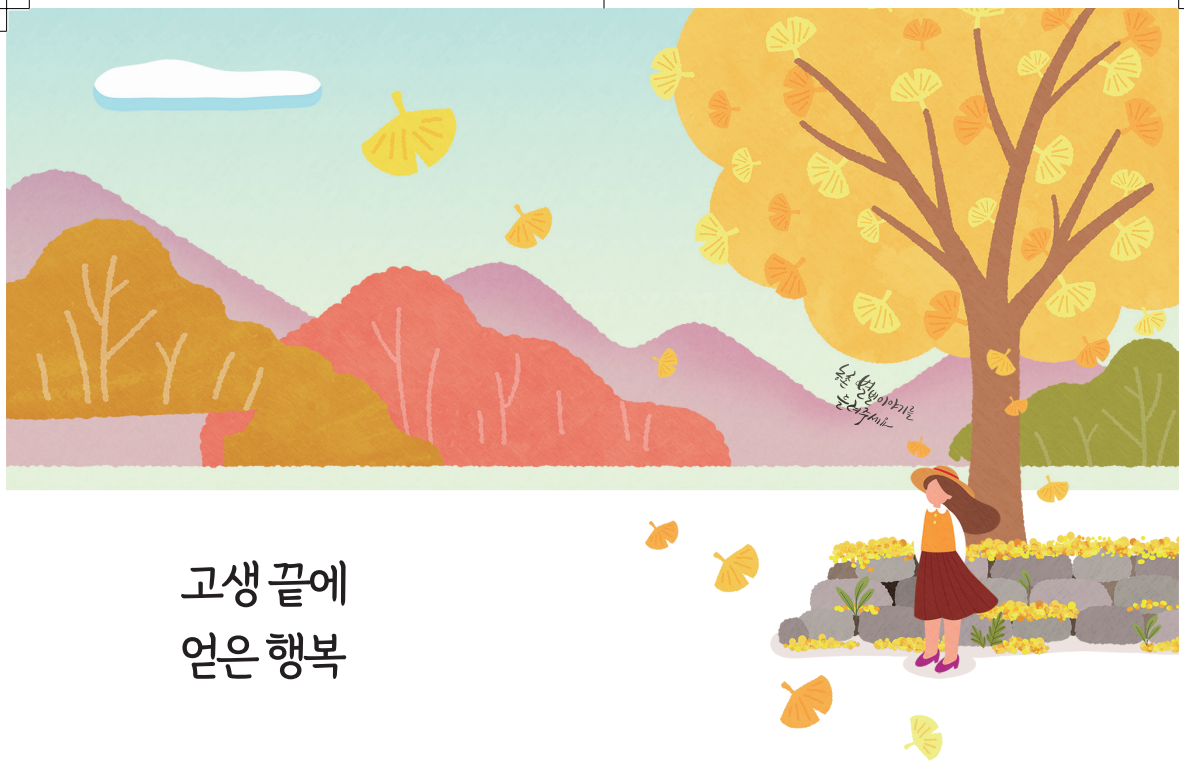
덕분에 조연희 엄마 손길을 믿고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지고, 연매출 1억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 농업·농촌 정보화 문화 확산을 위한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에서 제주도 최우수상을 받고, 도 대표로 농촌진흥청에서 정보화 성공사례 발표를 하여 한 번 더 최우수상을 받는 영광스러운 일도 해냈습니다.

2019년부터 제주 농업기술센터에서 귀농, 귀촌 신규농업인들께 현장실습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제가 가진 재배 기술을 가르치고 있

습니다. 내가 겪어 본 어렵고 힘든 농업이기에 첫발을 디딘 신규농업인들에게 시행착오 없이 성공하기를 빌며, 더욱 정성껏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기를 쓰면서 그동안의 힘들고 암울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잘 이겨낸 저를 토닥토닥 위로하며 잘 해냈다! 스스로 칭찬했습니다. 인내하며 가족애로 훌쩍 큰사람이 돼 버린 아이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 있는 건강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 속에 포기하려던 저에게 엄마는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며 '강인한 엄마 화이팅!'이라며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준 아이들에게 결코 실망감을 주지 않으려 아침마다 다짐합니다.





고생 끝에 얻은 행복

최명자

나는 익산시 왕궁면 시골 작은 마을에서 3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나 1960년대와 70년대를 어렵게 살았다. 하얀 쌀밥 위에 계란프라이가 있는 도시락을 먹어보는 게 소원이었을 만큼 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나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돕고자 땔감을 찾아 산을 올랐고, 물지게를 지고 항아리에 물을 길어 채웠으며, 소가 먹을 풀을 베어 외양간에 나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다. 어린 남동생들을 돌보는 일 역시 언제나 내 몫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활달한 성격에 공부도 제법 잘했던 나는 멋진 제복을 입는 여군 또는 여경이 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고자 열심히 학교 다니며 공부하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보증 서준 것이 잘못되어 집 앞에 빚

쟁이들이 줄을 이었다.

우리 가족의 딱한 사정을 들은 이웃들의 도움으로 조그만 초가집을 마련하여 간신히 생활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나에게 "동생들을 위해 중학교에 가지 말고, 빚 갚는 데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안 된다고, 남동생들은 공부도 못한다."라고 울고불고 떼를 썼지만, 부모님께서는 "딸인 네가 양보를 하는 게 맞다"라며 자꾸만 말씀하셨다. '내가 딸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양보를…. 난 싫은데….' 속상한 마음에 몇 날 며칠을 울다가 결국 부모님 뜻대로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다.

교복 입은 친구들을 보면 죄라도 지은 것처럼 작은 몸을 숨기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등·하교하는 친구들을 보지 않으려고 일부러 새벽녘에 일터로 향했다가, 해 질 무렵에 돌아오곤 하면서 나는 세상 사는 방법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험난하고 힘든 인생길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배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이기에 빚을 갚고, 남동생들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부모님을 따라 남자 못지않은 일들을 척척 해냈다. 여자 농군으로 지게를 지기에 어렸던 나는 힘들고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인생이란 절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음을 느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거라는 꿈과 희망을 안고, 밤하늘의 은하수와 별을 벗 삼아 모깃불을 피운 채 담뱃잎을 엮고, 일본인들의 옷감을 만들며, 아들이 아닌 딸로서 부모님께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다 보니 우리 집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잃었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날 무

렵 내 나이는 26살이었고, 그해 중매로 선을 보게 되었다.

맞선남은 40대 중반에 과부가 되어 홀로 고생하신 어머님이 계시고, 위로는 누나가 다섯, 아래로는 동생이 둘이 있는 집의 장남이었다. "그리 좋은 조건은 아니지만, 인상이 좋고 선해 보인다."라며 부모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 나는 몇 번의 만남을 가지며 고민하다가 둘째보다는 나와 위치가 같은 장남이 나을 것 같아 결혼을 약속하고, 아름다운 꽃길만 걷기를 바라면서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했다.

그런데…. 현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꿔온 내 기대와는 사뭇 달랐다. 인자하고 자비롭던 시어머님의 표정은 점점 무섭게 변하였고, 근엄한 목소리로 훈계하시는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면 내 마음을 아는 것 같아 괜스레 눈물이 났다.

괜찮은 날도 더러 있었지만, 유난히 시집살이가 힘겨울 때면 왜 그리 엄마 얼굴이 더 생각나고 보고 싶은지…. 의지할 수 있는 남편이 있어도 왠지 모를 외로움에 석양에 지는 해와 붉게 물든 노을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 흘린 적도 많고, 쓸쓸함에 밤하늘에 홀로 떠 있는 달을 보며 정처 없이 걸은 적도 많았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친정집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음에 '결혼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런 내가 안쓰러웠는지 시어머님이 며칠씩 집을 비우실 때면 남편은 내게 친정에 다녀오라고 했다. 친정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날아가는 것처럼 가벼웠다. 한 번에 가는 교통편이 없어 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시어머님 몰래 다녀오는 그 마음은 얼마나 좋고 또 좋은지…. '가도 가도 또 가고 싶은 친정! 가면 오기 싫은 시댁! 이런 게 시집살

축
결혼식장

우리 엄마의
생신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일동-

이인가?' 싶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예쁜 두 딸을 2살 터울로 낳고, 4년 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어도 계속되는 시집살이를 견디며, 시어머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기독교 신앙 덕분이었다. 나도 모르게 나쁜 생각이 들 때면 기도로 마음에 평안을 얻으며 시어머님의 뜻을 따랐다. 주위 어르신들이 내 등을 다독거리시며 "많이 힘들지? 나중에 복으로 다 받을껴~"라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면 왜 그리 눈물이 나던지….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는 주위 어르신들이 계시고, 하나님이 있으심에 힘을 얻으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농협에서 '주부대학'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농사일만 하는 여성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여 서둘러 원서를 냈다. 중학교 진학을 포기했던 내게 '주부대학'이라는 단어는 남들과 다르게 다가왔다. 시어머님의 꾸중이 무서워 농사일을 열심히 해가며 매시간 빠짐없이 다녔다. 훌륭하신 강사님들의 강의는 나 자신은 물론 시어머님과의 관계, 그리고 가정경제를 180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소리 내어 노래 부를 때는 답답했던 내 마음이 시원해짐을 느꼈고, 고달픈 인생 강연을 들을 때면 울다가 웃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자산을 모으는 지혜를 가르쳐주신 강사님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농협을 가까이하라고 하셔서 소양농협을 '나의 농협'으로 만드는 데 힘을 모았다.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남편은 벼농사를 철쭉 농사로 바꾸고, 묘목 농사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 조경사업을 하면서 돈이 모였고, 나는 농협의

문턱을 넘나들며 적금과 공제를 가입하기 시작했다. 농협중앙회에서 전국 단위 공제, 적금 가입 고객 중 일정 인원을 선정하여 '금강산 여행'을 보내주는 행사가 있었는데, 소양면 대표로 우리 부부가 뽑혀서 여행을 다녀왔다. 그때의 뿌듯함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날 이후 '가슴이 떨릴 때 여행하라'는 어느 강사님 말에 나는 농사일을 하면서 틈틈이 많은 나라를 여행하며 즐기고 있다. 견문도 넓히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에 감동하면서 힐링의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는 또 다음 여행을 기약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년에는 군청에서 작은 동화책을 만들어 보는 기회가 있어서 즐겁게 참여한 결과 세상에 하나뿐인 내 책이 제작되었다. 작은 도서관에 일정 기간 전시가 되었는데 많은 이들에게 호평받았고, 군수님 외 많은 관계자로부터 칭송받았다. 비록 여군이나 여경이 되는 꿈을 이루진 못했지만 젊은 날에 고생한 결과 '작가'라는 열매를 얻은 것 같아 큰 보람을 느꼈다.

40년 전에 만났던 남편은 지금까지도 한결같고, 특별하게 멋은 없지만, 감동을 주는 마음만은 변함이 없다. 내 삶이 힘든 나머지 호되게 키운 3남매는 나의 보물 1호이다. 친구처럼 수다도 떨고, 쇼핑을 즐겨주는 두 딸, 존재만으로 든든하고 마음에 벅찬 아들이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이루면서 듬직한 두 사위와 딸 같은 며느리를 새로운 가족으로 만났고, 청주와 안양에 살고 있어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가족 행사가 있을 때면 다함께 만나 일상을 나누며, 티 없이 맑은 손자, 손녀들의 재롱에 여유를 얻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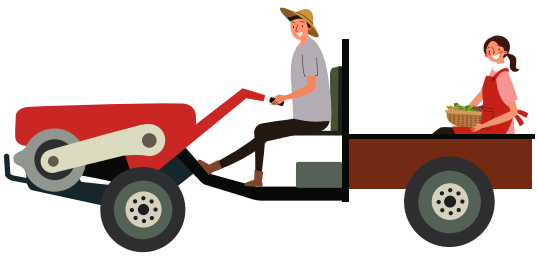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시댁 식구들과 올해로 103세가 되신 시어머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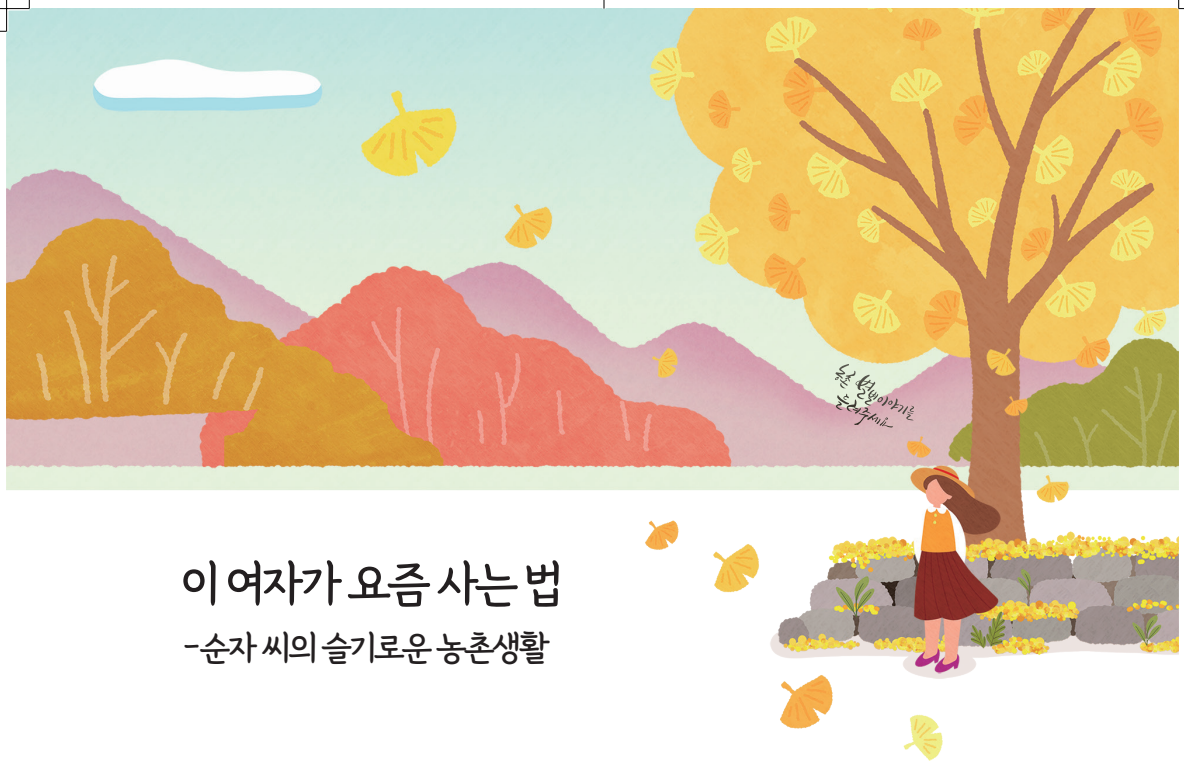
께서도 지금의 나에게 종종 애썼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신다. 노령으로 몸도 편찮으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님을 보면 그 당당하신 모습이 사라져서 마음 한편이 짠하기도 하고, 인생이 쉬 사라졌다고 허무해하시는 표정에 속상하기까지 하다.

그 마음이 계기가 되어 지금은 마을 어르신들을 부모님처럼 섬기고, 남모르게 거친 일을 청소하는 마을 이장이 된 나는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노력하며 작은 농촌 마을을 지키고 있다.

농협의 소개로 생활 수기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 지난날의 내 삶이 오늘날에 수필이 되니 그동안 아팠던 마음이 치유되는 것 같아 감사하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부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해준 농협에 감사 인사를 건네고 싶다.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내 삶의 터전이 농촌인지라 고생도 많이 했지만, 농촌에서만 맛볼 수 있는 혜택을 누리며 사는 나는 도시에 사는 그 누구보다 행복하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영농회장으로서 '농민들의 수고와 땀을 결실로 보답하는 농촌', '농민을 지키고, 농촌을 살리는 농협'을 벗 삼아 아름답고 살만한 인생을 함께 살기 위해 어르신들을 배려하고, 새내기 농민들의 어려움을 나누는 멋진 시골 할머니가 되겠노라고 다짐하며 이 글을 마친다.





이 여자가 요즘 사는 법

-순자 씨의 슬기로운 농촌생활

최순자

2022년 7월 23일 토요일 오전

"안녕하십니까. 마을주민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주에 한 번 진행하는 적덕마을 방송국이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토요일 낮 12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마을 곳곳 마을 스피커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점심을 드시면서 일을 하시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 전하고 싶은 이야기 언제든지 신청하세요. 오늘 낮 12시 적덕마을 방송 신토불이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요. 꺼밍쑨"

나의 아침은 회관 2층 방송실에서 마을 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주말이라 너무 일찍 방송하면 그러니 새벽 밭일을 조금 하다가 오전 8시쯤 장화

신은 채로 방송실로 향합니다. 오늘은 '적덕마을 방송국'의 '여기는 JDBS 신토불이입니다' 방송이 있는 날입니다.

각 DJ가 진행하는 코너도 다양합니다. 노래를 소개하는 '싱송라디오', 마을주민을 소개하는 '적덕, 주민이 알고 싶다', 마을 꽃차 소믈리에들이 만드는 다양한 꽃차와 수제 먹거리를 소개하는 '꽃 따러 가세', 마음의 편지를 담은 '너에게로 가는 편지', 마을의 방방곡곡 소식을 전하는 '적덕 구석구석 이바구'. 나를 포함하여 4명의 DJ가 각 코너를 준비합니다. 전체 점검을 해야 하는 나는 오늘 아침이 유난히 바쁩니다. 방송 전 최종리허설을 위해 10시 30분에 모여 마지막 방송대본 연습을 하고 오늘 틀어줄 각 코너 노래가 다 준비되었는지, 마을회관 옥상과 형욱이아주버니집 옥상에 설치된 마을 스피커인 방송나발은 이상이 없는지, 오늘 방문하기로 한 손님은 어느 시간대에 오실 건지, 마치고 먹을 김밥을 챙기는 일까지 점검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올해 2월 드디어 공모사업이 떴습니다. 주민 3명 이상이 모여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라면 무엇이라도 응모할 수 있는 경상남도의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이 그것입니다. 마을에서 아이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마을방송국이었습니다. 이장님의 전유물인 마을 방송시설을 주민들의 재밌는 일상으로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촌에서 인구수에는 포함되도 마을주민으로 제대로 쳐주지 않는 청소년들도 당당히 마을 활동을 함께하는 마을구성원으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마을 활동으로 쌓아온 노력을 바탕으로 신랑이 이장일 때 일을 벌였습니다. 10여 년 전 마을 공부방을 시작했던 아이들이 이제 중

고등학생이 되어서 방송반의 로망을 안고 모였습니다. 하고 싶은 아이들 3명 세현, 다른, 송은이와 방송 장비지원과 관리, 홍보 등을 함께해줄 청년회 몇 명을 꼬셔서 '적덕마을 방송반 동뫼소리'를 급조합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판기를 두드리며 공모신청서를 만들 때는 이미 선정이 되어서 방송의 날개를 쫙 펴고 있었습니다. 이후 진짜 선정이 됐고, 아이들의 기말고사 준비로 첫 방을 미룬 뒤 지난 7월 말 개국 방송을 하였습니다. 첫 방송 때 온 마을이 들썩였고 마을 쉼터에는 이른 휴가를 온 각 집의 자녀들과 마을 어르신들, 동네 아이들까지 잔치판이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permission to dance〉부터 영탁의 〈찐이야〉까지 마을 방송나발은 신나게 음악을 들려줍니다. 방송반 아이들은 기대 이상으로 방송 진행을 잘하였고 톡톡 튀는 센스에 생방송임에도 각자의 능력을 맘껏 발휘하며 자신감이 급상승합니다.

2주 뒤에 만나요 JIBS. 오늘 첫 방송은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수요일 낮 2시

마을청년회 사무실에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들어오십니다. 철모네, 달매네, 영민네, 하진네, 다은이네 외할머니. 오늘은 노인당이 아니라 청년회로 오시라 했습니다. 지난 5월 청년회를 동원해서 만들었던 다랑논 아래쪽에 조성한 쉼터가 그야말로 풀밭이 돼버렸습니다. 심었던 작물들보다 풀이 먼저 뒤덮였고 이곳의 관리를 위해 마을 다랑논 사업단 내 쉼터관리팀으로 특별히 차출된 마을 어르신들입니다. 최근에 허리, 무릎 수술로 도저히 쪼그리고 앉아 호미질을 못 하는 재준네가 서운해할지도 모

르겠습니다. (이 형님은 두 달 뒤에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꽃차 손질팀으로 일합니다.) 마을 다랑논 사업을 간략하게 브리핑(?)하고 당신들이 해야 할 중요한 쉼터 관리에 대해 부탁을 드립니다.

당연히 최저임금에 하루 최대 2시간, 한 달에 2회 정도의 보수를 보장하는 다랑논사업단의 중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어머니들이 하시는 이일이 우리 다랑논 사업 공간의 얼굴인 쉼터를 빛나게 하는 일이라 목청 높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작년부터 어르신들을 꾀었던 마을 내 공공일자리(?)를 처음 설명하는 자리가 돼버린 셈입니다. 어르신들은 면에서 노란 조끼 입고 하는 노인 일자리를 부러워하지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촌에서는 꼼지락거릴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꼼지락거리는 것이 어르신들이 젤 무서워하는 치매 안 걸리는 길이라 강조하며 마을에서 당신들이 특별히 뽑히신 거라 약간의 사기(?)도 칩니다.

70대 하진네부터 90대 달매네까지 특별한 요원이 된 것처럼 눈을 반짝이고 하시는 말. "우리는 다은이즈어매가 시키는대로 하면 안 되겠나. 마 한 달에 두 번이 아니라 맨날 해주게. 병신인 내가 머 알것노. 순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하" 마을에서 큰 딸내미 이름을 붙여 다은네로 불리는 나한테 공부방 할 때부터 한 번씩 불러주시던 순자선생님하며 농담도 건네십니다. 우선 그중 제일 젊은 70대 하진네 형님이 쉼터관리팀장이니 사이좋게 잘해보자며 당부합니다.

오늘 브리핑을 마치며 오신 김에 밀린 마리골드꽃 손질 좀 부탁하며 어영부영 일을 시켜도 즐겁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쉼터에 첫 풀매기 작업 날이 정해졌습니다. 하루 2시간 초과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르신들의 의욕 상 그 약속은 안 지켜질 겁니다. 선선할 때 한다고 새벽 5시에 모여 평생 해오신 전문적인 호미질로 순식간에 풀밭이 깨끗해집니다. 7시를 훌쩍 넘겨도 작업을 마치시지 않으니 강제로 해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남은 고구마밭까지 매고 간다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풀밭이 된 마을 도라지밭도 깨끗이 만들어놓습니다.

2022년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목요일은 하던 밭일도 내버려 두고 기타 메고 중학생인 작은 딸내미와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웃담기타' 우리는 마을 기타반의 회원입니다. 총무인 남숙이는 먼저 와서 의자도 정리하고 간식도 챙겨놓습니다. 맨날 '아야' 곡소리 내면서도 기타 메고 들어오는 부녀회장인 정자 행님은 기타반 회장입니다. 무뚝뚝한 듯 하면서도 기타 줄을 함께 튕기고 있는 남숙이 아들 승현이도 들어옵니다. 작은딸 내미는 보드라운 손으로 어찌나 잘 치는지 우리 기타반의 에이스입니다.

막걸리 마셔가며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은 나의 오래된 버킷리스트였습니다. 20년 전에 선물 받은 큰 통기타를 짬짬이 배우다 포기하다를 반복하였습니다. 농사가 주업인 내가 농산물을 얼마나 많이 팔아야 기타레슨비를 감당하겠냐며 남숙이랑 복지관 수업에도 가보고 독학도 해보았지만 마의 F코드에 번번이 접었습니다. 애지중지 간직해오다 드디어 작년에 다같이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악기 하나쯤은 할 줄 알아야 노후가 재밌지 않겠냐며 우리 노후를 같이 준비해보기로 합니다.

통영시의 배우고 싶은 곳에 찾아가는 '딩동 강좌'를 알게 되고 신청하

여 선정됩니다. 문제는 다른 강좌에 비해 강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봉사 수준의 강사료에 저녁 시간 시내도 아닌 촌에까지 오려는 강사는 없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마을로 귀촌한 적덕마을 귀촌 1호 대정이 삼촌네입니다. 많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서인지 기타도 당연히 할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저는 그렇게 가르칠 수준이 못 됩니다. 허허"

"으메 삼촌, 삼촌 아니면 가리늦게 이리 기타 배워보겠다는 촌의 우리들을 누가 할깁니까. 우리가 머 전문기타리스트가 될 것도 아이고 한 번씩 기타치고 노래 부르며 술 한잔 하구로 쪼매만 가르쳐 주이소"

결국 대전이 삼촌은 우리의 기타 선생이 되었고 몇 주가 되도록 〈나비야〉도 헤매는 실력이지만 잘한다고 잘한다며 우리가 드디어 기타 치며 노래 부를 수 있는 길을 터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장사업을 하는 삼촌은 하반기에는 시간을 낼 수 없어서 기타 선생을 그만두게 됩니다. 통영시 딩동 강좌사업의 취지에 우리 마을 기타반이 제일 맞는다며 매니저 선생님의 도움으로 아주 고급스러운 기타전문 선생님을 모시게 됩니다. 우리의 배움은 끊어지지 않았고 작년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우리 마을교회에서 특별초청공연을 하였습니다. 아직 풋내기 수준이지만 신자도 아닌 우리들은 〈내게 강 같은 평화〉, 〈고요한밤〉 등으로 교회분들의 떼창도 끌어냈고 앙코르까지 받아 〈섬집아기〉도 들려드렸습니다.

신자와 비신자가 반반 정도인 우리 마을에서 맞지도 않는 코드지만 함께한 노래는 진정한 성탄절의 축복을 나눈 거였지요. 한 여름날 저녁 마당 평상에 앉아 〈비바람이 치던 바다〉를 부르는 게 평생 로망이라던 정

자 형님은 못 하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아직도 목요일이 되면 축사에서 소밥 주고 늦어도 꼬박꼬박 회관에 내려옵니다. 촌에서 같은 취미를 함께 모여서 하는 재미. 그것이 농사일에 몸이 힘들어도 그날이 되면 발걸음은 회관으로 향하는 거로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10월 말에는 시내 음악 행사 무대에 서게 되어서 열심히 치고 있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어요.

2022년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

우리 마을에는 꽃차 소믈리에 반(꽃차반)이 있습니다. 마을특화사업의 하나로 마을에서 나는 각종 꽃과 농산물로 꽃차, 꽃소금, 다양한 수제 먹거리 등을 만들지요. 3년여의 긴 시간 동안에 교육받고 역량을 높여왔어요. 나는 마을특화사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꽃차 반의 운영을 돕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시어른들이 아파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오래된 서울 생활으로 아직은 도시녀 같은 양숙 형님, 〈빨간 머리 앤〉에 나오는 목사 사모님 같은 교회 영미 사모님, 기타 칠 때도 꽃차 작업할 때도 '아야 아야' 하지만 이제는 꽃소금 전문가가 된 정자 행님, 늙은 내를 끼워줘서 고맙다지만 그렇게 늙지도 않은 70대 청춘 부귀 형님, 그리고 야무진 손 맵시와 눈썰미를 가진 촌에서는 보기 드문 미시즈 적덕인 남숙이까지, 각자 일하다가 매주 화요일이 되면 회관 2층으로 모입니다. 이제는 한 3년 하다 보니 화요일은 집마다 신랑들이 포기한 모양입니다. 알아서 밥을 챙겨 먹는다지만 이날은 다들 더 부지런을 떨어 미리 밥이며 반찬을 챙겨놓고 온다는

것은 다 아는 비밀입니다. 농촌 여성들을 밥에서 해방되는 건 먼 숙제일까요?

오늘은 마을 앞바다에서 위장에 좋다는 번행초를 뜯어와서 소금 작업을 합니다. 겨울에는 시금치로 소금을 하니 푸른빛이 너무 이뻤는데 여름에는 소금 세트 구성을 고민하니 번행초가 아이디어로 제안된 것입니다. 번행초도 끝물이라 어떡할까 하다 또 누가 우리 바닷가에 함초도 많은데 그것은 어떻냐랍니다. 부귀 형님은 바다에 내려가 함초를 한가득 뜯어오고 꽃소금을 만드니 국방색 진한 푸른빛이 그렇게 빛날 수가 없습니다. 몇 주 아팠던 영미 사모님은 미안하다며 샌드위치와 복숭아를 갖고 오셨고 남숙이는 오늘 뜯어보자며 옛날 통닭 4마리를 사 왔습니다. 그간 서운함이 있었던 양숙행님은 말 안 할 거라더니 살짝 자리 깔아주니 그간 속상했던 감정을 풀어냅니다. 꽃차 반 회장인 남숙이는 연신 행님들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얼굴 이쁜 것들은 성질이 좀 고약하더라며 깐죽대는 정자 형님한테 행님집 길가창문 오늘 밤 조심하라며 농담을 던지고 TV에서처럼 싸운 뒤 화해하는 행동을 해보라 부추겼습니다.

"남숙 회장님! 양숙 행님 안아주세요, 오늘의 엑스맨 정자 행님도 안아주세요, 아파서 핼쑥해진 영미 사모님도 안아주세요, 안 안아주면 서운합니다. 부귀행님도 안아주세요"

왁자지껄 한바탕 후 이어지는 수다. 마을에 너무 늘어나 골칫거리인 고양이 얘기부터 치매가 있어 길가에 감 떨어진 것을 부귀행님 밭으로 던져서 환장하겠다는 수다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도 끝이 없겠습니다. 꽃

차 반 작업장은 마을 꽃차 소믈리에들의 전문적인 공간인 동시에 수다로 풀어내는 우리 마을 여성들 삶의 사랑방입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여성농민의 법적지위보장,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오늘은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여성농민대회에 갔습니다. 나는 농민이고 여성농민입니다. 농업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고 오히려 여성농민은 소위 죽을 때까지 호미를 쥐고 일하다가 죽습니다. 여성농민들의 밭농사 강도는 높고 제대로 된 보장과 지원은 멀기만 합니다. 농민들은 생산한 농산물가격을 정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로컬매장에 부추, 호박잎, 박, 대파를 갖다 내며 친정엄마, 신랑 그리고 나 세 명이 반나절 작업해서 낸 것이 5만원도 안 됩니다. 소비자의 구미에 맞게 소포장하고 깨끗하게 다듬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이슬 깨고 당일 작업해야 합니다. 매장에 물건을 전시하고 오늘도 완판하겠지만 재작년이나 올해나 변함없는 아니 더 내려야 하는 가격에 한숨이 나옵니다.

오늘은 열일을 제치고 창원에서 열리는 경남여성농민대회에 갔습니다. 여름 피약볕에 검게 그을린 80세 넘으신 여성농민언니도 있고 아이 넷에 너무도 이 현실이 속상해 왔다는 새댁도 있습니다. 도청 앞을 지나가는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청 안에 있는 높으신 분들, 멀리 용산에 있는 분에게까지 들리도록 목청 높여 외치고 나니 속이 후련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우고 다시 논으로 밭으로 나가서 땅을 일구면서 우리 여성농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그날까지 함께하자며 약속하고 돌아오는 오늘

KOREA
ARMY

이었습니다.

여성농민으로 살아가는 나 최순자-20대 때 농활에 가면 참 좋았습니다. 그래 이 길이 나의 길이다 싶어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가방 하나 달랑 메고 20대 중반 가출해 경남 고성에서 농민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은 구닥다리 구호가 아니라 정말 농업은 이 나라의 근본이요,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민이 제대로 대접받는 게 당연함을 농활을 통해서 배웠고, 어려운 시절 아스팔트 농사까지 짓는 농촌의 나이 드신 어른들을 보면서 이 길에 나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논 100마지기에 소 20마리. 이 정도는 있는 농촌총각과 결혼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니, 같이 활동하는 농민회 어르신들은 맞선이라는 것도 많이 주선하며 농촌총각 하나도 해결하고 나도 고성에 자리 잡게 하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러나 소 20마리는커녕 개 한 마리도 없고 논 100마지기는커녕 제일 큰 논이 겨우 200평이고 천수답 다랑논 곳곳에 밭농사가 더 많은 고성 옆의 통영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농사도 어머니가 짓는 것이고 신랑 될 사람은 농업을 주업으로 할 의지는 없어 보였습니다. 둘 다 눈에 뭐가 씌었을까요.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활동에 비록 돈은 안되더라도 이 한 몸 바치겠다는 의지가 맞아서 결혼하였습니다. 우리는 농사를 생태 친화적으로 짓기 위해 큰 노력도 하였으나 점점 늘어가는 것은 일한만큼 늘어난다는 빚이었습니다.

우리 마을은 바다와 섬을 끼고 있는 농어촌마을이라 늘 바다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투기하려는 나쁜 놈들의 작당질로 점점 시끄러워졌습니다. 밀양박씨 규정공파 집성촌이라 주민 90% 이상이 박씨 집안이고 나머

지 성씨들도 외가나 사돈 팔촌 정도로 맺어진 가까운 관계들이었습니다. 신랑을 중심으로 한 젊은 사람들 및 비어촌계 주민들과 어촌계 쪽 주민들이 바다 매립 문제, 조선소 블록공장 문제, 보상금 문제, 산업단지 지정 문제로 조용하던 농어촌마을은 하루가 멀다하고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 동네 앞 논밭이 시멘트로 메꿔지고 조선소 블록공장이 들어서 그마저 1년 만에 망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거대한 시멘트 블록만 쌓인 채 방치된 산업단지는 지정과 해제를 번복하며 10년이 되도록 가동도 못 합니다. 마을주민들 간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경선투표를 통해 이장선출을 하고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과 젊은 사람들의 투표로 신랑은 이장을 맡게 됩니다. 젊은 이장이 선출되었지만, 앙금은 사그라지지 않았기에 마을을 통합하는 일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당시 나는 7살, 5살 딸내미들과 뱃속에 셋째가 있었고, 마을 절친은 8살, 6살을 키우면서 우리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아이들이 좀 많았습니다. 할머니랑 사는 아이, 다문화가정의 아이, 고향으로 온 한부모가정의 아이를 비롯해 10명이 조금 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학원 차도 안 오려고 하고, 편의점도 하나 없고 치킨·피자도 아무리 많이 시켜도 멀다고 안 갖다줍니다. 소소한 놀이터도 없습니다.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 의료적으로도 불편한 게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을 공부방을 만들어 마을 아이들을 같이 놀게 할 준비를 했습니다.

외지의 향우들에게 25만원을 후원받아 장구 5개를 구입하여 마을노인당으로 들어갔습니다. 후원금 25만원과 '할머니에게 배우는 장구수업',

그것은 우리 마을공부방의 시작이었고 종잣돈이었습니다. 뜻있는 선생님들의 재능기부로 문화예술, 체육 축제가 항상 이어지는 통영에서 정말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마을 아이들은 조선시대 한양에서 통제영으로 부임하면 오게 되는 20킬로가 넘는 고성에서 통영까지의 통제사 길을 같이 걸으며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통영의 역사를 배우고, 통영 곳곳에 펼쳐진 통영이야기 길을 걸으며 통영을 알아나갑니다.

옛날 아빠들이 10리 길을 걸어서 다녔던 학교 가는 길을 걸어보기도 합니다. 마을회관 뒤쪽 마을 중심부에 빈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전엔 그 집 아재가 방앗간을 했던 곳이라 넓은 집이었지만 돌아가신 후 비어있게 되었고 무상 임대를 받아 마을 공부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하여 개소식도 하고 만국기도 펄럭이며 마을 공부방을 시작합니다.

지역 아동 센터랑 비교하며 우리 마을 공부방을 우습게 여기던 지자체들은 무시하며 우리 힘으로 만들고 각종 재단의 공모사업도 신청하여 당당히 선정되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엄마들은 돌아가면서 점심을 챙기고 다양한 놀이, 만들기, 각종 체험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공부방인데 학습도 해야 하지 싶어 인근 고등학교 교육동아리 언니 오빠들과 멘토·멘티를 맺어 우리 마을 아이들은 매주 토요일 함께 놀고 공부하는 1명당 2명의 수학샘, 영어샘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대학교 2학년이 된 마을공부방 반장 하진이는 그때 배운 영어 공부법으로 영어에 눈을 뜨게 되었다고 고마워합니다. 공부방 내에 마을 어르신 배움터도 만들어 마을주민 공부방이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을 어르신 배움터가 있는 날입니다. 어르신들은 아침을 드시고 오전 10시까지 노인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방송 소리에 한 분, 두 분 노인당으로 모이고 한 해, 두 해 배움터 이후 받은 단체졸업장은 회관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버스를 타면 이웃 동네 어른들은 적덕은 맨날 뭐를 그리 많이 하냐며 부러움과 시샘을 한다며 동네 어머니들은 자랑합니다. 마을의 화합을 위해 정월에 대보름 달집태우기를 하고 가을 추석에는 마을음악회를 엽니다. 무대부터 공연 출연까지 마을주민이 다 준비하는 한가위 작은 음악회입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소프라노 며느리의 독창과 외지에 사는 아들의 하모니카 연주, 마을 공부방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보여주는 노인당 어머니들 꽃순이 예술단의 공연, 아이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마을 젊은이들의 풍물 공연과 합창까지. 잔디마당에서 대형스크린을 걸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은 피자치킨 배 축구대회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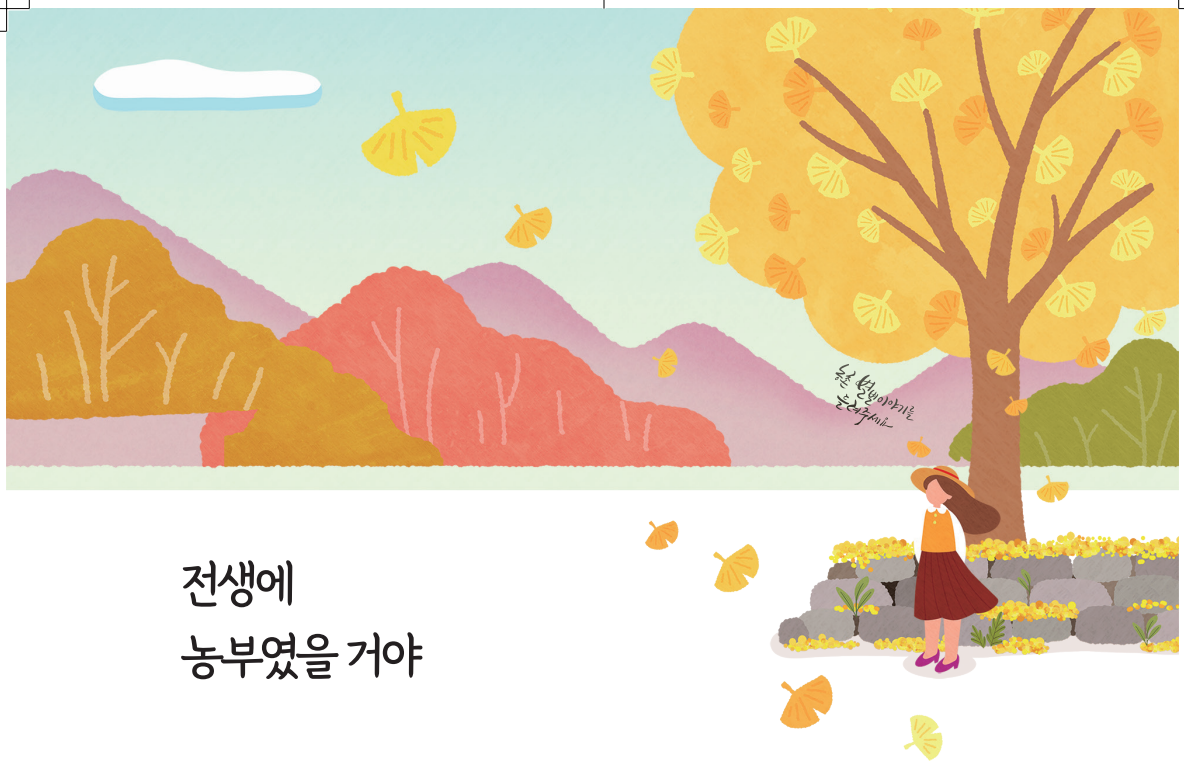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초여름에는 토종 밀사리수업을 오고 늦가을에는 타작이 끝난 들판에서 종일 뒹굴고 적덕마을에서 놀기 수업을 합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아이들 학교에 전통 농촌문화 체험해주러 선생님으로 초대되어 가서 허수아비며 새끼꼬기를 가르쳐줍니다. 학교 문 앞에도 못 가봤는데 극진히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대접도 받고 오십니다. 우리 마을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어깨가 으쓱여지지요.

마을의 상처는 하나씩 아물어가고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7년여의 마을주민과 함께한 공부방의 다양한 활동은 그전에 우리를 우습게 알던 시청에서 국비 사업으로 도전해 마을 발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저는 마을사업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여전히 마을사업의 잔일들이며 실무 일을 하고 있어요. 꽃차 반 작업도 같이하고 기타도 치고 다랑논 쉼터 관리도 합니다. 2주에 한 번은 마을방송국도 진행합니다. 농민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자리에도 가야하고 아직 다 못 맨 풀밭도 어서 오라 손짓합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재밌습니다. 농민임이 자랑스럽습니다. 주업이 농사라 밭에 풀을 매고 고추를 따다가도 마을에 일이 있으면 내려가야 하고 우리 트럭은 하루에 수십번을 시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아침은 친정엄마 강임 씨의 생일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이제는 학력 인정 어르신 학교에 열심히 다니는 엄마에게 감사하며 떡 꾸러미를 만들어 같이 배우는 어르신들과 나눠 드시라며 보냈더니 어깨가 많이 올라가서 다녀오십니다. 작은 촌집에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커 준 아이들. 그리고 영원한 동지 신랑까지.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했던가요. 아름다운 꿈 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네.



전생에 농부였을 거야

추서연

저는 멋모르고 귀농한 햇수로는 귀농 3년 차이고, 정식으로 농부가 된 지는 1년 9개월 차가 됩니다. 귀농해서 집에 있을 때는 해가 있는 동안 쉬어 본 시간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아이들을 보러 가끔 다녀오는 것 말고는 시골에 머무는 농부입니다. 귀농한 날부터 지금까지 병원에서 무릎 수술 후 입원한 열흘과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 격리했을 때 외에는 한 번도 쉬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골 생활과 농사일이 힘은 들지만 많은 것을 제게 되돌려 줍니다. 며칠 전 통화 중 "이젠 도시에서 못 살겠구나."라는 친구의 말에 저는 "그래, 시골이 얼마나 좋은데 도시로 나가냐?"면서 웃었어요. 처음부터 설렘을 가지고 생활한 건 아니

지만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할 게 있겠나'하는 마음으로 농사일과 시골 전원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제가 살아가는 일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은 제 이름을 따서 이름 지은 1000평의 자두 농장 '서연 팜'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또, 500여 평에는 시골집도 자리 잡고 있지만 제가 가꾸는 꽃밭과 텃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자두 농장인 서연 팜 안에서는 기쁘게 일하고 있고, 마당과 뜰 뒷산에 올라서 종일 일을 해도 지치지도 않습니다. 잠시 후회한 적도 있는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1년 9개월 동안 집에 있을 때는 자두밭에서 호미를 들고 풀과 전쟁을 하고 있거나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공간을 찾아내서 정원을 만들고 꽃을 가꾸는 데 온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나 전생에 농부였을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호미파'로 불릴 정도로 호미로 못 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호미로 땅을 1m 이상의 깊이로 파내어 큰 바윗돌 같은 것을 들어낸 적이 있고, 칡뿌리를 캐 본 적도 있어요. 심지어는 깊게 파서 땅속에 갇혀서 종일 땅을 파고들어 간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호미뿐만 아니라 삽, 리어카, 낫, 전지가위 사용도 모두 다 처음이지만 이젠 제법 능숙하게 잘 다룰 줄 알게 되어갑니다. 보통의 남자들보다 일을 잘한다고들 해요. 시골에 와서는 진심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글을 쓰는데도 벅참이 마음에 가득해집니다. 아직 1년 9개월 새내기 농부라서 그럴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죠? 다들 "3년만 지나 봐라. 도시

가 그리울 거야."라고들 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골에서 누리는 일상이 새내기 농부에게는 전부여서인지 이 모든 것에 감사를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시골집을 구하러 전국을 다 다녀본 듯합니다. 결국은 고향인 대구 근교인 성주에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우선은 사투리가 비슷해서 소통에 어려움이 적은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경상도 정서를 잘 아니까 적응이 빨랐을 수도 있고, 코로나 시국에 이사 온 터라 시골에 사시는 분들과의 마찰이 없어서 쉽게 정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도 감사를 드리는 시골 생활 정착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 이사 와서 인사드린 곳이 이장님 댁이었는데, 시골에도 청년 같은 이장님이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요. 이장님께서는 정도 많고 마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늘 찾고 계시는 의욕이 넘치는 분이셨어요. 그게 제가 시골에 정착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방문하셔서 시골에서 전원생활 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선 "그 동네 이장님을 만나 뵈라"라고 조언해 줍니다. 이장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동네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것이니까요. 부동산만 통해서 땅을 사지 말고 현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인 이장님께 조언을 구해 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살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잘 만나야 시골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불문율인 거 같습니다. 600여 평에 정원을 가꾸면서 사시는 분들을 얼마 전 새롭게 알

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시골이 좋아서 27년 전에 시골집을 사서 리모델링도 직접 하시고 편안한 집을 지어서 건강 넘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새내기 농부이지만 그분들은 시골 생활 고수여서 배울 게 한둘이 아닙니다. 특히 그 언니분은 무궁화 키우기와 각종 약초 및 나무들에 대해 많이 배우신 분이라 배울 게 많습니다. 시골 생활이 좋아서 시골에 터 잡으셨다는 분들을 뵈니 괜히 동병상련이 느껴져서인지 매일 봐도 좋으신 분들입니다.

어쩌면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고 사는 것 중의 하나는 땅과 물과 공기가 주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 역시 시골 생활을 하며 꽃과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 본 꽃들 종류가 100여 종이 넘을 정도로 꽃을 좋아하는데, 그것 한 가지만큼은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으면 또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겠죠? 연이 내려주는 혜택으로 좋아하는 꽃을 맘껏 키워보는 혜택을 받고 있다면 한 가지는 힘듦이 있습니다. 혜택에는 대가가 따르는 것입니다. 올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숨쉬기도 벅찰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부터 두 해째 하는 자두 농사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농사를 짓겠냐?"라고 주변 지인들의 걱정을 뒤로하고 하루하루의 일과에 충실하고 신나게 일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노동에 힘을 쏟아부으면서 남들보다 잘 해내리라는 결심으로 피곤한지 모르고 일했습니다.

작년에는 친환경 농법에 실패하고 올해는 자두 적과 실패를 하여서 두

해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처음 이 집을 구입 할 때 전 주인분이 “여자 혼자서 다 해낼 수 있는 농사가 자두 농사여서 어렵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말씀에 겁도 없이 농사에 뛰어들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일도 열심히 잘 해내었으니 이 일은 자연이 주는 혜택이니 자연에 맡기기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자두 농장 일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론으로 들은 것은 있어서 친환경 농법으로 자두 농사를 지어서 많은 사람에게 판매해 맛있는 자두를 먹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첫해 농사를 망치고 얻은 깨달음과 상식으로 두 해째 자두 농사를 지었더니 이제 자두 농사는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방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과 올해에 겪은 시행착오로 경험치가 쌓여가나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자두 농사는 딱 한 달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자두 농장에서 눈을 떼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물론 딱 한 달만 빼고는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이니 죽을 만큼의 힘은 들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자두밭에 가서 자두나무를 만져보면서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전 주인분이 몇 년을 관리해 주지 않아서 벌레알이 가득한 나무를 보면서 “나무야 내가 잘 보살펴줄게. 영양도 주고 돌봄도 해줄게. 예쁜 꽃도 피워내고 튼실한 과일도 맺게 해줄게” 하면서 보냈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퇴비 5t을 퇴비 살포 차로 뿌려주고, 겨우내 벌레알처럼 보이는 가지는 다 잘라주면서 나뭇가지를 묶어주었어요. 우리 집은 Y자 시설재배를 할 수 있는 자두 농장이라서 일하기가 쉬웠는지도 모릅니다.

겨울에는 전정을 해주면서 벌레 앉은 나뭇가지는 다 잘라서 아궁이에 태우고 벌레잡이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자두꽃이 지기 전에 냉해가 와서 열매가 맺기 전에 누렇게 잎이 떨어지고, 여기저기에 이상한 열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찍어서 전 주인에게 보이니 병이 왔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능금 조합에 가면 알 수 있다."라는 말에 이상한 열매를 따서 가져가니 "주머니 병인데, 달리 방법이 없고 다 따내어야 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하여 따내어 나가다 보니 주머니 병 없는 자두나무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머니 병에 걸린 열매를 따 내다보니 나방이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나방은 밤에 활동하고 아침에는 나뭇잎 뒤나 나무에 붙어있다.'라고 들어 해가 뜨기 전부터 자두나무를 살펴서 통 하나와 핀셋을 들고 온 자두밭을 다니면서 나방을 찾아내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도 한계가 있는지 나방의 수는 마음처럼 줄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라도 해 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첫해에는 농사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대부분은 벌레에게 내주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냉해로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와 우박으로 상처가 생긴 자두는 상품화하지 못하고 대부분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중에서도 묻기 아까운 자두들은 밤새 깎아서 새벽까지 불 앞에서 지내며 자두잼을 만들었습니다. 약한 불로 6시간씩 저어야 했으니 밤에는 자두잼을 만들고 새벽 4시 30분쯤에 일어나서 5시부터는 자두를 살펴보면서 벌레 먹은 자두를 따내어서 땅을 파내어 묻어 주었습니다. 성한 자두에 벌레가 갈까 봐 집 뒤뜰에 삽으로 구덩이를 판 다음에야 묻어주었어

요. 리어카에 가득 실은 바구니에는 벌레 먹어서 폐기해야 하는 자두가 가득 실려있었으니 그 당시 마음은 아프기 그지없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슬이 사라진 다음부터 오전에는 자두를 따내고 선별작업을 하고 그 후 택배 보내는 시간까지 정신없이 흘러가는 하루 속 잠시의 휴식 시간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서도 안타까워하며 자두 농사짓는 분들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수확을 잘 할 수 있고 튼실하게 키워낼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 "노하우라서 가르쳐줄 수 없다"라는 납득은 할 수 있었지만 아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보고 유튜브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두 농사에 대한 방법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두 적과를 하다가 사다리가 무너지는 바람에 리어카 위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냥 두어도 낫겠거니 하고 계속 일하며 밤에는 아프면 족욕을 했는데 열흘이 지나도 낫지 않았습니다. 정형외과에 가니까 넘어지면서 허리를 삐끗해서 다리가 아팠다고 하시면서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이 "왼쪽 다리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 간다."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을 많이 사용하셨나 봅니다." 하셨습니다. "시골에서 1년 내내 풀도 뽑고 텃밭과 꽃밭 만든다고 주로 쪼그리고 앉아서 급하게 일했어요."라고 말하니 "아프지 않으셨어요?"라고 하신다. "이쯤이야 하고 참았어요."라고 했더니 "조금 치료하면 금방 나았을 것을 참고 방치해서 화를 불러온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농부로 산 지 1여 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무릎이 아팠습니다. '이 정도야 참을만하지'하

고 지나쳐왔더니 결국은 무릎 연골 재생 수술을 받고도 쉴 시간 없이 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올해 적과는 두 바퀴 도는 데서 그쳐 버렸습니다. 첫해 자두는 벌레에게 다 넘겨버렸고, 두 해째 자두는 적과를 제대로 못해서 상품 가치가 있는 큰 크기의 자두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실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실망만 하고 있기에는 1년 내내 했던 시간 투자와 경비 투자한 것이 아까웠습니다. 생과일을 그대로 폐기하기에는 아까워서 전에부터 관심 가지고 준비해 온 농산물 가공식품인 자두잼을 생산해 보기로 합니다.

농가에서 무리한 투자를 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주변에서는 말리고 있지만 농부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나 이웃들, 평소에 신세를 진 분들에게 나누어주고도 어마어마한 양이 나무에 달려 있었고, 멀쩡한 자두를 그냥 버리기에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무릎 수술 후 쉴 틈 없이 일했지만, 일하는 것이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농사는 처음이라 풀 뽑는 것도 힘들고 자두 농사짓는 것은 막막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두 해 농사해보니 자두 농사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는 것들이 작년보다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올해는 밤샘을 일주일 넘게 하면서 택배 작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주문량의 반도 채워주지 못했는데, 올해는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택배를 일반 공산품과 같이 취급하니 받으시는 분들이 생산지와 소비지에서 다르게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 근교농업에 과수 농업이

들어가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대구 근교의 단체 주문은 직접 배달을 해 드렸더니 너무 싱싱하고 맛난 자두였다고 감사 인사를 듣는다고 했습니다만 택배로 받으신 분들은 감사하다는 인사만 들었다고 합니다.

확실히 직접 배달과 택배 배달의 만족도는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다 직접 배달을 다 해 줄 수가 없으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올해는 주문량도 많았고 자연재해도 받지 않아서 생산물이 넘쳐나게 많은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중간 상인들이 더 이득을 챙겨간다니 안타까움이 더해 갑니다. 구조 문제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어서 그냥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혼자서라도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 중입니다.

며칠 전에는 '서연팜 자두잼'을 만들 생산물을 다 따내어 씨 빼내는 작업을 마쳐 놓은 상태입니다. 허가도 받아두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보고 및 영양 정보를 의뢰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시제품을 만들어보니 힘은 들지만 만족할 만한 자두잼 시제품을 얻어서 그대로 시행만 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제 남은 건 병에 붙일 상표입니다. 곧 나온다고 하니 다 만들면 판매에 들어갑니다. 역시 문제는 판매입니다. 여러모로 걱정되지만 여러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맛 좋고 영양 만점인 제가 직접 농사지은 제품을 만들어냈고 판매를 앞두고 있으니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올해 농사가 막바지에 이른 시간이어서 글을 써보게 됩니다. 농사 2년차 농부인 저는 말합니다. "농사는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야!"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농사만 짓는다면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릴 수 있

는 일 또한 농사인 것 같습니다. 바쁘고 힘들 때는 눈물도 나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건 찰나일 뿐이고, 시골 생활과 농사에 진심입니다. 자연의 신비를 느끼면서 마음은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바로 시골 농촌인 듯합니다.

지금의 저는 "전생에 농부였을 거야"라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누립니다. 자연과 맞대고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한 보상은 받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6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수상작품집

농촌 별별 이야기를 들려 주세요

발 행 일 2022년 11월
발 행 처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어민신문